



**은평**



## 목차



### 발간사

마을에도 꿈이 필요합니다

6

### 참여자치

주민자치의 꿈, 참여와 실천으로 이룬다

10

### 문화

예술로 소통하며, 마을 문화를 꿈꾸는 사람들

46

### 예술가

은평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59

### 마을미디어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 동네 미디어

84



###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이 꿈틀꿈틀

116

###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삶 속에 푸근히 녹아 있어요

147

### 생태와 환경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마을을 꿈꾸며

179

### 교육

은평 주민들, 학교안으로 뚜벅뚜벅

212

### 노동

동네 주민의 또 다른 이름, 노동자

247



## 마을에도 꿈이 필요합니다

은평은 예전부터 성숙한 나눔의 문화가 깃든 동네이다. 정부와 시장이 놓치고 있는 틈새를 착하고 정의로운 주민들이 메우며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헌신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다.

은평구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경우도 있고, 기관이나 단체의 활동과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특정한 분야만이 아닌 여러 면에서 다양하고 모범적인 사례들이 나타나 총체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날부터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일일이 설명하다가 문득 “그래, 책을 내자! 건강한 실험들이 이어져 삶의 토대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오랫동안 살고 싶은 지역공동체, 동네공동체,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은평의 역사를 소개하자!”고 마음 먹었다. 그간 관여해 온 여러 사람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책은 지난 10년간 은평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에 관한 예를 소개하려 한다. 지난 10년간 오랜 시간을 지속적인 관심과 기획으로 꾸려온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남고 확산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안내글이 될 것이다.

충분히 담지 못해 아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책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내놓을 책의 시작이다.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평의 다양한 분야, 다양한 활동,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

2014년 1월

최순옥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대표

참  
여  
자  
치

주민자치의 꿈,  
참여와 실천으로 이룬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같이 걸어온 흔적

최순옥

## 주민자치의 꿈, 참여와 실천으로 이룬다

### 구구한 앞 이야기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나 나이가 들며 저절로 무릎을 탁치며 오랜 시간을 거쳐 트이지 않았던 눈들이 단박에 터지는 경험에 있다. 입으로는 추억거리나 정말 그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와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속담들도 그렇고, 나이들어 만난 어릴 적 동창의 오래 전 자기 얘기를 들려 줄 때 수십년을 거슬러 비로소 이제야 이해되던 그 어느 시절 사건들..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청춘예찬’이 이렇게 절절하고, 주말극장에서 줄린 눈 비비며 보다가 도무지 이해안되던 주말명화의 한

장면도 다시보니 이제 훨씬 이해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쌓는 것이며 수많은 경험을 맺게 하는 사회관계, 사람관계, 이해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닐까.

동네나 마을도 그렇다. 걱정하고 집을 사고 아이들 교육환경 때문에 고르고 고르다 찾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한 동네에서 나이들어가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게 만드는 요소’를 생각하다보면 거기서 나오는 ‘공감대’가 있다.

새 직장을 얻었는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집을 직장 가까운 곳으로 옮겨야 하는 고민이 생길 때, 아이들 교육문제로 좀더 좋은 동네 환경을 찾게 될 때,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야 할 때 등 등..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동네를 찾고, 힘들어도 그냥 살던 곳에 눌러 앉게 되는가? 이 책은 사람들과 그 이유를 말하고 듣고 이야기 나누어 보게 될 때 그때 기준을 세워주는 책 내용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기에서 굳이 기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고 공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감정이다. 사람 사이를 메우는 다양한 알맹이들, 소속이 주는 안정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삶에 대한 위안. 표현은 다르겠지만 같이 어울려 뭔가를 도모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정서와 가치관, 삶의 양식이 누군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그게 기준이라라.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이 지금의 은평을 설명해주는 좋은 표현이다.



▲ 은평시민사회 전체 송년회



▲ 제5회 상상축제조직위 출범식을 마치고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같이 좀더 나은 방식을 고민하는 사람들, 큰 것을 하긴 어려워도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해낼 수 있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품을 내어 함께 한 사람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사회를 꿈꾼다. 지금 은평에선 그런 사람들이 옴지락 꿈지락 살고 있다 어느 다른 지역처럼... 다만 그 사람들이 해 온 과정들이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우리 은평구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몇 번의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기초,광역선거 이후 지역의 정책이 우리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의 경험이 전부다.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조례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에서부터 모범안으로 내려온 조례로 생활규범들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다보니 서울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

는가가 삶의 질을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은평은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주민참여, 협동조합, 시민사회 활동 등 이른바 정부와 시장의 이해관계가 아닌 '제3섹터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 여러 시도들과 흐름을 같이 하며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일이 우리 사회의 대안이다'라고 까지 말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

이제 그 첫 시작점이었던 목적을 가진 자발적 시민활동들이 열린 사회은평시민회, 은평시민넷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 은평, 시민운동의 역사를 시작하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이하 시민회)를 아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규정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곳 아닌가요?  
집못고치고 사는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자원봉사단체예요.  
지역의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민단체들 중 하나잖아요.  
동네에서 주민자치활동을 도와주는 곳이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서 회원에 가입했어요.  
청소년 활동이나 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죠  
옛날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해서  
오리도 먹이고 EM을 보급하던 활동도 하던데..  
지역에서 여러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만이 단체예요

각각 시민회의 인상깊은 활동이나 자신과 닿아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안에 녹아있는 공통성은 한가지, ‘지역과 동네’라는 것이다.

▼ 실직가정돕기사업



▼ 저소득층 연탄 지원 활동에 참여한 시민과 아이들



열린사회은평시민회(이하 시민회)는 1998년에 창립한 열린사회 시민연합의 지부로 은평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아마도 은평에서 ‘지역을 운동의 단위로 생각한 사람들’의 첫 출발이었지 싶다. 물론 이전에 이미 풍물패 터울림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생태보전시민모임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작은소리학교도 있었다.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도 1996년도에 갈현동에 등지를 들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 부모들은 이후 시민회 회원이 되고 두레생협이 출발하는데 든든한 힘이 되었다.

‘지역’을 운동의 기반이자 본격적인 변화의 대상으로 놓고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은평에서 ‘시민회’가 처음이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서울의 지부조직은 1999년도 당시 9개지역에 있었는데 오래된 지부는 이미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부터 민주화운동과 지역시민교육사업을 해오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동대문, 구로, 영등포, 서대문, 강북, 강서 양천 등). 지역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 중 빈곤, 취약계층을 돕고 지원하는 사업(저소득가정, 실직가정 지원사업, 결식아동방과후교실), 시민의식을 높이는 교육사업(문학교실, 다양한 시민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커뮤니티 기능활성화와 교육육아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방과후 교실, 마을도서관, 어린이집),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생활하천-홍제천, 양재천, 중랑천, 불광천 가꾸기-개선활동, 생태모니터링사업 등)을 지부가 지역여건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시작하고 활발하게 진행하여 이미 ‘지역 공동체 활동’의 다양한 사례와 모델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은평시민회도 1999년에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실직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사랑의 의료결연사업, 결식아동 방과후교실 열린학교, 불광천지킴이 사업, 새천년맞이 시민교육, 다양한 지역인사만나기, 회원모



▲ 동네 벽화 그리기(응암1동 은평등기소 벽)



▲ 청소년 봉사단 '더불어 아름다운 사람들'



▲ 지역아동센터 열린학교 아이들의 생일파티



▲ 집수리봉사 활동 기념사진 - 앞줄 꼬맹이 10살 윤중이가 어엿한 자원봉사자로 성장하였다



임 및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은평구청 앞에 사무실을 얻고 단체의 꼴을 갖추기 위해 회원구조와 사업구조를 만들고 상근활동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지역사회 영향력과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을 만들어 '콧대높고 문턱높은 구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자주 찾아가다보니 얼굴을 알게된 공무원들이 생

기기 시작했다.

잠깐 옆으로 새자면, 현재 서울시와 은평구청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시민(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시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결과와 과정을 책임지는 민관협치를 중심에 놓는 변화가 있기까지 실제 지역과 동네, 마을 단위에서 '정치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가 운영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의 고민이 있었다. 즉 '중앙중심의 시민운동'에서 '지역과 사람중심의 시민운동과 공동체적 삶의 방식 체득'을 대안으로 삼았던 흐름이 있다.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서양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없이 많은 시도의 결과물이다. 겸손한 사회인식이 아마도 길게 더디, 천천히, 조금씩 가는 지역 풀뿌리 시민활동을 시작하게 한 것이 아닐까.

또한 사회 전체의 변화를 바라기만 하고 선거 때 외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력과 권력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운영의 원리를 작게나마 지역과 단체와 모임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모이게 하고, 역동을 만들어내고,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다시 좀더 나은 길을 찾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총회

그런데 여느 시민운동과 다른 것은 위의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가치로우며, 기꺼이 하게 되고 만족스러운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를 대안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의 목표이다. 은평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조직되고, 활동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1999년, 2000년경이다. 이는 은평지역 시민사회의 의미있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 순 토종 지역시민들의 생활운동공동체 풀뿌리 자치를 시작하다

은평의 지역운동단체는 우연하게도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뒤에 생겼다. 1997년 대통령 선거 후엔 ‘사람존중희망공동체’를 모토로 하는 열린사회 시민연합의 지부 조직인 열린사회은평시민회가 창립되었다. 2002년 대선 전부터 정치개혁과 정당혁신 활동을 벌이고 대선과정에서 뜻을 함께 했던 일부 은평주민들은 지역부터 참된 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주민들이 직접 시민운동단체 창립과 풀뿌리 지역언론 창간을 동시에 모색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은평사랑방’이란 온라인카페를 개설한 후 약 1년간의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바탕으로 2004년 8월 탄생한 시민운동단체가 ‘은평시민넷’이고, 2004년 10월 창간된 인터넷 지역언론이 지금의 ‘은평시민신문’이다.

### 시민회와 시민넷, 모두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여 시민 중심으로 설립

이 두 단체는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함께 하는 운동체’를 모색했던 공통점이 있다. 다른 점은 일반적인 지역사회 직능단체들이 전부 중앙조직의 지부성격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시민운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유사한 조직을 찾아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지부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은평시민넷은 뜻을 함께하는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고 단체이름을 만들어 이른바 토종 풀뿌리시민단체로 출발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를 단체장이나 구의원을 뽑는 행위나 제도 정도로 인식해오던 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 생활자치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며 공동체성의 회복과 지역사회 재생과 혁신이란 과제를 설정한 운동은 은평의 시민사회연대의 근거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은평형 지역단체’ 은평시민넷의 창립은 의미있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은평시민넷은 출발할 때부터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활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던 초기부터 지역과 지역시민사회와의 공유지점을 모색했다. 시민넷이 공식적으로 은평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4년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 때였다. 첫 어린이날 행사는 ‘놀이로 신나게! 가족과 함께! 쓰레기 없이 건강하게!’를 모토로 출발하였는데 주관한 9개 단체들이 신나는 체험과 놀이부스를 기획하면서 ‘우리만의 색깔, 어린이날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른들의 역할을 보여줄 체험부스를 고민하고 있었다. 은평시민



넷은 당시 범국민적으로 진행된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 - 동포 돕기 성금모금행사’를 사진전과 통일관련 어린이 도서 전시·판매부스를 함께 운영하여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이는 지역시민단체가 사회적 의제나 관심사를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다가서려 시도한 것으로 어린이날잔치한마당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으며 ‘관제행사’와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첫 내딛음이었다고 하겠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가 처음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결식아동공부방 등 시작하여 지역내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을 여러 형태로 시작하여 지역인지도를 높이고 전담활동가들을 앞세워 힘차게 활동을 시작했다면, ‘은평시민넷’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활동의 책임을 맡는, 말 그대로 ‘참여민주주의’를 조직내에서 실현하고 활동력을 높여가는 방식을 택했다. ‘민주적 시민’이 관심 가져야 할 ‘지역의제’들을 선정하여 생각을 전달하고 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꾸려 나갔다.

지난 10여년 간 은평의 자발적 시민활동들과 단체와 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연대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여러 다양한 이유와 동기들이 있고 과정을 함께 한 여러 단체와 정당들도 많았지만, 꾸준히 지역

에서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고 활동하며 지역시민운동체임을 자임하며 ‘논의단위, 대책위역할, 서명단위, 행사지원, 민관협력, 대표성 자임 등’ 수많은 역할들을 고루 나누었던 ‘시민회와 시민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자평한다.

## 은평시민회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삶터를 바라보는 눈이 깊어진  
삶터가꾸기와 마을만들기

시민회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사명에 두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열린사회 여러 지부들은 마을도서관, 방과후교실, 북카페, 품앗이어린이집 운영 등의 마을경험을 가지고 있고 동네공원을 아이들의 놀이터와 주민 쉼터로서 기능하도록 코디네이션하는 활동을 진행한 경험들이 있다. 현재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민모임이나 단체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사 및 교육 등을 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며 마을에 필요한 여러 공간, 시설, 프로그램, 협동활동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시민회가 처음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마을환경-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마을 사람들이 동네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었다. 제일 처음 우연찮게 갈현1동 갈곡리공원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초기부터 추진하면서 주민모임이 만들어지도록 돕고 쓰레기장처럼 전락했던 공원을 변화



▲ 시민넷 창립총회



▲ 시민넷 8차 총회

시킴을 위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각종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시민회는 ‘삶터가꾸기’라는 이름으로, 주민모임인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은 실종된 아이들 놀이터 기능을 되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만나면서 2001년부터 활동들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갈현1동 공식행사로 13년째 이어오는 한여름 영화제, 동네축제인 ‘갈곡리축제’는 다 그때 시작했던 것이다.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이 공원을 매개로 정원가꾸기와 마을행사를 주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회원이 수십명에 달하기도 하였고 안정적인 활동공간의 필요와 일상사업의 필요를 느껴 갈현1동 녹색가게를 만들었다. 녹색가게는 주민커뮤니티공간, 재활용문화 확산, 주민조직화, 다양한 마을행사 주도 등 시민회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자치조직으로 꾸준히 동네 활동을 하고 있다.

갈사모, 녹색가게 등을 통해서 보더라도 공공공간(공원, 자치센터 등)에 주민자치 운영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동 단위 행정활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주민친화적 마을문화가 만들어 지는데 일조하며 주민참여로 지역사회를 가꾸어나간다는 일이 구호처럼 공허한 일이거나 거버넌스가 말처럼 어려운 것이 아닌 보람되고 즐거운 민관협력활동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자연스레 알려주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갈현1동과 대조동 등 주민자치, 주민참여 등의 활동이 있는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 자란 아이들이 동네를 기억하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확신을 갖고 젊은 엄마들이 중년여성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한 경험은 은평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시민회는 동네 활동을 한 갈사모 녹색가게 회원들이 모두 회원이 되어 시민회 활동을 같이 하고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참



▲ 갈곡리 정원가꾸기 주민모임활동 ▲ 갈곡리영화제 13년째 진행 중(2013) ▲ 갈곡리축제 명물 '50m 김밥말기'

여하고 있다. 그때 갈사모, 녹색가게 회원들이 동네에서 함께 했던 활동들을 주욱 떠올려본다.

처음 4명으로 갈곡리공원가꾸기주민모임결성-주민모임 발대식-갈곡리공원제모습찾기주민서명 시작-쓰레기공원 청소와 마을게시판 설치, 현수막 홍보-가고싶은놀이터그리기미술대회-구청장 면담-공원기능정상화 축하행사-2001년부터 여름공원에서 영화상영(2013년 현재진행형) 가을갈곡리마을축제(동네학교밴드 참여와 마을아이들 사진전 등)-공원화단가꾸기-지역아이들과 체험학습 진행-부모교육(성교육 성격유형검사 등)-2005년, 주민커뮤니티공간 역할을 하는 '녹색가게' 설치-1일 2조 교대 자원활동으로 운영-재활용 재사용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옷,잡화 기증, 회원적립-수익금 이웃돕기사용(교복지원, 생활비지원 등)-갈곡리벼룩시장 개최(2007년~현재)-되살림 강좌-자원활동가 교육-되살림물품제작판매-EM비누만들기-주민자치위원회 참여-이웃돕기김장담가나누기-공동구매 등등 현재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주민조직마다 권장하고 있는 활동 유형이 이미 10여년전부터 갈현1동 주민조직에서 실행되고 있었다.

갈현1동은 다문화사업도 활발하고 주민자치활동도 활성화되어있



는데 모두 10여년 이상의 주민활동이 이어져 온 성과라고 본다.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달마다 벼룩시장을 열고 교회들이 참여하여 바자회 수익금을 지역에 기부하여 이웃돕기 활동을 함께 하고 교회가 한달에 한번 공원에서 무료급식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이 주변에 많아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 교육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새로운 동장이 오시고 관계 공무원이 바뀌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이 변해도 위의 모든 활동은 동네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전통이 되어 진행된다.

마을 활동은 그렇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은평의 '00마을'이라는 브랜드가 되지 못한 것은 마을살이를 책임지고 그림을 그리는 주체들이 없어 행사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마을관계망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다.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지속시켜 갈 주민주체가 이사, 구직 활동 등으로 떠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마을공동체로 다양한 마을망을 만들거나 진행되지 못한 한계 때문이다.

2010년에 시민회가 응암1동 10년 시대를 접고 은평시민사회의 제3섹터 확산을 위해 과감한 결정(전세살이에서 월세살이로 전환, 한 달에 140여만원 월세부담을 안고 시민사회 만이 역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갈현2동에 공간을 마련하여 '즐거운소통 교육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근에 지역활동 경험이 있는 갈사모 녹색가게 출신회원들, 공동육아조합원들, 생협 조합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마을 상황을 주목하고 우리도 성미산마을처럼 '대안과 상생, 함께 도모하는 재미와 즐거움, 은평 제3섹터의 상징'의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갈현2동 시민회가 있던 복숭아길에는 소리나는공동육아조합원 출신이 운영하는 피자가게가 3년이 되었는데 이 곳은 공동육아조합원들의 아지트이자 지역사회 사람들이 만나는 파티의 장소로 사

용하며 동네 작은가게들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민회 인근 가게들(식당, 옷가게, 카페형주점, 분식점 등이)이 함께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꽃을 심고 관리하여 골목 입구가 아름답다. 이에 착안해서 갈현2동 마을공동체 추진단 활동은 '꽃과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골목길가꾸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분야 전문가인 이웃동네 주민이 함께 도움 주기로 하여 한 블럭씩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길마공원길은 입구의 '마을엔카페'를 시작으로 3개의 공방이 마을엔예술학교를 하고 있고 작공대안교육센터, 민간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작업장카페, 마을기업 등이 주욱 이어져 있고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있으며 색깔 있는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이 거리를 중

▼ 갈현2동 마을공동체 활동



▼ 갈현2동 마을네트워크 회의 모습



▼ 갈현2동 청소년축제



심으로 마을의 문화가 생성되고 사람들이 찾고 가게가 활성화되어 사람들은 동네의 활력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다. 일단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주민들과 같이 할 예정이며 봄가을로 마을축제, 청소년문화제가 치러진다. 거리예술마켓이 시작 되고 크고 작은 마을 교육과 문화 활동이 이어질 것이다.

건강하게 먹고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문화가 특별한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닌 보편성을 띠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고 멀리서 가까워서 연결되어 서로 돕고 나누는 관계들을 만들고 가는 시도들이 있는 지역사회를 꿈꾼다.

#### 주민자치회관을

지원하고 관계망을 만들어나간다.

주민자치회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지금처럼 마을단위 거점이나 주체들이 여러 형태를 띠고 만들어지기 전,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 1999년 ‘동사무소 개편에 따른 여유공간 활용’이다. 주민자치의 시작과 공간적 거점으로 주민자치센터(현재 주민자치회관)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늘 그렇듯 주민들은 모르고 따르게 되거나 알만하면 제도가 바뀐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13~14년 동안 주민자치회관에서 주민들의 취미생활과 여가를 돕고 교육 욕구를 해소하며 동네와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관심갖게 하고 스스로 마을 운영에 참여하여 자치 모델을 만들려고 한 시도는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본다. 행정이 꿈꿀 수 없는 사각지대의 사회약자들을 지역 사회 안전망 안에서 보살피고 마을마다 주민들의 모일 수 있는 여러 계기들이 있으니

분명 동사무소(이후 동주민센터)만 있을 때보다는 활력과 자치적 요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겠다. 건강한 기운이 마을 전체로 확산되고 더 많은 주민들과 공유되어 자치와 협력, 도움과 나눔, 일거리와 복지, 즐거움과 건강함 등이 넘쳐나도록 지역 활동가나 자원봉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동네 운영에 참여하고 신경써야 한다. 그리하여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협의민주주의가 동네마다 정착되고 마을자치가 실현되어 사는게 만만해지며 동네사람들이 제일 편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 자원봉사캠프 등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 ‘자치’의 모델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간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과 갈현1동 녹색가게가 마을과 자치회관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되었지만 마을 확산이 더딘 것은 지역안에서 함께 하는 그룹들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역촌동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마을 활동들이 이전과 다른점은 크고 작은 마을거점과 마을주체들이 함께 한다는 점이다. 초록길도서관, 꿈꾸는 다락방, 신나는애프터센터, 복지관, 동주민센터, 살림의원 및 의료생협, 마을협동조합 등이 만들어 낼 마을자치망과 자치적 운영능력을 기대해볼 만하다. 지난 14년간 은평시민회는 자치센터 활성화와 마을주체들의 교육 등의 활동들을 지원하며 관계맺음을 해왔는데 갈현1동, 대조동을 시작으로 응암1동, 녹번동, 최근에는 갈현2동, 자치센터 박람회 지원을 위해 신사1동, 수색동, 역촌동 등 자치활성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때 동에서 맺은 공무원들과 교류하며 민관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해 온 다양한 시도들이 최근 행정의 정책변화(주민참여 공동체 추진, 참여예산,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권장 등)와 맞물려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문화가 활성화 되면서 제대로 된 마을자치와 공동체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들의 자

발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예산 지원등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느낀다.

## 공간, 즐거운소통을 열다

시민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이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제안하고 초기 행사기금과 실무진행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해 온 덕에 단체들이 큰 부담없이 공동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10여년을 진행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원조직, 실무조직, 협력 참여조직 등의 역할 구분이 생겼다. 각 단체들은 차례가 되거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기꺼이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을 맡아 책임지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어린이날 행사를 녹번복지관이 총괄하고 각 동네마다 진행되는 일의 총괄단체들이 각각 맡는다.

문화생태계를 구축하는 일, 도시농업을 확산하는 일 등 전문성을 갖춘 단체들이 총괄하고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자연스런 방식이 은평지역 시민사회의 특징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2010년, '공동으로 사용할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에 눈을 돌려 전세자금을 빼 월세로 전환하면서 갈현2동에 교육장과 사무공간을 낸 시민회의 판단은 은평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마땅한 회의공간이나 지속성을 갖는 허브가 없던 시점에 교육장, 회의장소, 기자회견장, 워샵, 행사장, 모임장 등의 역할을 해낸 열린사회은평시민회의 '즐거운소통'은 8000만원의 보증금이 3000만원 보증금으로 줄어 재산상의 후퇴는 있었지만 그만큼의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운영능력이 높아지고 민관거버넌스의 성과가 많아진 것으로 대체하고도 남음이 있

다. 그동안 시민회가 했던 상당 부분의 역할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중간지원조직 '은평상상'으로 이관되고 시민회는 좀더 집중해서 주민을 조직화하는 일, 시민을 성장시키는 교육사업, 시민들과 크고 작은 공동체 실험을 해나가는 활동을 계속 하게 될 것이다.

## 은평시민넷의 크고작은 실험들

서울에서 마을공동체가 있는 지역을 소개할 때 크게 세가지 부류가 있다. 원주거지 주민중심의 마을재생과 공동체적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례, 가치와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마을커뮤니티 사례(성미산 마을, 재미난마을), 단체와 기관 중심의 사업과 지역주민들이 어우러져 일정한 생활방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마을활동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은평시민넷은 좀 독특하여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비슷한 정치철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단체라는 틀로 묶여 지역운동체로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에 따른 지역권



▲ 즐거운 소통



▲ 즐거운소통에서 회의 모습



력 감시와 견제 등을 우선 과제로 두고 활동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회원들간의 멤버십이 공동체적인 삶의 방식을 지향하며 함께 공부하고 회의하고 먹고 놀고 경작하고 지역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 인큐베이팅 역할 등을 회원들이 서로 나누어 가며 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앞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창립 초기엔 구청 중심 행정에 대한 민원 모니터링과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의회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해마다 민원모니터링 백서를 출간하고 구청에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주요 공익적 민원사항이나 정책적 담보해야 하는 사안을 뽑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제안한 내용의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활동을 추진해왔다.

시민넷은 활동가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회원중심의 단체여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이 단체의 중심이다. 이러다보니 많은 수의 회원들이 지역사회 소소한 모든 활동에도 참여하고 역할을 맡는 등의 일들이 많았다.

해마다 열린 어린이날 행사 초기, 모든 행사물품을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에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침 일찍 운동장에 천막을 치는 일, 책상을 나르는 일, 현수막을 거는 일 등 남들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게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일들은 시민회와 시민넷의 몫이었는데 시민넷 남성회원들은 일찍 나와 몇 년동안 그 일을 기꺼이 맡아 주었다. 또한 홈에버노동자 파업지지 일인시위, 대운하반대 캠페인, 선거참여캠페인, 거리홍보, 기자회견, 등등 사람이 동원되어야 하고 머리가 중요하고 많은 시민들 주민들에게 설익은 젊은이들의 주장이 아니라 살만큼 산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라는 진정성을 전하는 모습으로 은평구 곳곳에서 제대로 된 시민정신, 참여와 실천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

는 모범적 시민의 모습을 은평시민넷 회원들과 운영위원들이 보여 주었다.

정치적 실천은 대개는 일회적이거나 한시적인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선거가 그렇고 00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활동 등이 그렇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 등 그간의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라 이름붙은 것은 하는 사람은 할수록 성장하겠지만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변화는 측정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라고 표방한 시민넷은 회원 중심 실천 활동 확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과 공유구조를 갖추고 회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넷 스스로가 주민 생활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교류하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

이 공동체는 해마다 여름이면 단체로 여름휴가를 간다. 40여명이 움직이는 집단 캠프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이 듣고 자라나고 아이들끼리 친하게 되고 같이 도모해 볼 동네 친구가 되는 관계가 단체 안에서 만들어진다. 다들 한두 명



▲ 시민넷 회원들의 활동



▲ 어린이날 행사에서 달고나를 만드는 시민넷 남자회원들

정도의 아이를 둔 가정들이 대부분이라 이들은 가족같은 친밀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협동조합 활동도 같이 열심히 참여하고 지역에 일손이 필요하고 사람이 채워야 할 일들을 서로 앞장서서 일한다. 시민넷은 공동체적 친밀감이 강해 회원들의 2세들이 성장하여 다시 이 동네에 동지를 틀어 가정을 꾸리고 서로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또 다른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미래를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

은평시민넷이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해왔던 의정모니터링과 민원 모니터링 활동, 이를 통해 매년 발간하던 '은평민원백서' 등의 결과물들은 지역시민사회의 주요한 성과물이자 자산으로 남아 있다. 또한 지금은 행정에서 당연한 듯 시행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지원사업도 은평시민넷 회원들이 주도로 2005년부터 '은평에서 도시농부되기'라는 타이틀로 8년여간 공동체 농사를 지어온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도 시민넷은 해마다 30~40가족이 함께 서오릉 인근에서 텃밭에서 경작의 땀을 흘리고 있고 직접 거둔 수확물로 '은평상상 축제'에서 '도시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밖에 시민넷은 다양한 인적구성에 걸맞게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해왔다. 문화적 토양을 풍성히 해주는 '생활의 발견-은평시네마'를 출발점으로 독립영화 상영, 감독과의 대화를 이미 7~8년 전에 시작하였고, 우리동네 은평구석구석을 산책하고 돌아보는 '은평뚜벅이' 모임, 최근에는 회원 2세들이 '아소다소'라는 소모임을 스스로 꾸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공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회원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삶과 일(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정담을 나누는 잡담(Job談)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등 그밖에 다른 단체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넷은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문화

적 토양을 풍성하게 가꾼 '생활의 발견' '은평시네마'가 그러하다. 특히 '은평시네마' 활동은 독립영화의 지역 상영과 배급이 보편화되지 않던 2004년 부터 시작하여 지역문화 및 다양한 문화사업 전개, 지역미디어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출발점으로 독립영화상영, 감독과의 대화로, 지금의 공동체상영의 사례를 만들었다. 최근에는 2세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잡담(Job談) 회원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잔잔하게 진행하고 있다.



▲ 시민넷 2세들의 '아소다소' 홍대공연 모습



▲ 시민넷 잡담(Job談) 진행 모습



▲ 서오릉 텃밭에서 농사짓는 시민넷 회원들



▲ 시민넷 가족캠프

## 지역의제와 시민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지역의 노력들

### 지방자치와 은평자치포럼

은평은 생활교육문화복지 중심의 풀뿌리활동이 활발하면서도 지역시민운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이어왔다. 어린이날행사, 벼룩시장 등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알게 된 은평시민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영역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모색하게 되었다. 은평시민회, 은평시민넷, 은평두레생협 준비모임 멤버들이 인적 연관이 있어 자연스레 이 세 개의 조직이 '은평자치포럼'을 결성하고 2006년도 지방선거에 시민후보를 내는 등의 활동을 함께했다. 은평자치포럼은 우리 사회 민주적 과제 중 지방자치와 민주적 제도정착, 정치적 대의자로서 선출직공무원(시, 구청장, 구,시의원 등)들의 역할이 주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지역정책과 제도연구, 지방선거에서의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을 목표로 출발했으며 월례모임과 포럼운영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 대안들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킬 우리의 대표자를 구의회로 보내자는데 뜻을 모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 당시 은평두레생협 이사장이던 홍기원이사장을 구의원 후보(무소속 시민후보)출마시켜 구정의 바른 감시자와 정책제안자로서 구의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육아의 사회적 책임의 제도화, 교육복지확대, 주민참여정책시행, 자연친화적 은평만들기를 위한 제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간 제

시민사회가 이루고자 했던 인권, 교육, 자치, 환경, 문화, 복지, 건강, 노동, 주거 등의 분야에서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건강한 생활문화, 사람과자연이 조화로운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지역사회안전망, 주민의 참여와 자치가 보장되는 지방권력의 민주화' 등의 과제를 모아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주로 시민회와 시민넷 대표진, 운영진들이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고 각 단체 활동가나 회원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로 사무실도 지키고 운전도 하고 피켓도 만들고 유세 때 박수부대도 되는 등 당시에 당선될 것 같은 충만감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한 경험은 '과정은 아름다웠으나 결과는 슬픈 경험'으로 남았다. 당시 시민사회 활동은 주민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직 기반도 취약한 상태에서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만 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이후 좀더 주민들의 이해에 밀착한 지역활동, 공동의 연대활동, 시민들이 관심가질만한 공동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이때 받은 충격이 컸는지 은평시민사회 발전에 비해 시민사회 진영의 여러 활동가나 관계자들이 정치적 대리자로 쉽게 나서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첫 시도는 실패했으나 그 필요성과 의의는 여전하다. 굳이 무소속 시민후보라는 방식을 택해 기초선거에 도전한 것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운영되는 경우나 같은 정당인 경우 행정의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타운, 재개발 등 은평구가 갑자기 도시개발의 바람을 타고 전 지역의 주거와 생활여건이 변화될 상황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서 요구되었던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초지자체 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활동가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성장하고 있다. 정당이해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표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와 법규정을 손질하며 구청과 의회운영 질서를 개선하며 좀더 나은 지역살림이 꾸러지도록 도전하고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8년 전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들고 시민후보를 통해 지방선거에 실험을 시도했던 은평자치포럼의 경험은 나름대로 의미있는 도전이었다고 하겠다.

#### 활발한 지역연대활동

은평이 지금처럼 시민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는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은평, 지역, 동네, 마을사람들’이라는 모토로 서로 엮이고 묶여, 지역사회 안에서 남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서였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겠다.



▲ 은평자치포럼 창립총회



▲ 은평자치포럼 지방자치학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그룹들 중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지역사회안에서 여전히 봉사조직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나 주민조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기관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교육, 복지, 환경, 문화, 자치, 도서관,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하는 흐름이 있다.

두 흐름의 공통점은 모두 지역에 필요한 ‘이웃의 손길과 도움’을 각자의 방식으로 펼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전자는 ‘동조직, 구조직, 전국조직’으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중앙조직의 영향력이 지역으로 내려와 민관협력을 전제로 한 사업비 지원과 지역사회봉사(소외이웃돌보기, 캠페인, 행사참여 등)를 한 축으로 한다는 점이고, 후자는 사업공간(조합매장, 사무실, 교육장, 도서관, 복지관, 공부방 등등)을 가지고 일상 사업을 하면서 관련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로 연대하며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제도화, 정책화, 예산 등의 배정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후자에 속하는 은평시민사회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중에 ‘인권보호나 권리신장에 관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 또는 ‘제도와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들을 주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서왔다. 그중 공동으로 대응을 했던 일은 ‘사립학교의 전교조교사들 탄압에 대한 대응’과 ‘A병원 노동자 탄압 공동대책활동, 홈에버 매장근무자 해고문제 공동대응’등의 활동이 있었다. 지금처럼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단체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돌

아가며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항의시위나 집회,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 사회와 주민이 이 사안에 대해 관심갖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론이 환기되도록 노력하는 활동들이 이어졌다.

요즘 은평에서는 지역으로 보면 동네주민이자 시장영역에서는 노동자인 주민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법 보호 안에 있지 못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활동(권리 보장이 안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주민들을 위해 상담과 교육, 건강돌봄과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는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이 있고, 최근엔 은평노동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2000년대 초반 은평에 중규모 병원인 A병원의 노조불인정과 노조활동탄압은 노동운동계에서 악명이 높았다. 종합병원이 없고 1차 의료기관만 많은 은평지역에서 A병원이 2차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과목을 늘리고 의료진의 실력을 높일 것, 병원시설 환자서비스 개선 등의 안팎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간호사, 의료기사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등을 회피하면서 병원의료환경과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여 결국 병을 얻어 퇴직한 조합원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2000년대 초반과 중후반에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나 끝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실현시키지 못하였고 대안으로 제안한 ‘지역 2차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시장성’을 갖자는 제안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지역에서 이와 같은 노동문제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노동인권센터 살림의료생협과 살림의원을 만들어내는 지역적 응집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구호를 넘어 현실의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 요구

2005년, 은평시민사회와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주민청원 방식으로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가 약 9500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냈다.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조례안 발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명명부를 들고 구청을 찾아갔는데 얼마 후 구의회에 이관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실상 구청 차원에서 기각 처리된 것이다. 주민제안 조례안은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이미 제정한 곳도 있는 다른 지역사례도 들어가며 아이들의 집단 급식이 갖는 중요성이 있으니 농약과 비료를 기반으로 땅을 죽여가며 작물을 키우는 농업기반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은 도시에서 집단 급식의 질이 바뀔 때 가능하다는 사실과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 음식으로 내놓자는 취지를 제안한 것이었다. 주민제안 조례안은 거부되었고 그 이후 여러 소송과 급식관련 활동들은 소강상태를 맞았다. 그러다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친환경급식운동단체들의 노력과 정치권의 관심이 더해져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의 열기가 확대되었고 은평에서도 다시 은평의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은평운동본부’가 출범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을 위한 서명운동과 인식개선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런 노력위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2012년 은평구청과 구의회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제정하였다. 구청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아이들

에게 전달되도록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무상급식 및 친환경급식 일부가 시행되고 있다. 일찌감치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단위의 노력을 해왔던 은평시민사회는 다시한번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했고 언젠간 이뤄지리라 하는 확신을 갖고 분야별 의제들을 발굴해서 현실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때 ‘친환경급식지원조례’를 함께 만들고자 노력한 주민운동의 정신과 가치는 이후로도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다. 은평두레생협은 꾸준히 지역홍보와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교육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육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자치권 정립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이후 ‘은평학부모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이후 ‘학교교육환경과 자치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주민활동으로 이어져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먹거리와 도시에서의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소비자로서만이 아닌 스스로의 경작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지원하고 농사에 깃들여진 공동체성을 확산하는 ‘도시농업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계기로도 작용했다.



▲ 친환경무상급식 은평운동본부 출범(2010년)

수많은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연결된다.

2007년,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 은지네)의 출발은 모든 분야가 활성화하는데 토양이 되어주었다. 은평안에서 끈끈한 동네 단체들의 연대와 협동, 이웃이 뭉치 공동체가 뭉치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함께 해 온 시간들. 이제 은지네를 기반으로 ‘은’씨네 남매들이 생겨났다.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은지연) 은학네-은평학부모네트워크, 은도네-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동협-은평협동조합협의회, 장은사-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등등.

은지네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어린이잔치한마당, 은평마을상상축제, 은평상상포럼등을 진행했다. 사이사이 크고작은 연대와 협력활동을 해왔으며, 이후 최근에는 분야별 네트워크 활동이 활성화되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 생태계구축-주민참여구조-주민학습구조-주민활동구조-정책실현과 제도 변화’ 형태를 띠고 분야간 연결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은지네 참여 단체 외에 지역사회 풀뿌리 주민조직과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사회기금, 지원재단 등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중간 지원조직으로 마을법인 ‘은평상상’을 공동으로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개별단체들이 자기 역할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기 어려운 조건과 네트워크조직으로서 일상성을 담을 수 없는 지역사업(활동가교육, 마을과 공동체 및 시민사회기록, 온라인 소통구조 구축, 지역정책연구, 씽크탱크구성, 기금조성 등)을 시작한 것도 은평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의 발전에 주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은평시민사회를 기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지역시민사회와 복지기관의 협력구조’와 ‘공동사업 수행이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단언컨대 녹번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고유 사업인 복지서비스제공과 주민돌봄의 역할 이외에 지역복지 영역의 확대와 자원네트워크, 시민사회 지원 등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로 열린 복지실천으로 마을활동의 물적 토대를 갖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



▲ 지역사회 투표참여 캠페인(2012년)



▲ 은평상상축제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연(2013년)

의 생활교육환경을 지원하는 교육복지네트워크를 꾸리고 교육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그것이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장은사를 주도하며 자칫 요구 중심의 장애인 복지환경 조성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애관련 시설과 기관 주민조직들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이 사회적 약자와 일반주민들 모두에게도 좋다는 인식을 갖도록 인식개선활동, 장벽없는마을만들기, 주민사업등을 지원하고 코디네이션 하고 있음도 은평의 지역사회활동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풀뿌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구축을 은평두레생협, 살림의료생협, 마을무지개(마을기업), 마을엔까페와 반찬가게, 물푸레까페, 에코상상사업단 등의 형태로 시작하고 있었다면 최근 몇 년간 ‘사회적경제분야 중간지원조직’인 ‘씨즈’가 은평에 들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정책사업 공간마련활동들을 시작하고 은평의 기존 마을자원, 시민사회 지원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은평이 대안적 자치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크고 작은 풀뿌리활동을 지원할 방안을 찾거나 사회적기업 등이 지역주민과 교류하도록 은평의 자발적 시민활동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대안적 가치가 담긴 지역사회를 위하여  
 ~~~~~

사람들의 생활 단위인 지역에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마을, 개인과 이웃이 조화로운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 민주주의 운영원리가

살아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장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꿈꾸는 것에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마을활동가를 배출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크고작은 풀뿌리 공동체들의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은평의 변화 은평의 진화는 지금처럼 계속될 것이다.

문  
화

예술로 소통하며,  
마을 문화를  
꿈꾸는 사람들



문화예술, 현실을 바꾸는 가장 아름다운 힘입니다

홍성민

## 예술로 소통하며, 마을 문화를 꿈꾸는 사람들

동네라는 이름 그 아래 관용과 속 깊은 이해라는 속살들이 겹겹이 쌓여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은평마을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자.

은평지역문화의 시작,  
은평 어린이 잔치 한마당과  
은평가족알뜰장

‘문화로 꿈꾸는 아름다운 은평 만들기’를 위한 시작은 2004년 은

평지역에서 활동하던 9개의 시민사회단체(열린사회은평시민회, 은평 두레생협(준), 생태보전시민모임, 작은소리학교, 은평시민넷, 소리나는어린이집, 대조동꿈나무어린이도서관, 갈곡리를 사랑하는 주민모임, 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아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준비한 어린이잔치한마당이였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제1회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가족, 이웃과 함께! 놀이로 신나게! 쓰레기 없이 건강하게!)은 매년 어린이날이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 행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활동이 취약했던 은평지역 내 모임이나 단체들이 행사를 매개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주도적 노력으로 은평가족알뜰장(주민참여, 환경사랑, 물건나눔, 사랑나눔)이 시작되었다. 은평알뜰가족장은 매달 열리는 행사로 보다 일상적으로 지역주민과 단체가 교류하고 만날 수 있는 일상문화사업이었다. ‘은평구 최초 약개인 벼룩시장(55여 가구의)’이 열리는 성과를 만들어 내며 초기 은평지역사회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은평시민사회의 구심,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를 만들다

어린이잔치한마당과 은평가족알뜰장이라는 시민사회 공동사업은 지속적 교류와 연대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005년 9개 단체와

은평열린학교, 꿈이 있는 푸른학교, 씨앗학교가 참여하여 ‘은평마당’이라는 초기 공동 논의의 틀을 갖추게 된다. 은평마당은 공동사업으로 확장된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결합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시민사회연대체를 구성한다.

2006년 15개 단체(열린사회은평시민회, 은평두레생협, 생태보전 시민모임, 은평시민넷, 소리나는어린이집, 대조동꿈나무어린이도서관, 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 은평열린학교, 꿈이있는 푸른학교, 씨앗학교, 녹번종합사회복지관, 함지박사랑회, 갈현1동녹색가게, 아름다운가게, 풍물패 터울림)가 모여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 은지네)’를 만들고 이후 각 분야에서 지역 사회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사람들

## 은지네 문화역량을 강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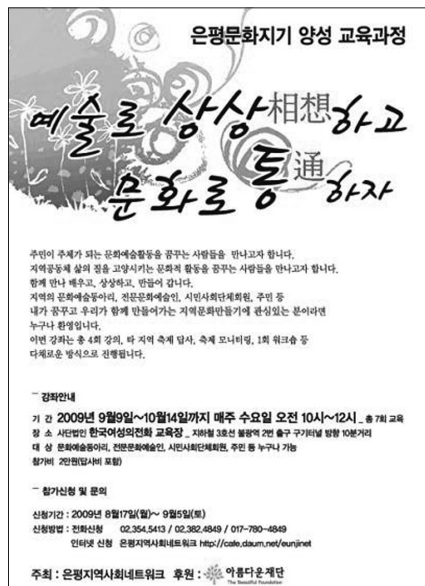
2008년 풍물패 터울림이 주관한 정월대보름굿, 단오한마당과 동지해보내기굿 등 일련의 은평지역세시풍속전통연희한마당행사는 그동안 어린이잔치한마당에 머물러 있던, 지역 문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8년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이 5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지역 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어린이잔치한마당은 어린이축제로 성장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역의 전교조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은지네 단체 중 어린이 청소년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 예술로 상상하고, 문화로 통하자

2009년, 은지네는 은평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획기적인 일을 벌인다. ‘예술로 상상하고, 문화로 통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인프라 형성과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주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지기양성교육은 그동안 경험으로 이해하던 지역문화를 체계적인 교육과 사례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문화실태조사와



주민의 문화욕구조사작업, 파발제였던 구민축제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지역문화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은평지역 문화진단과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는 지역사회여론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은평마을상상축제는 이렇듯 일년 간의 기나긴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되어졌다.



◀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지기양성교육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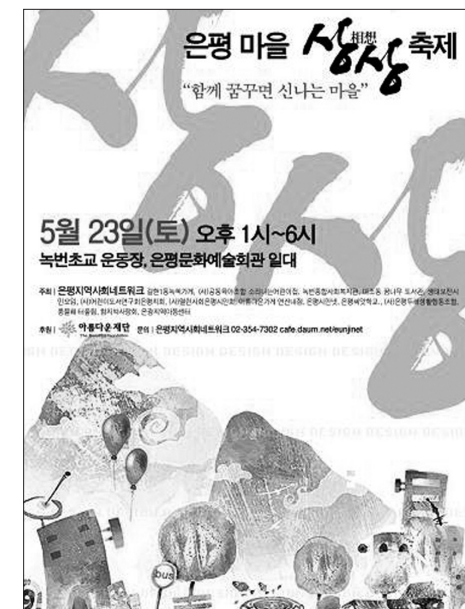


▲ 은평지역문화진단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모습(2009년)

## 은평마을상상축제, 시작되다

그해 봄, 은지네는 ‘내가 꿈꾸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축제의 방향을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이 만나고’,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들고’, ‘함께 만나 배우고 서로 마주보고 꿈을 꾸자’로 정하고, 그 가치가 담긴 ‘함께 꿈꾸면 신나는 마을’, ‘은평마을 상상(相想)축제’로 이름 붙였다.

축제의 모든 과정에는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다. 물적 자원은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단체들이 각기 재능과 자원을 함께 나누고, 협동과 연대의 마음으로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축제가 되는 것이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만들고 즐기는 공동체 축제가 지역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 제1회 은평마을상상축제 포스터 (2009년)



## 은평마을상상축제, 동네축제가 진화하다

2010년 은평마을상상축제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은지네를 넘어 지역 사회와 더 크게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11년부터 분화되어 동네 축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골목마다상상축제’는 마을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주민과 함께 만나는 골목축제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 골목마당도서관축제, 상림마을물푸레상상축제, 와글와글갈현골목상상축제, 와글와글역촌골목상상축제 등 은평구는 5월 한 달 동안 주민들과 아이들이 축제 속에서 논다. 축제의 추진 주체도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로 확장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다. 2009년 5월, 14개 단체로 시작한 은평마을상상축제는 2013년 ‘어린이잔치 한마당 10년, 상상축제 5년’을 거치며 60여개에 달하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만들어 내고 참여하는 마을축제가 되었다. 이 속에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 숨 쉬고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은평 만들기를 향한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고 있다.

▶ 은평마을상상축제 포스터(2013년)



▲ 은평마을상상축제 폐막공연 '한낮에 꾸는 꿈'을 마치고 함께 한 사람들(2011년)

## 은평마을상상축제가 구민축제를 바꾸다 은평누리축제

2010년 여름, 은평구는 민선 5기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구민축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 구민축제라고 진행되고 있던 파발제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었다.

은평구 축제는 ‘은평구민한마음축제’에서 ‘은평파발축제’로 이어져왔다. 파발제는 응암, 불광동 등 각 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참여해 조선시대 복색차림으로 분장을 하고 파발 행렬에서 서민들의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이외에 지역 군부대인 56사단 장병들, 취주악단으로 참여한 안산 경영정보고 학생들, 타 지역 문화회관의 풍물패 등 약 300명의 파발행렬이 구파발에서 통일로를 따라 은평구청 광장까지

5km구간을 걸으며 파발을 재현하는 행사였다. 파발제가 은평지역의 통일 염원과 조선시대 파발제를 한데 묶은 문화축제로 기획되어 전통 문화를 재현하고 우리 것을 찾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예산과 공력에 비해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는 지적과 전통 시대의 모습을 구민들에게 관람시켜주는 ‘보여주기 식 행사’는 관람객들을 식상하게 만들어 축제로서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지역 축제다운 축제가 필요하며, 지역의 다양한 문화 자원과 시민사회 역량을 모으는 시도가 절실하다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다.

“지역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손으로 공동체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문제 의식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지역사회 내부에서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이미 2004년부터 진행되어 온 어린이잔치한마당이 있었고, 2009년부터 은지네의 주민주체 지역문화만들기 사업으로 은평상상축제, 은평문화지기 양성교육, 지역문화 실태조사, 주민문화의식조사, 은평문화발전을 위한 토론회 지역 문화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이어져 왔었다. 시민사회단체와 기관, 주민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예술전문가들이 함께 결합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졌다. 또한 축제가 갖는 소통의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상징적 축제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광장을 조성하고, 광장 축제를 축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설정했다. 4차선 도로를 막아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 축제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행정의 우려와 소극적 자세를 민간

추진위원회의 추진력으로 극복한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상을 세우고, 은평누리축제가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역촌역 4번출구에서 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매년 축제가 열리는 전날 0시가 되면 차가 점유하던 도로가 막히고, 축제의 공간으로,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변하며, 이제는 축제의 광장으로 불린다. 관과 기획사가 주도하던 축제 기획에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협치의 틀을 이루었고, 당연히 은평누리축제는 서울시 자치구 중 몇 안 되는 ‘주민 참여형 축제’로 손꼽히게 되었다.

은평누리축제의 전 과정은 지역의 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기획되어지고, 프로그램과 출연진, 참가단체가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축제예산의 대부분이 주민에게 돌아가며,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축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은평누리축제’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문화행사의 모습을 바꾸며, 지역문화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무대에 서려고 일년을 준비하는 동아리들이 늘어나고, 지역의 주민모임과 동아리, 단체가 일년의 활동을 서로 교류한다. 주민들이 함께 나누는 축제, 환한 웃음으로 서로 만나고 즐기며, 내년을 기약하는 축제이다. 밖에서 보기에는 색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모두 웃는 얼굴이더라고 말하는 전문 평가단의 이야기처럼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축제이다.

▶ 은평누리축제 추진위원회(2012년)





▲ 은평누리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광장축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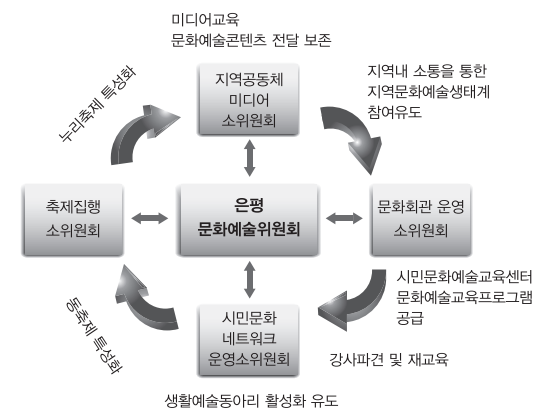
▲ 은평누리축제 개막제



▲ 은평누리축제 폐막제

## 지역문화생태계 형성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문화예술위원회, 은평누리축제추진위원회

지역 주민이 더 이상 문화예술 활동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문화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지금까지 문화행정은 문화예술의 공급형 정책에 치중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강좌운영 등),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역축제, 문화관광 콘텐츠 사업, 지역·미디어(EBN 등) 등의 사업들이 나열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호 연계성을 높여 지역 내 문화활동들이 마치 자연 생태계와 같은 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은평문화예술위원회 구성도



## 은평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  
술  
가



홍성민

예술가

## 은평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 동네 예술가들

마을에서  
노래로 노는 언니  
김미영

길마공원으로 가는 갈현동 골목을 들어서면, “여기 뭐하는 데에요?” 라고 물어볼 만 한 공간이 있다. 어느 날은 점심상이 차려지고, 어느 날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드르륵드르륵 미싱이 돌아가고, 이쁜 켈트소품들이 걸려 있는 곳, 마을에 축제가 열리면 문을 활짝 열고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 곳, 비오는 날이면,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져 차 한 잔을 나누고, 햇볕 좋은 날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문턱을 넘는 곳, 지역의 여러 사람이 모여 작당모의(?)를 하는 곳, 카페 '마을엔'이다.

노래는 그녀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관계의 꿈

이곳에 동네 예술가 김미영이 있다. 그녀가 동네와 만나기 시작한 계기는 아이의 교육 때문이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던 그녀는 아이가 유치원을 갈 때쯤



▲ 카페 '마을엔'에서 마을사람들과 함께

기존 유치원들이 마음에 안들어 차라리 유치원을 만들자는 생각에 7가족과 함께 '엄마사랑유치원'이라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시작하고,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될 때 까지 '엄마사랑공부방'을 운영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24세가 되었으니, 일찍부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셈이다.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고, 전업주부인 엄마들에게는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한다. 작은 공동체에서 좀 더 지역으로 나온 계기는 '꿈나무도서관'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노래를 가르치게 되면서 부터이다. 마을엔 카페 식구들을 만난 곳이기도 하다. 꿈나무도서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모임인 꿈지기들이 나중에 여행가자고 여행계를 들었다. 7~8년이 지나 정작 돈은 모였는데, 이러저러한 현실적 문제로 여행은 무산되고 무얼할까 고

민하던 중 카페를 만들기로 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차 마시면서 함께 바느질도하고, 선생님 초빙해서 논어공부도 하고, 공간이 필요한 모임에 빌려주기도 하는 동네 사람들의 재미난 휴식공간 말이다. 이곳에서 처음 시작한 문화예술소모임이 '핑까핑까기타반'이다. 기타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 '먼저 배운 언니가 아는 만큼 가르치자'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시작했다. 그러나 기타는 꽤 긴 시간의 숙련이 필요한 악기인지라, 초보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던 차에 기타보다는 어렵지 않은 노래반을 만들었다. 은평구의 마을합창단인 '꿈꾸는 합창단'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마을에서 노래 한자락한다는 사람들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합창단은 이제는 은평누리 축제개막식 무대를 감동으로 채우기도 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단골 출연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있다. 마을합창단은 마을활동가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다.

노래는 그녀의 인생에서 줄곧 함께 해왔다. 어려서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고 대학에서는 노래패 활동을 했다. 결혼 후에는 품앗이 육아로 지역이주여성, 아동센터, 이제는 마을합창단까지, 노래는 그녀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관계의 끈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 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큰 분야는 아니지만,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자기 공간에서 최선의 삶을 만들어 왔다. 이것하면 좋을텐데.. 이런 것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꿈이 그녀를 움직였고, 매순간의 관심사에 집중하고 선택하며 일을 벌였다. 그녀는 요즘은 동네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예술학교를 하고 있다. 카페 '마을엔'은 마을엔 식구들에게 치유의 공간이다. 육아에서 벗어나 이제는 40대 후반의 갱년기를 맞이 한 그녀들에게 치유의 공간이다. 예술

을 통해 치유하고자 했던 막연한 꿈은 ‘동네예술치유학교’로 이어졌다. 여기에 참여한 마을의 예술가들 또한 예술가로서의 삶이 녹녹치 않으며, 의외로 상처들이 많고 치유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막연한 아이디어로 시작한 예술치유학교 준비과정에서 그녀는 문화예술이 가지는 본연의 치유적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술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함께하는 사람이 고맙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김미영은 지금 문화예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변사람들의 웃는 모습이 좋다는 그녀는 동네가 작은 모임들로 흥청흥청했으면 좋겠다고 한다.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차문제로 얼굴 붉히지는 못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서 축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동네에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면 동네가 살 맛나겠다 싶어, 작년부터 ‘밤마실’이라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마을엔이 있는 갈현동 골목을 아트마켓거리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영국에 잠

시 있을 때, 햇별을 받으며 거리에서 책을 고르고 파는 모습에서 풍겨지는 여유로움에서 품격있는 삶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녀가 지금까지 마을에서 한 활동은, 문화예술은 잘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함께 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문화예술의 진정성이라고 말이다.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배우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보여주고 있다.

▼ 최근에는 마을라디오의 DJ로 책 읽어주는 여자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 함께 잘 놀고 싶다 오당춤의 이상화

은평 지역에서 연극이라는 장르는 다른 장르에 비해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와서야 은평누리축제의 연계행사로 서울마당극제가 열리고, 극단현장, 극단제가백가등의 단체가 지역에서 ‘토요 꿈다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극놀이 수업을 하는 정도이다. 아마도 연극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선입견과 자치센터 등 지역기관에서 개설하는 장르들이 대부분 댄스나 풍물, 노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지역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단체가 없었던 이유 등이 있을 것이다. 지역에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다양한 장르를 접하고, 생동감있는 지역문화역량을 만들어 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년 경, 은평평생학습관에서 오당춤이라는 단체가 ‘말랑말랑 연극워크숍’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 반가웠다. 지역에서 연극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기대를 가졌다. 마음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남을 만들지 못하던 차에 2013년 은평마을상상축제 은평어린이잔치한마당 공연을 준비하면서 오당춤의 이상화를 만났다. 잘 갖추어진 무대는 아니었지만, 2인극과 신체극이라는 새로운 공연을 주민들에게 선 보인 자리였다. 아주 짧은 만남 후 2달 후 은평지역 축제기획자양성아카데미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은평평생학습관의 시니어라인댄스 지도강사였다.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객원교수이기도 한 그녀는 우연한 인연의 연속으로 은평으로 온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녀의 전공은 기공체조이다. 북경체육대학에서 기공체조를 공부하고, 31세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 기공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 그녀는 우연히 지인 소개로 라인댄스를 접하고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라인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은평지역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기공을 하면서 자신 안에 갇혀 있던 갑갑함을 벗어나 함께 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대화와 몸짓으로 서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

85세까지 함께하는 시니어라인댄스팀의 평균연령은 65세이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나이 들면서 잘 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노인들의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가 제한적인 현실을 벗어나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니어라인댄스 6개월 과정이 끝나면 파티를 빙자한 발표회를 한다. 6개월 과정을 발표하고,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는 자리이다. 이제는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노인관련학습소모임은 함께 발표회 때를 맞추어 공동파티를 열고 있다. 또한 서울평생학습축제나 은평누리축제등 열심히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몸살림을 함께 하는 지인의 권유로 그녀는 2011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마련한 시민연극교실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을 찾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연극교실 수강생들이 오당춤(‘오해는 당신을 춤추게 하지’ 라는 초기 작품명을 이름으로 지었다고 한다)이라는 단체를 만들

어 지속적 활동을 모색하면서 그녀는 지역사람들과 연극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은평평생학습관에서 말랑말랑연극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일반인들이 쉽고, 즐겁게 연극을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신체극이나, 10분 연극을 주로 하는데, 대화와 몸짓으로 서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해가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한다. 공동작업과정을 통해 나의 이야기와 타인의 이야기가 만나 새로운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 지는 창작과정의 즐거움도, 짧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의 시선이 주는 짜릿한 떨림도 아는 그녀는 연극이 가지는 매력에 푹 빠져있다. 시니어라인댄스를 지도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그녀는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나밖에 안보이고 타인을 잘 보지 못했던 모습을 벗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환한 웃음 속에 담긴 열정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녀는, 오늘도 다른 꿈을 꾸며 눈이 반짝인다.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의 은평지역이 참 좋다고 말하는 그녀는 내년엔 은평누리축제에 10분연극제를 만들고 보고 싶다고 한다. 청소년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연극캠프를 만들어 역할극이나 가족극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계획도 있다는 그녀는 문화예술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지역의 연극모임들과 함께 만드는 10분 연극제가 내년에는 은평누리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탄생할 것 같은 기분 좋은 기대감이 생긴다. 10분 연극제를 기획하며, 짜릿한 설렘으로 뛰어다니는 그녀가 보인다.



▲ 시민연극제에 참가한 오당춤



연신내에서 놀던 언니,

문화공무원 되다

**박지혜**

최근에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 방식으로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문화 분야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 지고 있고, 그 현장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공무원이 있다. 주민들에게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행정의 모습은 그 동안 행정에 가졌던 불편한 모습을 벗고, 주민과 행정이 서로 소통하며 지역을 바꾸는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은 기관조직망을 갖고 있고, 정보력과 사업집행권한을 갖고 있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자세로 주민에게 다가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는 박지혜가 있다. 그녀는 대학시절 연극을 접하면서 문화예술활동을 시작했다. 우연히 대학로의 연극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연극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임이스트로 활동했지만, 배우의 길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예술 경영을 공부하게 된다. 아마 젊은 시절 뜨거웠던 경험이 그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도 모른다. 요즘 핫한 드라마 ‘응답하라1994’ 세대인 그녀도 IMF를 거치게 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된다. 사회제도권 진입에 실패한 그녀는 좌절과 방황의 시기를 연신내 죽순이 놀이를 하며 보냈다. 할 일 없이 동네구석구석을 돌아다니던 그녀의 눈에 지역의 특성이 보이고, 사람이 보였다. 소속감이 없었던 그녀

는 이 지역이 자신을 보살펴줬으면 했다고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문화사업을 함께 해 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마을n도서관(현 마을엔)을 무작정 찾아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그녀는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고, 관계를 형성하며 천천히 함께 쌓아가야 한다는 순리를 깨달게 되면서, 그녀는 마을n도서관에 등지를 들고 활동을 시작했다. 요란하지 않지만, 전문가가 아닌 주부들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카페를 운영하고, 크고 작은 문화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한다. 사업을 해보겠다고 다가갔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도서관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기획서 작성 같은 일들을 도우며 그녀도 소속을 갖춘 동네사람이 되었다. 그녀에게 마을n도서관은 자신을 받아 준 친정 같은 곳이 되었다.

문화예술, 밥 먹듯이

당연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

2010년 은평구가 기존의 관 주도형 구민축제를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축제로 새롭게 바꾸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녀는 타지역축제자원봉사의 경험과 전공분야를 살려 축제추진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다. 그녀의 아들은 은평누리축제와 함께 태어난 누리둥이이다. 아들과 축제는 같이 나이를 먹으며 크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돌봐야하는 아이는 둘이라고 말한다. 그 후 구청에서 은평누리축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축제전문인력을 채용하게 되면서, 그녀는 공무원이 되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사람들이 문화예술활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밥 먹듯이 당연하게 즐





▲ 연극활동을 하던 시절의 박지혜

기고 누리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그 희망을 현실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제 누리축제 4년, 그녀는 매년 이 일을 계

속해야하나 고민한다고 한다. 축제를 만드는 기간은 마치 블랙홀 같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일상의 모든 것을 잡아 삼킬 것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리적 시간의 제약과 콘텐츠에 대한 고민 등 현실적 압박감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매년 다시 딛고 일어서고, 내년의 축제를 위해 다시 설레임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은평누리축제는 문화예술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지난시기 자신의 공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고,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를 알게 했으며, 일상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에 함께 춤출 수 있게 하기에, 앞으로 한 10년쯤은 할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네에서 정말 재미있게 노는 게 목표라고 한다. 내년에 6살이 되는 아들이 원할 때 언제나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한다. 아들과 자신이 잘 놀기 위해 그 바탕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일하는 진짜 이유라고 말한다. 축제시스템이 안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내년에는 동네사람들과 연극동아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동아리활동이 생기는 것이 축제의 영향이것 같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 그녀가 있어서 은평누리축제는 내년이 더 기대된다. 자신이 방황하고 힘들 때 연신내 골목이, 동네언니들이, 그리고 누리축제가 자신을 받아주었던 것처럼,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이 깃들여 사는 은평에서, 문화가 밥 먹는 것처럼 일상화 될

때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안다. 겸손하게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갈 줄 아는 열린행정가가 있어 든든하다.

세상을 보던 프리즘,  
이제는 내 삶과 마을을 보다  
다큐멘터리 감독 **박정숙**

1998년<평행선>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여성, 노동, 역사를 주제로 다섯 편의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쉼 없이 달려온 대조동 주민이며, 두 아이를 키우는 영화감독 박정숙. 그녀의 걸 모습은 화려하고 멋스럽다. 때론 느긋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녀의 속살은 치열함이고, 외로움이다. 1993년, 23세.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으나 낙방 후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6개월 코스의 영상 교육을 받기 위해 전주에서 상경하면서 그녀는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압구정동에 있는 외국영화배급회사에 취직되어 일주일 후 출근 날을 받아 놓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노동자뉴스제작단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녀의 다큐멘터리 감독의 길이 시작되었다. 대학시절 운동권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언젠가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작품을 하겠다는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녀의 세계관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80년대 단체 활동은

▼ 박정숙 감독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단체의 열악함,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에 지쳐갔지만, 어려워도 5년은 버틴다는 독립심과 추진력이 그녀를 잡아두고 있었다. 94년 노동절 전야제 첫 출근으로 시작된 그녀의 활동은 97년까지 한국노동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 94년 지하철, 철도 파업현장에서 경찰 투입 압박까지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울산현대중공업파업 직장폐쇄현장 등 굵직굵직한 파업현장 한복판에서 있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운명처럼 그녀에게 박혀 고통 속에 탄생했다. 모성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철도여성노동자이야기를 다룬 '소금'(2003년),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카메라를 들고 소록도에 들어가 촬영을 시작한지 3년 만에 완성한 동백아가씨(2006년) 등이 그 주인공이다. 독립영화 한 편이 제작되는 데는 대략 2, 3년이 걸린다.

이것도 오롯이 영화 만드는 기간에만 바쳐진 시간이 아니다. 촬영 틈틈이 제작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영화가 끝나도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했다. 소금은 유산, 동백아가씨는 대상포진을, 첫사랑은 신장을 아프게 했고, 엄마와 하하는 갑상선암을, 그렇게 그녀의 아픔과 함께 그녀의 삶에 흉터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녀가 은평으로 오게 된 계기는, 동백아가씨 제작비가

고스란히 빛이 되어 충무로에 있던 작업실을 역촌동으로 옮기게 되면서이다. 초등학생이 되는 큰아이의 육아도 문제였다. 현실에 패배하고 동네로 들어온다는 우울함으로 이사 전날 혼자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그녀에게 동네는 잠자는 곳이었다. 이웃이 없었고, 활동과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지독히도 외로운 곳이었다. 지난 10년, 30대 그녀에게 서울은 뿌리 내리기 어려운 무인도 같았다고

▼ 동백 아가씨 촬영당시 모습.  
그녀의 렌즈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한다. 나중에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본 서울에 대한 영화를 찍고 싶다고 한다. 천상 그녀는 영화감독이다.

2008년 어느 날, 불광시장에서 지신밟기를 하고 있던 풍물패 '터울림'의 선배와 우연히 조우하면서 박정숙 감독은 은평지역 문화행사에 첫 발을 담근다. 아들 석원이에게 풍물도 배우게 하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작공 아이들에게 영화수업도 해주고, 은평시민회에서 영화강의도 하는 등 적극적이고 따뜻한 지역활동가들이 내민 손을 잡으며 서서히 마을 속으로 들어왔다. 2010년에 시작된 은평누리축제에서 '은평영화제'를 맡아 기획하면서, 그녀는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주민으로 전문 예술인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첫사랑'과 '엄마와 하하' 두 작품을 제작하는 중이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에 독립영화제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그녀를 또 한 걸음 나가게 했다. 그녀가 기획하여 올린 은평영화제는 올해로 4회에 접어들었다 그 사이에 2010년 그녀는 나이 마흔에 89년 마산 수출자유지역에서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인 <첫사랑- 1989 수미다의 기억>과, 2012년 <엄마와 하하> 등 두 편을 더 찍었다. 지난 15년 간 박감독은 한 편의 영화를 기획하고, 네 편의 영화를 직접 연출했다. 지독하게 달려왔다는 말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녀가 은평에 온지 이제 5~6년이 되어간다. 요즘에 들어서야 동네 이야기를 찍는 것 같다고 한다. 최근에는 서울시마을공동체, 은평희망마을담당관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영상 작업도 하고, 청소년 문화센터 '신나는 애프터'에서 서울시마을미디어 사업으로 청소년 미디어 교육 '은평구 아이들, 재미있는 영상놀이' 진행도 하면서 이제는 진짜 동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동네 관련한 영상물 작업을 하면서 소소한 일상들이 빚어내는 반짝거림도 발견하고, 이미 아는 사

람들과 만들어 가는 작업이 주는 심리적 편안함도 느낀다고 한다. 자신의 역량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 서울시 마을미디어 사업- 청소년 미디어 교육 '은평구 아이들, 재미있는 영상놀이' 진행

만, 효율성 중심의 성과주의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한다. 하는 사람들이 즐거운 과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꺼내 놓는다. 그녀의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고, 마을 어른들 속에서 커가고, 소소한 일상들이 주는 중요함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동네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제 그녀에게 동네는 무인도가 아니다. 동네아줌마로, 엄마로, 활동가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이제 마흔 중반이 되는 그녀는 50대가 되면 더 행복 할 것 같다고 한다. “제 영화는 저에게 영화 그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제가 그 영화를 찍던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되요. 그리고 제 삶과도 직결되어 있어 나이를 먹을수록 제 또래에 맞고, 그 시기에 고민하는 문제들을 영화화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그녀는 따뜻한 동네이야기, 동네아줌마들의 이야기 같은 주변의 활동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한다. 앞으로 오래 건 강한 활동을 하기 위해 내년엔 고향인 여수에서 따뜻한 남도의 햇볕을 받으며 편안한 휴식을 계획하고 있는 그녀는 즐겁고 아기자기한 로맨틱코메디 극영화를 준비할거라며 환하게 웃는다.

## 세상의 속도와 다른 거꾸로 가는 시계를 품은 공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과 주인장 윤성근

은평구 응암동 서부경찰서 근처에는 간판도 없고 백 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지 않은 책방이 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다. “책방에서 책만 팔면 무슨 재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주인장이 책방에서 본격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우선이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이 돈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럴 바에는 재미라도 있어야 하지 않나! 때로는 유치하고 별것 아닌 일들을 하고 참석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재미있으면 됐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나. 게다가 우리 대부분은 근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재미를 보려고 차 타고 한두 시간씩 허비하지도 않았고, 표를 사기 위해 예매하거나 줄 선 것도 아니니까 더욱 부담이 없고 즐거워했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노래 공연은 기본이요, 은평씨앗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을 여기서 했으며,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발표회와 자기가 쓴 시를 직접 발표하는 청소년 시낭송회, 세미나와 강연, 마술쇼, 판소리 공연도 했고 심지어 얼마 전엔 이 작은



▲ 윤성근



곳에서 연극까지 올렸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책방에서 하는 일들에 힘내라며 여러 가지로 지원을 보내줬다. 그는 책방은 책 읽고 책 파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을문화를 녹여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책방에서 책만 팔면 그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책처럼 생긴 물건을 파는 거다. 책방에서 책을 팔되 물건이 아닌 책 속에 담긴 가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하는 그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란 소중한 동네 사람들 문화이고 별로 웃을 것 없는 지금 세상살이에서 뭔가 재미 있는 일을 자꾸만 해보는 것”이라고 말한다.(피움)

그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소박한 문화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한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마을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나온 일 자리를 찾아 일하고 마을 공동체에 녹아든 문화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은 나, 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둥글게 앉을 수 있는 원탁형 사회를 그리기 위해, 마을 공동체와 마을 문화 살리기, 함께 살기, 어울려 살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소유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느리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작은 문화공간이 지역에 많았으면 좋겠다.

## 공동체문화로 대동세상을 꿈꾸는 풍물패 터울림

은평에는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문화단체 풍물패 ‘터울림’이 있다. 터울림은 사회적 소수와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삶이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며, 문화를 통해 함께 나누고 가꾸는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문화공동체이다. 100여명의 회원들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 터울림은 대중주체 문화운동의 본산지이기도 하다. 공동체문화의 확산을 위해 강좌를 하고, 공연을 하고,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해오고 있다. 또한 터울림은 은평마을상상축제, 은평누리축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이기도 하다.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전문단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공동체문화를 만들고, 나누는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서, 터울림은 소중한 단체이다.



▲ 터울림은 매년 10월이면 가을굿을 한다 - 대동풍물굿판 '어영차청청 해방세상들래'

## 특별한 이웃이 들려주는 행복한 이야기

은평에는 많은 전문문화예술가들이 산다. 북한산을 비롯한 수많은 자연유산, 문화 유적지만큼이나 이들은 소중한 우리 지역의 자산임에 분명하다. 좀 특별한 내 이웃이 들려주는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를 풍요롭고, 따뜻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은평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재즈가수 **말로**가 있다

우리가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는 8살 짜리 아들을 지역에서 함께 키우는 이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는 북한산초등학교에서 합창단을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노래로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 말로

물푸레 카페에서 마을 이웃에게 재즈를 소개하고, 이웃들과 오카리나를 연주하며,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예술가이다. 그녀는 놀이터 공원무대에서도, 상상축제무대에서도, 화려한 문화예술회관 무대에서도 어떤 무대에서도, 재즈가 가지는 매력을 이웃들에게 편안하게 전해 줄 줄 아는 프로이다.

글쓰는 멋쟁이 언니  
**백미숙**

1994년 대한매일신문(현 서울신문)신춘문예동화부문 당선된 이후 ‘오른쪽이와 동네한바퀴’, ‘감자는 약속을 지켰을까?’ ‘줄무늬면 어때!’ ‘주차금지’등 다수의 작품을 쓴 작가지만, 우리에게는 지역의 정론지 은평시민신문을 가꾸어가고, 동네 작은 도서관 초록길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민들과 글쓰기를 하는 모자가 잘 어울리는 멋쟁이언니로 통

한다. 최근에는 신사2동 산새마을 주민들과 함께 산새마을동화를 만들기도 했다. 자신의 역량만큼 천천히 마을에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 언니다. 그녀가 있는 자리는 늘 유쾌한 술자리가 벌어진다.



▲ 동네에서 열린 유쾌한 출판기념회

사람이 사는 마을을  
노래하는 가수 **이지상**

이지상은 고단한 사람들의 일상에 희망의 언어를 들려주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청년문예운동의 시기를 거쳐 노래마을의 음악감독, 민족음악인 협회 연주분과장을 지냈고, 98년 1집 ‘사람이 사는마을’, 2000년 2집 ‘내 상한 마음의 무지개’, 2002년 3집 ‘위로하다.위로받다’, 2006년 4집 ‘기억과 상상’ 등의 앨범과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라는 책을 만들었다. 현재 시노래 운동 ‘나팔꽃’의 동인으로 깊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삶의 좌표를 만들어가는 음악을 지향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에서 ‘노래로 보는 한국사회’를 강의하고 있다. 또한 지진피해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공동대표이며, 인권연대운영위원이기도 하다. 내가 아는 이지상은 화려한 경력을 가진 민중가수였다. 내가 다시 이지상을 만난 건 은평지역의 정론지인 은평시민신문 창간 1주년 콘서트에 터울림이 함께하면서였다. 그후 은평누리축제 프로그램 중 시와 음악이 있는 밤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시를 노래하는 사람을 찾으면서 다시 만났다. 읊조리듯 노래하는 낮은 목소리로 가슴속 깊이 여운을 남기게도 하고, 동백아가씨, 비내리는 호남선을 멋스

럽게 불러 사람을 춤추게 하기도 하는 그는 따뜻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다. 안도현의 시에 곡을 붙인, 철길 이라는 곡을 들으면 늘 사람을 고민하는 이지상의 마음이 따뜻하게 물들어 온다.

혼자가는 길보다는 둘이서 함께 가리  
 앞서지도 뒤서지도 말고 이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만큼 닿을 수 없는 거리가 거리가 있는 우리  
 나란히 떠나가리 (중략)  
 사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는  
 사람을 노래하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노래한다.



▲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 이지상

문화예술로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어  
 은평은 행복하다

작공밴드, 숲동이 풍물패, 그리고 은평시민넷 회원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아소다소(아이들의 소중한 소모임) 밴드 등 은평에는 문화예술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가 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들어 내는 지역과 문화예술은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곳이라 믿는다.

변방에서 아름다운 아이들  
 ~~~~~  
**작공밴드**  
 ~~~~~

2009년, 대조동 작은 공원에서 만나 이젠 마을의 품에서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 밴드다. 마을축제, 어린이잔치한마당, 은평누리 축제무대에서 꽤 많은 팬을 만들고 있는 작공밴드는, 학교밖청소년들이 마을의 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다.



▲ 작공밴드 공연모습

자연을 품은 아이들

## 숲동이 풍물패

‘숲동이 놀이터’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회원이면서 숲 해설 자원 활동을 하던 몇 명의 엄마들이 생태육아를 함께하고자 만든 모임이다. 숲동이 놀이터는 엄마도 아이도 행복하게 함께 크는 모임이다. 숲에서 자연을 닮아가고 자연과 관계 맺고, 놀이와 문화를 통해 서로 관계를 맺으며 자라난다. 숲동이 놀이터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간 아이들이 풍물을 계속하면서 동네 크고 작은 행사에 공연을 한다. 각기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는 풍물악기가 조화를 이루듯 아이들은 어우러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방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실뜨기, 윷놀이 등 전래놀이를 하면서 함께 자라고 있다.



▲ 숲동이 풍물패 아이들

문화라는

나무 한그루를

심자

지역에 작지만, 소중한 생활말착형 문화시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문화예술 속에서 꿈을 키우고, 주민은 문화를 접하며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공간, 현실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이 그런 곳에 있다. 아이도 노인도 직장인도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예술로 풀어내고, 조금은 어설피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이 빚어내는 감동이 묻어나는 곳, 서로 나누며 커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지는 그런 공간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면, 살맛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문화는 한여름 피약별을 가려주고 비오는 날 비를 막아주는 큰 나무그늘과 같다고 한다. 그런 그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기꺼이 나무 한그루를 심을 것이다. 시민 스스로가 나무그늘을 만들고 이를 행정적으로 잘 보살펴준 사례가 있다. 1985년 일본 도쿄에 ‘스미다 <제9번 합창>을 부르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제대로 된 연주홀이 없는 문화소외지역인 스미다강 동쪽지역에서 국기관 건립을 계기로 스미다 주민들이 연주회를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요정가에서 일하는 게이샤까지 참여하여 5,000명의 주민이 무대에 섰다.

아마추어의 거친 숨소리에 담긴 원천적 열정에 스미다 구 주민의 공연은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한다. 시민의 역동성과 전문 문화 활동가의 헌신과, 열린 행정이 만들어 낸 감동이었다.

전문 문화 활동가들이 출연자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가사 외우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스미다 구청은 시민예술단체에게 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를 만들지 않게 했고, 예산지원심사장으로 달려오게 하지 않는 겸손하게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어가는 열린 행정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활동에 일정 간여하지 않는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쳤다.

시민의 역동적 창조성과 행정의 겸손함으로 열린행정. 문화활동가의 열정이 만난다면, 예술창조활동은 예술가라는 특수계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은평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전문예술가, 행정, 주민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마을 미디어

##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 동네 미디어



미디어는 소통이다  
너, 나, 우리를 엮어주고,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곁의 이웃의 삶, 공동체를 돌아보는 공기(公器)다

부미경



##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리 동네 미디어

“초·중·고를 은평에서 나왔고 30년 넘게 살았지만, 지역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 은평시민신문이 그런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일제고사 반대로 해직과 복직을 거친 정상용 선생이 2008년 후원회원 만남의 날에 한 말이다.

“은평에 처음 왔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느낌이었죠. 동네 소식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런 신문은 돈 내고 봐야 한다고 동네사람들과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후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집에서 받아보고 싶어요.”

아이 셋을 키우며, 마을합창단, 살림의료생협 건강실천단으로 마을살이 재미에 푹 빠진 ‘노래’의 말이다.

“흠, 마을 활동으로 너무 바빠서 신문 챙겨 읽지 못한 지 꽤 되었어요. 호호, 마을 활동 막 시작할 때쯤이었을까요. 꼼꼼히 읽었지요. 기사를 보며 글쓴이가 누군지 호기심도 일더군요. 살림의료생협 무영이 쓴 ‘우리 동네 주치의’는 믿을만한 의사가 전해주는 건강에 관한 정보라 꼭 챙겨 읽었죠. 김지혜 씨가 쓴 아이 키우며 쓰는 글, 건강실태조사 주민 인터뷰가 실린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 같네요.”

마을엔 카페에서 일하면서 최근에는 인터넷 라디오방송 ‘동네스튜디오’ DJ로도 활약 중인 김미영 씨의 말이다.

“은평시민신문이 있어서 참 좋아요. 신문이 배달돼 오면 사무실이 조용해요. 신문 펼쳐들고 읽느라고요.”

어라 살림의료생협 전 사무국장은 늘 환한 얼굴로 신문을 받겨 주었다.

“제대로 다 읽지 못해요. 그래도 이런 신문 있구나 하는 든든함, 자부심, 신문에 대한 믿음이 있죠. 똑같은 행사라도 은평시민신문에 소개된 행사를 못 가보게 되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은평시민신문은 마을 사람, 마을살이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꿈틀대고 있다. 2014년이면 10주년이 되는 은평시민신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우리 동네 대안언론,  
우리 손으로 우리 신문을

###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역말사거리와 역촌사거리 사이 역촌동 3-12번지, 은평시민신문이 첫 동지를 틈 곳이다. 팔당 두물머리 농부로 알려진 임인환 씨가 당시 아내가 운영하던 미술 피아노 학원의 널찍한 한쪽 공간을 보증금 없이, 싼 임대료로 내어주었다. 그때가 2004년 5월이다. 사무실에 이어 컴퓨터 3대와 책상, 책상 등 각종 사무집기도 모두 후원으로 마련했다. 이곳에서 대안언론 창간을 위한 은평시민신문의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선뜻 공간과 물품을 내어놓거나 돈이 아니면,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내어놓은 사람들의 인연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일도 다 다르고, 성장배경이나 경험도 제각각이던 20~50대가 처음으로 동네에서 만났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격랑이 일던 때다.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소 세상살이에 무심했던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안고, 청년,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이 개혁 국민정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연의 싹을 틔웠다. 8개월 된 아이를 안고 나온 아줌마도 있었고, 대여섯 살 아이, 초등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함께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먹고 사느라, 아이 키우느라 일상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개인의 삶을 벗어나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경험은 소중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생각의 차이도 나타나고, 동지가 되었던 정당이 없어졌지만 동네에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 경험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어가 보자는 생각에 ‘은평사랑방’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2003년 7월 풀뿌리시민단체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2004년 2월 지역 대안언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중앙 권력은 바뀌었지만 우리 삶터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 “아이들이 나고 자란 곳, 아이들이 커갈 곳인데 어찌 해 볼 수 없다고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지역의 변화를 일구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어.”



▲ 은평시민신문 첫 사무실 역촌동 3-12번지, 사무실 문을 열고 가진 조출한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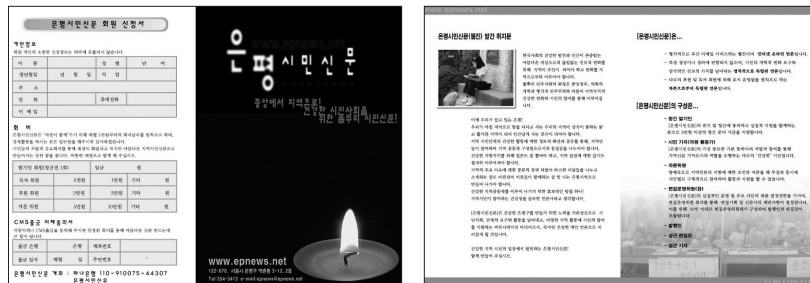
▲ 은평시민신문 개소식에 온 아이들

### 좋은 언론 하나 있었으면

은평시민신문 초대 편집운영위원이었던 홍승권, 윤건 씨 등은 가장 먼저 ‘대안언론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했다. 홍승권 씨는 “동네에 좋은 언론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메일로 받아보던 광명시민신문(당시 수도권 인터넷신문 연대의 중심)을 방문해 이야기

를 들어보니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돌아보았다. 절실하긴 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는 이름뿐이었다. 지방정부도, 지방의회도, 정치문화도 구태의연하기만 했다. 동네일을 알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은 있는 것인지 찾기 어려울 때다. 아이들 키우다 보니 어린이집도 보내야 하고, 동네 공원도 이용해야 하고, 도서관도 찾아가야 하는데 뭐 하나 성에 차지 않았다.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위해서라도 공론장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주민 실생활과 거리가 느껴지는 지방자치 행정에도 목소리를 내어 바꾸고 싶었다.

지방 정부나 지역 의회가 지역 토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부터 들도록 만들려면 무엇보다 주민들 각자의 생각을 널리 나눌 수 있는 통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접점, 주민들 스스로 이야기를 나눌 공간이 필요했다. 인터넷 문화가 움터 활발해지고 있을 때다. 그 공간은 바로 인터넷 신문이라고 생각했다.



▲ 은평시민신문 첫 홍보지

2004년 한여름부터 가을까지 매주 2회씩 만났다. 각자 생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 보통 열정이 아니었다. 십시일반 소액 다수 후원을 받기로 하고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돈도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발기인도 모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기술적 고민도 진행했다. 광명시민신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가며, 고심하던 중 다행히 지인을 통해 그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 은평시민신문 2주년 기념식에서 신문 홈페이지 제작 재능기부를 해 준 송덕용 씨에게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하는 모습(2006년)

있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개설에 1~2천만 원이 들 때다. 직장 일을 하며 짬짬이 시간을 내어 홈페이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 그 시간 동안 콘텐츠는 어떻게 하지? 지면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 인터넷 판 기획회의만 6개월 가까이 했다. 드디어 2004년 10월 18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그렇게 무식하지만 용감한 첫발을 내딛었다. 3만 원 이상의 후원회비를 내는 발기인 40명으로 출발한, 작지만 소중한 걸음이었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신문 창간을 반겼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변화된 시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신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필요한 때이며,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은평 지역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공동의 창간 작업”이라고 축하를 건넸다.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씨는 “두 해 전 은평구에 있는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현안 문제를 더불어 고민하고 의견을 공론화하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지역 풀뿌리 언론이 하나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바람이 현실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 매일 업데이트하는 부담이란

지금도 그렇지만 동네일이란 게 그림을 미리 다 그려놓고 시작하는 법은 없다. 10년 전의 창간 작업은 ‘맨 땅에 헤딩하기’나 마찬가지였다. 언론사를 운영해 보거나 언론 경험을 가진 사람들 없이 출발한 은평시민신문은 하나에서 열까지 배워가며 한 발짝씩 나아갔다. 6개월 기획회의가 무색하게 창간하자마자 인터넷 업데이트에 대한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다. 직장생활을 하며 함께 깃발을 들고 일을 벌였던 사람들의 노력은 아름다웠지만 상근을 떠맡은 발행인과 편집장 두 사람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새싹과 같은 신문에 물을 주고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 은평사랑방 카페를 넘어서 지역의 신문고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을 동동 굴렀다.

첫 쾌거는 역촌오거리 교통정체 실태를 보도하며, 담당 기관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장기간 방치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이끌어낸 일이다. 고승의 초대 편집장이 발로 뚫은 성과였다. 2004년 은평뉴타운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다. 2006년까지 이 사안은 지역의 핫이슈였다. 은평시민신문은 (준)아름다운 은평연대와 함께 ‘은평뉴타운 개발 예정지 모니터링’을 위해 진관동 일대를 누볐다.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한 교통대책을 따지고, 개발로 인한 생태, 문화 자원 훼손, 개발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다. 사회단체보조금, 구의원 해외여행 실태 보도 등 풀뿌리 감시활동도 벌이고 정보공개청구 활동도 했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작은소리학교, 은평두레생협 등 시민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이후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의 모태가 된 ‘은평마당’ 좌담회를 기획 보도해 흩어져 있는 지역 자원을 연결하고 엮어내는데도 관심을 보였다.

지역에 알려지지 않았던 은평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런 곳이 있겠네’로 동네의 재미있는 장소를 알리는 맛난 꼭지도 마련했다. 시민기자가 쓰는 역사탐방, 육아일기 등도 재미있었다. 시민기자들이 올려주는 글은 상근자들에게 늘 단비와 같았다.



▲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의 모태가 된 ‘은평마당’ 좌담회 모습



▲ 은평시민신문 2주년 기념식에서 황부호 시민기자가 시민기자상을 받는 모습(2006년)



##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 동네신문 기자

은평시민신문은 출발에서 같은 뿌리를 갖고 있던 시민단체와 사무실도 같이 쓰고, 핵심 구성원에서도 겹치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하는 자기검열과 혼란을 안고 갔다. 취재를 위해서라지만 마치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매 사안에 밀착해 있을 수밖에 없는 동네신문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은 없었다. 지역 풀뿌리신문 사례가 있는 게 아니니 말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거리감을 두고 보도에만 충실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신문이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는 게 마치 이런 포지션을 갖지 못해서 아닌가 하는 자기검열은 늘 숙제였다. 현장기자로서 좋은 기사도 쓰고 싶고, 시민기자도 조직하고, 후원회원을 늘리기 위해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해야 하고, 동네신문 기자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했다. 신문사 운영이나 기자 경험 등으로 단련되고 준비하지 못한 구성원들이었지만 좋은 지역신문 하나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허허벌판에서 숨가쁘게 보낸 시절이었다.

편집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 때마다 후원회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그래프를 그려가며 실적을 확인하자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각자의 몫을 다하려고 고심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주변 교우들을, 정당에 몸담은 사람은 당원들을, 옛 지인 등의 인맥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총동원되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이 시기 5천 원부터 5만 원까

지 후원하는 회원이 초기의 2배인 100명으로 늘어났다. 초기라 광고 효과도 미심쩍은 상태였지만 사계절 출판사 등이 6개월 광고를 해 주기도 했다. 운영위원들의 노고 덕분이었다.

## 작은 기사가 일구어 낸 변화

2005년만 해도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행정기관의 냉대가 보통이 아니었다. 보도 자료를 받으려고 공문서를 만들어 찾아갔더니 공무원들이 여지없이 퇴짜를 놓았다.

“은평시민신문이라……. 뭐하는 데야? 듣도 보도 못하던 것들까지 신문이랍시고 난리를 부리네.”

이런 어이없는 공무원의 말까지 들어야 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취재를 위해서라면 굽힐 줄도 알아야 했다. 날마다 구청의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매달렸다. 그때 취재에 호의적이던 어느 공무원이 두고두고 생각한다.

‘이런 합리적인 공무원도 있구나.’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은 지금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시하던 당시 풍토에서는 무척 신선해 보였다.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이말산 정비를 위한 공사업체 공고’를 발견했다. 이말산에 묻혀 있는 석물 수거를 건설업체에 맡겨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재를 마구 파헤쳐 치워 버리겠다는 기가 막혔다. 사실 확인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찾아갔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지만 공무원들은 정보나 자료를 내놓는 걸 몹시 꺼린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은 취재에 성실하게 응해 주었다. 석물을 파헤쳐 옮기기 전에 이말산에 대한 문화적 조사가

▼ 은평시민신문 3주년 후원회원의 밤  
‘인연 그대가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에서  
후원회원들은 후원나무에 은평시민신문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적었다.(2007년)



▼ 은평시민신문 후원회원의 날. 신문 운영위원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2008년)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말산을 역사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을 담아내어 보도했다. 이 보도로 건설업체가 포크레인으로 석물들을 파헤치는 건 막았다. 주요 취재원이자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행정기관과 끊임없이 밀고 당기면서 얻어 낸 작은 성과였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팔시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도 김효중 기자는 기획 기사를 준비하느라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기쁨과 각오를 이렇게 말했다.

“고2, 3 녀석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길, 즐거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기자라는 명함만으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환상적인 직업 아닌가?”라고 말하며 “구청에게 무시당하면 좀 어때. 이제 보도자료 얻으려고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거야. 판박이 기사나 내는 다른 신문들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은평의 보통사람들에게 가치 없어지는 것이지.”라고 그 느낌을 글로 남겼다. 이처럼 은평시민신문은 다양한 주민 기자와 취재비조차 되지 않는 20~60만원을 받으며 활동했던 상근 기자들의 노력들과 열정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 생태보전시민모임 옥상 공간에서 신문 운영위원 워크숍을 마치고 찍은 사진(2007년)

## 여전히 힘든 재정

2005년 4월, 후원을 받아 지냈던 사무실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같이 있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보증금을 각출(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하여 역촌동 시대를 접고 녹번동 시대를 열었다. 신문법 개정에 인터넷언론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수도권 인터넷 신문과 연대해 의견을 내고, 드디어 10월에는 인터넷 언론 등록을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도 확보했다.

창간 1주년은 큰 기념음악회로 준비했다. 각자 다른 일터를 갖고 있던 신문 편집운영위원회는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 매주 만나 음악회 기획회의를 하고, 준비에 몰두했다. 신문이 벌이는 첫 외부 행사였다. 동네사람인 가수 이지상 씨가 무대와 공연 컨셉, 출연자 섭외를 맡았다. 티켓 가격과 판매를 두고 설왕설래, 공연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한 장당 2만 원 이상도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가난한 동네에서 처음으로 여는 문화행사에 4인 가족 기준 8만 원은 너무 부담이 클 거라는 생각으로 장 당 1만 원으로 정했다. 신문 편집운영위와 후원회원들은 티켓 판매, 행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했다. 지역에서 이런 규모의 문화행사로는 거의 처음이었다. 지금이야 누리축제의 멋진 무대가 있고, 작은 콘서트들과 문화의 향연이 줄을 이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주민 700명이 모여 노래에 흠뻑 빠져 같이 어깨 결고 마음을 나누는 경험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황호연 시민기자는 “은평구에 33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공연을 오늘 난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 오늘 맺어진 인연의 끈을 소중히 간직하며 내년엔 보다 많은 이웃과 풍성한 이야깃거리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 본다.”고 소감을 말했다.

‘색깔 있는 은평콘서트 첫 번째, 나팔꽃과 함께 걷는 가을기행’이라고 이름을 붙여, 두 번째, 세 번째도 염두에 두었지만 이만한 규모의 콘서트를 은평시민신문 주관으로 계속하지는 못했다. 후원회원 20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무대 보조도 하고, 행사 진행의 소소한 부분까지 다 챙겨 주었다. 그러나 콘서트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적어도 후원회원이라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빠듯한 살림에 100만원 적자였



▲ 1주년 기념음악회 풍경(2005년)



▲ 은평시민신문 1주년 기념 음악회는 700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 1주년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판 종이신문도 나왔다.



▲ ‘색깔 있는 은평콘서트 첫 번째, 나팔꽃과 함께 걷는 가을기행’ 공연 모습



▲ 행사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다. 후원회원도 15명 안팎으로밖에 늘지 않았다.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았다. 불같은 시간을 보냈던 기자들은 3개월, 6개월을 지속하지 못했다. 낮은 급여와 쌓이는 피로, 전망의 부재 등이 안고 온 문제였다.

지역이 궁금하면 은평시민신문을!

200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다. 더 바빠졌다. 구청장 후보자들을 인터뷰하고, 구의원 후보군들의 서면답변을 신문에 내면서 후보 검증 작업에도 들어갔다. 개표 상황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실시간 보도하겠다는 욕심으로 날밤을 꼬박 샀다. 인터넷 신문의 효용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싶었던 때문이다. 기자 여러 명이 있는 안정적인 구조에서나 가능할 일에 은평시민신문은 늘 도전했다. 오로지 열정 하나만으로.

“지역의 문제를 아는 데 은평시민신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든 게 다 나와 있더군요.” 지방선거 전략을 짜느라 여러 곳을 탐색하고 은평에 관한 자료를 모으던 모 진보정당 관계자가 전한 이런 말이 큰 힘이 되었다. 꼼꼼히 기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통해 지역을 알아간다는 사람이 있고, 은평시민신문 시민기자를 하면서 지역과 만나고, 동네일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기뻐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며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갔다. 구의회 의원들이 은평시민신문 기사에 신경을 쓰고 보도한 사안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풀뿌리 지역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 예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예산안 쟁점’ 꼭지를 기획 보도한 것은 큰 성과였다. 조회 수가 많던 걸 보면 독자의 관심도 높았다.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대안까지 모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짊었지만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

#### 취재 보도를 넘어선 또 다른 모색

2008년에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시민기자 학교를 열었고, 토론회를 주최했다. 어떻게 하면 ‘동네 주민이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신문’이라는 모토에 맞게 더 많은 동네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 신문의 질도 높일 것인가? 시민기자학교는 이 숙제를 풀고자 하는 첫 시도였다. 오마이뉴스 출신 박형숙 시사인기자의 생생한 취재담, 안건모 작은책 발행인의 ‘바로 기사가 되는 생생한 생활 글쓰기’, 그리고 조혜원 시민기자가 블로그 글쓰기를 하다 은평시민신문 열혈 시민기자가 된 경험 등을 나누었다. 시민기자학교 후속 모임을 갖고 시민기자단을 꾸리려던 눈물겨운(?) 노력은 허사가 되었지만 뜻있는 발걸음이었다. 보도를 통해서만 지역 사안을 다루던 데서 한걸음 나가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재개발 문제를 다룬 토론 기획은 의미가 컸다.

‘은평구의 꿈, 은평 도시 재창조, 지속가능한 도시 가능한가?’라는 주제였다. 우리가 꿈꾸는 은평의 미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은가? 은평의 행정, 의회, 각종 기관들, 풀뿌리 자치운동 단체들, 복지단체들, 하는 일의 모습은 달라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 아래 ‘은평구의 미래를 꿈꾼다’ 은평비전 연속토론회 첫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은평의 비전을 모색하고 대안적인 담론을 담아가고 싶은 야심찬 기획이었다. 에너지도 많이 쏟았다. 기획에서부터 토론자 섭외, 진행 등을 민성환 은평

시민신문 이사이자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과 함께 했다. 내용도 의미가 있었다. 당시 뉴타운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을 때 재개발 문제점을 되짚고, 이 방식을 더 이상 밀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토론회이자 새 담론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몇 년 후 지역 정책으로 가시화되었다.



▲ 후원회원의 날에 시민기자학교 수료증을 전달했다.(2008년)



▲ 제 1기 은평시민신문 시민기자학교(2008년)



▲ 은평시민신문의 새로운 기획 도시재창조 관련 토론회 모습(2008년)



▲ 부미경 은평시민신문 발행인 겸 편집장이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모습(2008년)

#### 종이 신문 들고 거리로

2009년 은평시민신문은 인터넷신문을 넘어 종이 신문을 발간하기로 한다. 인터넷 신문 운영의 최소 후원회원 수로 잡은 300명 목표



를 이루지 못한 채 후원회원 150명과 선거 시기 인터넷 선거광고 수익으로 근근이 인터넷 신문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종이 신문 발간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주민들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의 다양한 층을 만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문의 한계를 넘어 종이 신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역 안에서 빗발쳤다. 2008년 11월 후원회원 모두모임에서 종이 신문 발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은평시민신문에 바라는 바와 종이 신문 발간에 관한 설문조사도 하고, 2009년 종이 신문 발간 준비위원회를 꾸렸다.

“매 번 만 부 가량을 온 상가와 동네에 뿌리자, 은평시민신문에 광고하면 효과 만점이야 이런 말 나와야 돼요.”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사람들이 수군대고, 기관들이 긴장하게 해야 돼요.”

“종이 신문 나오면 배달은 책임질게요.”

열성적인 후원자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그만큼 기대도 컸다. 한편으론 “우선 분기별로 한 번 씩 내보다 격주 발행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조심스런 우려를 표하는 후원자도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 신문만 하기도 버거울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들었지만 우리는 해보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였던 신문사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소액 다수의 주주출자 방식을 모색했다. 초기 발기인과의 약속대로 발기인들은 자동으로 주주가 되었고, 도합 68명 주주가 참여해 1천만 원의 출자금을 모았다.

신문이 발행되자 이사진과 후원회원들은 1월 칼바람을 마주한 채 첫 신문을 들고 불광동, 연신내 등에서 거리 배포를 했다. 만 부 가량을 인쇄해 아침 출근길, 저녁 퇴근길 길거리 가판대에 놓고 나눠주기도 했다.

2008년 촛불 시민으로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진실을 알리는 시민’ 활동을 하면서 신문 발송 작업과 배포 등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했다. 은평시민신문 발송 작업 후에 신문을 챙겨 세탁소, 정육점, 분식점, 동네슈퍼에 한 부씩 전한 후, “지역 신문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신기해하더군요. 읽고 난 후 소감도 계속 확인할 게요.”라며 열성을 보였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십시일반 힘을 보태왔던 사람들 덕으로 은평시민신문은 숨쉬고 자라났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2년간 상근자를 보내 신문 배포를 돕고, 차량을 제공했다. 단체 차원 후원의 좋은 선례였다. 신문은 공공기관 등은 물론이고, 불광문고, 은평두레생협 매장 등 지



▲ 신문 발송 자원활동을 하는 은평시민신문 독자들



▲ 은평시민신문 길거리 배포를 위해 준비하는 독자들



▲ 거리판넬전



▲ 차량 배포를 지원한 이영진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역의 주요 지점에 깔렸고, 우편 발송도 1천부 가량 했다. 기자들과 자원활동가들은 출근 시간 지하철 역에서 신문을 배포하기 위해 새벽에 나서기도 했고, 길거리 찬바람을 마다하지 않았다.

#### 무한반복의 첫바퀴 속에서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상근기자 2명으로 휴일 없는 일정이 몰아쳤다. 기획, 취재, 편집, 발송, 배포 전 과정을 2명 상근자와 자원 활동가 역량으로 꾸려야 하다 보니 과부하가 컸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회의하고, 취재하고, 기사 청탁하고, 교정교열 보고, 인쇄 넘기기 전날은 디자이너의 집에서 새벽 1~2시까지 있다가 다음날 신문 나오면 신문 접고, 배송하고... 같이 일한 사람들과 회포를 풀며 술이라도 한잔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취재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무한반복의 시간이었다. 8년, 3년 동안 일했던 부미경 발행인 겸 편집장과 윤효순 기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열정만으로 버티기에는 버거운 육체적 피로도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늘 안고 있는 문제였지만 재정도 더 팍팍해졌다. 종이 신문을 내려다보니 통반장 계도지로 알려진 구청의 구독 지원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차피 쓰이는 주민 세 금인데 좋은 지역신문으로 공적 역할을 하는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뭔가, 구독 지원 예산이 합리적 기준과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고민은 컸다. 종이 신문을 통해 광고 수주를 늘리는 게 목표였지만 막연한 기대와 예상으로 돌파하기엔 지역 광고 시장이라는 게 녹록치 않았다. 구청 광고와 시민단체의 협찬 광고로 근근이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큰 수익원이었던 선거광고를 받기 위해 영혼을 다 뺏기는 것 같은 경험을 서너 차례 하고 나니 진이 다 빠졌

다. 신문은 내야겠고, 2010년 또 한 번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했다. 종이 신문 발간으로 빠듯해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인연, 그대가 있어 은평이 아름답습니다’ 후원주점을 열었다. 지역에서 연 후원주점으로 가장 성황을 이루지 않았나 싶다. 이사진, 시민기자, 후원회원 등은 내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주점 티켓 판매, 음식 장만, 주점 운영에 함께해 주었다. 은평구 공무원, 지방의회, 정당, 시민단체와 기관 등 각계각층 주민 1천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신문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 후원주점 모습, 주민 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2011년)



▲ 은평시민신문 후원주점에서 팔 걷고 십시일반 힘을 보탠 후원회원들(2011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역의 모든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다.

#### 마을과 사람들 속에 뿌리내린 소통 공간

종이신문이 나오면서 지면 기획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다. 마을 소식도 더 깊고 다양하게 다루었고, 지역 정책을 다루는 기획 기사도 더 확대되었다.

지방 정부(구와 시)의 교체로 은평시민신문에서 이전까지 대안 과제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 행정, 주민 참여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 현실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도 밀착 보도했다.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은평 사람들’ 꼭지가 살아난 점이다. ‘은평 사람들’에서는 은평에 사는 평범한 우리 이웃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일상과 생각, 바람을 고스란히 전해 주었다. 녹번동 재래시장의 김밥 할머니,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 헌책방 주인장, 청소년 심터를 운영하는 부부, 요양보호사, 작명가, 7723번 버스 기사, 소방관, 청소 노동자, 우체부 아저씨, 노점상, 요구르트 판매원, 슈퍼마켓 사장, 수화통역사, 키다리 피자 사장, 점음악전문가, 동화 구연하는 어르신들, 중화요리로 잔뼈가 굵은 북경반점 사장, 문구점 사장, 산새마을 통장, 동네 가수, 동네 영화감독, 다문화 이주여성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한복 짓는 사람, 동네에서 10년 이상 일하는 마을활동가,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등을 만났다. 우리 동네 이웃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캐어 올린 감동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경험은 참 소중했다.

시민기자들은 꾸준히 ‘삶이 있는 이야기’로 신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종이 신문이 나오면서 시민기자들의 참여가 좀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학교 밖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을 감동으로 전한 ‘날아라 훌쩍야 우리가 지켜줄게’, 아이 키우는 엄마의 소소한 일상을 다룬 ‘마주 이야기’, ‘우리 동네 주치의’, 지역의 대안학교인 씨앗학교 아이들 이야기, 생활 속 지혜이자 소비 자본주의를 넘어서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생활 속 DIY’, 그리고 ‘텃밭 농사’, ‘노래는 멀리멀리’, ‘영화 앞담화’ 등 고정 연재꼭지가 만들어졌다. 특히 ‘집단 공동 기획’의 시도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2011년 ‘누구나 건강한 은평구 만들기 캠페인단’(이하 누건은)은 은평구에 사는 저소득층을 직접 만나 생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은평시민신문은 이 실태조사 내용을 7회에 걸쳐 실었다. 지역과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경험을 자체 마을기자단을 통해 깊이 있게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 기획은 큰 의미가 있었다.

2012년 초 은평시민신문은 신문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역 기관과의 접점을 고민했다. ‘여성’ 면을 ‘한국여성의전화’에 할애하고, 뒤이어 ‘장애’를 다루는 고정 지면을 두기로 했다. 여성 면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장애’ 면은 서부장애인복지관 홍보 담당자의 관심과 열성, 그리고 신문에서 기획한 기자학교 등의 활동과 함께 어우러져 마을기자단 활동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 은평시민신문 거북이기자학교와 ‘동네스튜디오’가 함께 마을 라디오 공개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2013년)



▲ 협동조합 전환을 위해 회의하는 모습(2014년)





중이 신문이 발간된 후 언론의 관심도 얻었다. 2010년 한겨레 21에서 지역 풀뿌리 신문의 한 주자로 은평시민신문의 활동을 보도했다. 2011년에는 손석희의 아침방송에서 아이 키우며 글을 쓰는 시민기자 김지혜 씨를 인터뷰하며 은평시민신문을 소개했다.

마을 안에서 협동하는 것만이  
풀뿌리 언론, 공동체 미디어가 살아남는 길

2012년, 서울시에서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 활동이 잘 되게 하려면 지역 미디어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에서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울 여러 지역에서 영상, 라디오 등 마을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 미디어 교실, 마을 미디어 공방 사업이 진행되어 큰 성과를 내고 있다.

2012년 마을 미디어 정책의 흐름을 짚는 자문회의에 들어가 (영상, 라디오 등)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은평시민신문과 같이 오랫동안 자생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풀뿌리 신문, 기존 플랫폼을 가진 매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평시민신문도 풀뿌리 언론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정책에 발 맞추어 마을과 사람을 이어주고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야 하는 과제에 부딪혔다.

은평시민신문은 2012년, 미디어 교실을 통해 산새마을 마을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내기도 했고, 2013년에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거북이 라디오 학교, 거북이 기자학교와 찾아가는 콘서트를 열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한편 구 인터넷 방송국의 자원을 활용한 ‘동네 라디오’가 만들어져 은평 지역 미디어가 꿈틀대고 있다. 은평시민신문은

그동안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라는 외피를 입고 있었지만 협동조합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4년 1월 11일,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한 과정으로 은평시민신문(미디어)협동조합으로 재탄생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마을 공동체 안에서 풀뿌리 지역 미디어는 협동의 힘이 무기다. 재정, 조직,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교육 등 공동체 미디어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들은 공동체의 자원과 에너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체 미디어는 시민기자, 후원조직, 자원 활동가가 없다면 꾸려나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에라야 빛이 난다. 은평시민신문은 힘든 고비를 겪어왔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즐겁고 보는 사람이 즐거운 신문을 내자”며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좋은 지역신문, 같이 만들지 않으실래요?”



2011년 은평시민신문은 처음으로 은평시민신문에 대한 공개 좌담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은평시민신문의 발걸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당시 은평시민신문 기사를 발췌, 수정하여 옮긴다.

#### 맛있는 은평시민신문 '수다방'

은시문을 잘근잘근 씹어보니, 어! 영양가가 있네~

은평시민신문 창간 7주년을 맞아 신문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은평시민신문'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 '맛있는 수다'를 떨어보기로 했다.

장소 2011년 10월 19일 낮, 은평시민신문 사무실

참가자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은평시민신문 이사 겸 편집위원), 박지현(은평시민신문 발송 자원봉사자), 백미숙(동화작가/은평시민신문 이사 겸 편집위원), 부미경(은평시민신문 발행인 겸 편집장), 양미(은평시민신문 편집위원), 윤효순(은평시민신문 기자), 임세환(은평시민신문 배포 자원봉사자) / 정리 윤효순, 임세환



▲맛있는 은평시민신문 '수다방' 모습

#### 신문을 통해

#### 지역을 배우고 사귈다

(부미경, 이하 부) 수다판을 어떻게 열면 좋을까? 먼저 은평시민신문(이하 은시문)과의 인연, 기억들에서 시작해 은시문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해부해 보면 어떨까?

(임세환, 이하 임) 1년 전에 편집장이 신문 배포 한번 와봐라 할 때는 1년 동안 하게 될 줄 몰랐다. 은시문은 제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은평 사회를 잘 알 수 있게 해준 정보 매체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 아닐까. 기사 내용을 떠나서 그런 신문이 있다는 게 좋다.

(박지현, 이하 박) 말 한 번 잘못했다가 2년째 신문 접고 있다. 4주년 때인가? 축하 글 써달라고 해서 '이철수 판화 달력 준다고 해서 후원회원 가입했고, 너무 자주 들어가 보면 실망하고(새로운 글이 없어서), 가끔 들어가면 반가운 그런 곳'이라는 솔직한 생각을 말했다. 또 이런 온라인 매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같으니까 힘을 모아서 종이 신문을 냈으면 좋겠다는 걸 쓰고, 만약 나온다면 봉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현실화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일동 웃음) 어느 날 종이 신문 만든다면서 출자금도 모으러 다니고 하더라. 정말로 종이 신문이 나왔다. 이렇게 딱딱딱박 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은시문이 후원회원들, 시민들 힘과 열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도와야겠다 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나 됐다. 그 과정이 의무감만 있고 재미가 없었다면 지속 못했을 거다. 자원봉사 하려는 분들이 하나 둘 모이고 수다도 떨게 되고, 맛있는 떡볶이도 먹고 뒤풀이도 하고, 재밌다. 머리 복잡하고 할 때는 신문 나오는 날이 기다려진다. 단순 노동을 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

**(백미숙, 이하 백)** 2008년에 본의 아니게 시민기자 역할을 하게 됐다. 은평구청장 비리, 장학재단 비리 있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해 시사인에도 제보하고 했는데 지역 사안이라 그런지 다뤄주지 않았다. 지역 언론이 중요구나 생각하게 됐다. 은시문이 지금은 안 하지만 거리 배포도 했다. 새벽이나 저녁, 그리고 눈 쌓인 날에도, 진알시에서 한겨레, 경향 나눠주면서 은시문도 같이 배포하고, 어쨌든 재미있게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 고맙다. 바빠서 다른 것은 빼먹고 해도 발송 작업은 안 빠지려고 한다. 은시문 없으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몰랐을 것 같다. 신문을 통해서 지역을 배우고 사귀어 간다.

**독립 언론이 6년 이상 하면서  
종이 신문까지 내다니! 이걸 기적이야**

**양미** 이사 오기 전 서대문 살 때 은평이 부러웠던 것은 지역에 독립 언론이 있다는 거였다. 뭔가 하소연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다. 응암역에서 버럭시장 못하게 해 시민기자로서 첫 번째 기고 글을 썼다. 그렇게 해서 고마운 신문으로 기억을 하게 됐다. 종이 신문 내면서 이것은 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독립 언론이 6년 이상 하면서 종이 신문까지 내나.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했다. 은평시민신문은 기적이니까 두 분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두 분 노동 강도 낮출 방법 고민하던 차에 입방정을 떨어뜨렸다.(일동 웃음) 심야식당 만화 좋아하는데 그 컨셉으로 지역 맛집과 사람들의 추억 엮어서 시리즈물 한번 하면 어떨겠냐 했다가 편집위원으로 들어와서 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전화가 왔다. 나오라고, 그때부터 1년째 쭉 이려고 있다. 땀땀 전문용 기자다.(일동 웃음)

**(민성환, 이후 민)** 인연이 생각이 안 난다. (일동 웃음) 예전에 지역에 조그

마한 네트워크 생길 때 지역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언론 운동이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다. 은평에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 좋았다. 이걸 동네에서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인연이 됐다.

**지역 공동체 복원, 사람사는 동네,  
은시문의 변함 없는 화두**

**부** 은평에서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나누고, 건강한 생각을 엮어가는 매개체 하나 만들자(‘창간, 그 기억들’)는 소박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준비도 충분하지 않았다. 신문 제작 경험도 부족했다. 지역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 우리 동네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열정과 의지뿐이었다. 그만큼 고생했다고 생각한다. 7년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봤을 때도 그 소박한 생각이 고갱이다. 다르게 사는 법을 고민하고, 다른 삶, 다른 가치를 알게 모르게 실천하며 산다. 신문에 애정이 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그 얘기를 신문 지면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다. 그 생각은 처음 2004년에 신문 만든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월이 지나도 이게 주효하겠다는 생각이다. 물론 다르게 사는 것이 뭔지, 다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물어 봤을 때는 짚어볼 구석이 많지만, 길을 찾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은 든다. 이렇게 힘들게 신문 만드는데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고민할 때가 있다.

**민** 의미도 있고 영향력도 있다.

**백** 영향력이 영양가로 들린다. (일동 웃음)

**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은시문 진짜 영양가가 있어? 하는 질문이다.

**민** 어쨌든 진행형이다. 한겨레에 만인보가 실리는데 그런 기사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가 궁금하다. 자기 삶에 관심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런 기사가 있으면 어떨까? 만인보처럼 48만 보, 은평에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마을에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어떻게 살았고 희로애락을 계속해서 연재해 가면 좋겠다. 그것을 나중에 묶어서 책자로 내면, 그것이 실제 작은 역사다. 은평구의 역사다.

**양미** 재밌다. 3기에 그거 했으면 좋겠다.

**부** 원래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재밌다. 지역신문으로서 지역 공동체, 동네, 지역운동, 마을 공동체, 이런 것이 신문 만들 때 주된 화두였다. 사실 은평구라는 50만 가까운 대도시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어쩔 때는 대단히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공동체 복원이나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연대를 만드는 데 신문이 유효한 방식인가 하는 아주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

**민** 은평구는 25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정주성이 강한 지역이다. 다른 곳보다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가치 지향적이라고 본다. 지금 이 가치가 옳다고 선택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 한다. 공동체 운동은 세계적 흐름도 그렇고,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도 긍정적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운동하고 있고, 조금씩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은시문이 지향하는 것도 그거라고 한다면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훨씬 더 선도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의제 설정해서 문제 제기하고 좋은 사람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더디 갈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 실패 성공을 판단하다는 건 이것을 그만둘 때, 죽을 때 하면 될 것 같다. (일동 웃음) 그 부분에서 신문이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라디오와 '공간' 은평시민신문,  
먼 미래 일만은 아니다**

**부** 신문 초창기에는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대단히 취약했다. 시민사회 자체적으로도 진화하지만 네트워크나 서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은시문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

**민** 앞으로 더 많이 시민사회와 소통했으면 한다. 시민사회는 지역의 언론을 함께 만들고 키워가야겠다는 공감대, 신문은 지역사회 안에서 공통 의제를 공론화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양미** 지역 언론이 강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구체성을 가진 기획 연재라고 본다. 구정으로 담아낼 수 없고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이렇게 밖에 살 수 없으니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신문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네.'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른 식으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면 한다. 은평구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 꿈,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다. 비어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희망이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양미** 은평시민라디오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부** 지역 라디오가 가능성은 있다. 관악 FM이나 마포 FM 같은 공동체 라디오가 주파수가 한정돼서 일정 권역밖에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스마트 폰을 통한 앱을 이용해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진화를 해서 지역공동체 라디오가 되겠구나 생각했다. 스마트 폰 등 기기의 발달로 인터넷 라디오도 뜨고 있다. 환경의 변화가 빠르다. 소셜네트워크를 통



한 1인 미디어가 활발해지고 있고, SNS를 통한 영향력도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고민해 볼 문제다.

**박** 앞으로 돈을 많이 모아서 공간을 내면 좋겠다. 후마니타스는 북카페를 냈더라. 차 마시고 책도 읽고, 사람들 많이 앉아 있다. 은시문 자체를 오픈된 공간으로 가져가면서 주민들에게 신문도 알리고.

**양미** 이름도 지었다. '공간' 은평시민신문.

**부** 하고 싶은 게 참 많다. 좋은 아이디어들이다. 먼 미래에 시도해 볼 만하다.

**민** 그리 먼 미래가 아닐 거라 생각한다. (일동 와하하하~)

도  
서  
관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이 꿈틀꿈틀



사람의 성장, 마을의 변화  
그것이 도서관이 주는 선물이다

이미경

## 작은 도서관으로 마을이 꿈틀꿈틀

도서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주는 정보활용 능력을 육성함으로써 민주사회의 보루로, 정보교환과 인적자원의 허브로,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지역건강정보센터의 역할로, 예술과 문화도시의 산실로 설립되었다.(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중에서)

도서관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은 도서관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들의 행동까지 이어졌다. 지역의 교육 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은평구는 2002년, 꿈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시작하여 2011년 역촌동에 등지를 튼 초록길 도서관까지 71개라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

은 도서관을 품은 지역이 되었다. 71개의 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그 도서관들이 골목골목에 자리잡아 은평구 전체를 시끌시끌, 꿈틀꿈틀하게 된 날을 기대한다.

2002년 대조동 주민센터 3층에 문을 연 ‘꿈나무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 1호 도서관으로,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들여 시작함으로써 대표적인 민관협력의 사례가 되었고 ‘초록길 도서관’은 민간 도서관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좋은 도서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담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도서관들이 첫 발을 함께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구립도서관 등에서 자원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활성화와 좋은 책을 추천하고 함께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은평지회’도 최선을 다해왔다. 2003년 어린이축제때부터 책과 함께 하는 그림자극, 전래놀이 등 다양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유치원, 학교 등 책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찾아가 책을 읽어 주었다. 이러한 활동이 학교, 동 자치회관 등에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도서관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음이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은평구민은 도서관에 갈급하다.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해소되지 않았다. 2014년 진관동에, 2015년엔 구산동에 도서관이 문을 연다고 한다. 은평구민 누구에게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함을 통해 배

움을 익히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힘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작은도서관은 생활의 근거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과 어르신 등 약자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공간으로, 구립도서관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지적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이야기

한 아이를 안고 엄마가 책을 읽어 줍니다.  
걷는 아이 손을 잡고 온 아빠가 책을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아이가  
친구와 함께 책 속에서 놀입니다.

도서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만나는 곳입니다.  
마을도서관은 좋은 책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팸플릿에서)

### 대조동 주민센터 3층, 도서관 문을 열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은평구 대조동 마을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동시에 마을 엄마들의 꿈들이 모여 만든 결실이기도 하다.

2000년, 은평구에는 구립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도 제대로 없어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 때마침 대조동 동 주민센터가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접한 대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대조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서를 만들었다. 도서관을 만드는 일에 동네 아이들도 서명에 동참을 하기도 하고 시민단체 열린사회은평시민회가 함께 하기도 했다. 대조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도서관 설치가 결정되었다. 그때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엄마들이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로 도서관을 10여년 동안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사이 공공근로 형태도 전환해보기도 하고 상근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지만 지역주민 누구나 도서관 자원활동을 하는 도서관으로서 남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주 힘들지만.

대조꿈나무도서관은 2002년 1월, 새로이 신축된 동 주민센터 3층에 10평 공간을 얻어 개관하게 되었다. 12월에 자원봉사자 모임 ‘꿈지기’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도서관을 좋은 책을 제공하고 책문화활동을 통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교육환경의 거점으로서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대조초 아이들이 체험학습으로 도서관을 찾아 오기도 하고 학교선생님은 회원증을 만드는 일을 과제물로 내주는 등 도서관 연계활동을 하며 도서관이 활발해지자 간절히 원했던 10평의 도서관은 작아지기 시작했다. 3층에 있는 것도 불편해지고 새로운 도서관이 필요했다. 2003년 기적도서관의 광풍이 불 때 동 주민센터 옆 파출소 건물이 유희공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일은 산 너머 산이었지만, 꿈지기들은 꿈을 포기 하지 않았고 2005년에 동 주민센터 옆 파출소 자리에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새 건물을 세웠다.

## 2005년 파출소 리모델링, 도서관 이전

이 새로운 보금자리의 도서관 역시 동 주민센터 별관으로 운영되고 도서 대출, 반납, 회원관리 등 전문 사서와 상근직 직원이 하는 일을 20여명의 꿈지기들이 자원봉사로 나누어 맡았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 주민센터 비는 곳마다 공공 도서관으로 만들자는 서명을 받아 도서관 확대 노력을 전개했고 기존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관내 18개 학교에 찾아가 도서관 자원활동 학부모들을 교육시키는 ‘찾아가는 도서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도서관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2007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8년에는 은평구의 은평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책임어주는 도서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일 지역아동센터와 유치원아동을 초청해 책을 읽어 주었고 놀이터에서 야외도서관을 열기도 했다.

## 2008년 결혼이주여성들과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문화 프로그램 진행

꿈지기들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도서관을 찾아온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한글학교를 조금 더 재미있게 운영하기 위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는 제목으로 노래와 그림 책일기, 요리 등의 문화로 외로운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났다.

한국 사람들과 결혼한 아시아 여성들에게는 이웃이 필요했다. ‘아

시아를 품은 마을, 대조동'이라는 마을의제를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시아 각 나라를 소개하는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인기 있는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 여행프로그램으로 유치원과 학교에 찾아갔다. 다문화사회를 준비해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아시아 여행은 매우 필요한 교육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넘어 사업이 되었으며 '마을무지개'라는 마을기업의 토대가 되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도 간절했다. 그들과 함께 하고자했던 꿈지기들은 자원활동에서 기업 창업까지 한 것이다. 이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8년 전 처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세요"하고 찾아왔던 도혜림씨, 그들과 같이 웃고 울었던 많은 꿈지기들이 새로운 경험에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2009년 경제활동의 일터 마련 '마을엔 카페'

도서관 활동에 집중했던 8년여 동안 꿈지기들의 아이들은 고등학생으로 성장하였고 엄마들은 어른들의 공간도 필요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일터도 필요했다. 워커즈컬렉티브를 바탕으로 한 먹을거리 창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지역 생협과 함께 유기농으로 된 먹을거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건강한 먹을거리 활동을 하고자 한 꿈지기 중 7명이 공동으로 투자를 해 매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현동에 자리한 카페 '마을엔'이다. 마을엔카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어 2년 동안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쿼트와 바느질동아리들의 바느질공방, 월수금

점심 건강 밥상 '알아차림' 등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소중한 만남의 장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2010년 마을n도서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꿈지기들은 2002년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출발하여 꿈나무도서관을 거의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였으며 학교도서관지원, 다문화여성들 지원, 마을카페 운영 등 활동 내용이 다양해지고 도서관이 있는 대조동에서 갈현동까지 활동 범위도 넓어졌다.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서부교육청,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등 관계하는 기관도 많아지면서 꿈지기라는 모임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마을n도서관'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등록 후 합의 과정이나 활동 내용의 공유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다. 아픔도 있지만 성장도 있기에...

#### 꿈지기들의 문화활동

도서관의 자라는 무엇보다도 꿈지기들이 열정적으로 만드는 신나고 뜻 깊은 프로그램들이다. 2002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어린이들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감격으로 도서관은 미술관, 공연장, 영화관으로 변했고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이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었기에 외부 발표 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행사를 진행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축제, 5월 어린이축제, 한여름 밤의 영화이야기, 대추마을어린이문화

축제, 영상그림책상영, 엄마들의 동극과 인형극 등을 진행했다. 또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었던 엄마의 맘은 방학 때마다 신나는 방학학교, 글쓰기와 책읽기 수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게 했다. 엄마들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지역아이들을 돌보는 일로 확대되는 것을 즐거워했고 아이들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역의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원활동하던 활동가들은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다문화활동, 건강한 먹을거리활동을 하는 생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으로 성장해나갔다.

#### 어린이들의 작은 축제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는 2002년 5월에 시작되었다.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아이들의 장기를 보여줄 수 있고 문화예술적 요소에 활용해 마음껏 표현하면서 놀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필요했다. 2002년 5월에 처음 시작한 축제는 대조공원에서 야외용 돛 자리를 깔고 무대도 만들고, 객석도 만들어서 200여명의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참여하였다. 축제 프로그램은 학년별 골든벨 퀴즈대회, 타일에 그림 그리기,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모금활동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는 이후 은평구지역네트워크와 결합되어 갈곡리 마을팀과 함께 현재 진행되는 ‘은평상상축제’의 발판이 되었고, 두 번째는 2003년부터 동 주민센터와 함께 마을진흥사업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상상축제는 5월에 열리며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

는 10월로 옮겨져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멀리 예술의전당에 가거나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기에 대추마을어린이축제는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은 동네에서도 재미있는 축제를 있을 수 있으며 주체가 되는 축제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축제는 2013년에도 개최되었다.

#### 꿈나무어린이도서관과 꿈지기 활동



▲ 대조동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외관모습



▲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내부모습



▲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 1회 공연모습



▲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 1회 독서퀴즈모습



▲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 2회 공연 모습



▲ 대추마을어린이문화축제 7회 관객들 모습





▲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전시(2007년)



▲ 은평구 자원봉사자 은평대상(2008년)



▲ 빛그림 프로그램



▲ 책읽기 프로그램



▲ 다문화 수업 모습



▲ 다문화 어린이 수업 모습



▲ 다문화 어린이 수업 모습



▲ 꿈나무도서관 생일잔치 꿈지기들과  
대조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2009년)

## 도서관은 꿈지기에게 삶의 반려자

2010년 꿈나무도서관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했다. 어느덧 햇수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용자로써 도서관을 드나들 때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에서 뜻 깊은 일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안고 다녔다. 그러던 중 큰아이 학교에서 도서관 명예사서를 대상으로 꿈나무도서관이 주관한 도서관학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당시 고병헌 교수님의 강의는 나의 삶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었고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방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힘을 얻어 도서관을 바로 찾아가 봉사활동 신청을 하고 돌아왔다. 그때만 해도 자원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 대기자로 명단을 올려놓고 몇 달을 기다려야 했었다. 그것이 불과 4년 전 인데, 그렇게 시작한 도서관 자원활동은 나에게 특별한 사명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도서관을 지금까지 자원활동으로만 운영해 온 초창기 선배님들에 대한 경외감까지 생기게 되었다. 지금 나는 도서관을 대표하는 아니 도서관 자원활동가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초창기 설립 멤버이고 대표였던 분이 여러 가지 좋은 발전으로 도서관을 떠나게 되면서 대표 없는 운영진 체제로 몇 년을 지내게 되었다. 신입인 내가 본 도서관은 중심이 없는 서로 책임지기 싫어서 어떠한 일도 일으키지 않는 그저 몸을 사리는 봉사만을 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대표를 선출해 운영진과 함께 도서관을 이끌어가는 체제가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내가 본 대표의 역할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따르는 대표인 것 같았는데 역시나 도서관

의 가장 기본인 사서업무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들이 대표에게 전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사실 어느 기업이든 어느 단체이든 상위 몇 명의 힘으로 이끌어져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요즘에 와서 실감하고 있는 것 같다.

11년이라는 시간을 자원활동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도서관의 대표로써 느끼는 점은 자원활동으로만 운영이 되는 한계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 한계점이라 함은 업무의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다.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할 사람이 선배님이거나 혹은 스스로 어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도서관 자원활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2002년 도서관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지역의 문화공간이었겠는가. 그래서 도서관에서 사서의 기본적인 업무만 해도 큰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러 와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채우고 가기도 하니 봉사에 대한 뿌듯함이나 업무에 대한 만족함이 없이 귀가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봉사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서 동기부여도 적어지는 것 같다.

모든 일들이 그렇듯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면 좋으련만 성인인 우리도 그렇지를 못하다. 요즘은 학교 내의 원활한 도서관 활동과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서관이든 이용자들을 유치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제는 우리 꿈나무도서관도 예전의 모습을 고수하기보다는 우리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대조동의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원활동가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다.

대표가 되고나서 얼마 전까지 내가 운영을 잘못해서 이 단체가 와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러한 생각은 이 도서관을 지금까지 지켜 온 선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과 지금까지 '꿈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온 자부심이 생기면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이 생기게 된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도서관에서는 가장 먼저 자원활동가들(꿈지기)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다. 도서관에 와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이다.

꿈나무도서관은 이제 어린이들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그 곳에서 활동을 하는 우리 꿈지기들에게 새로운 삶의 형태를 열어주는 반려자 역할을 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은 많이 힘들다. 자원해서 활동을 하러 왔음에도 도서관 본연의 업무보다는 또 다른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 했듯 우리도서관은 운영전반을 자원활동가들이 해야 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곳에서의 자원활동보다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에서의 활동이 단순히 데스크에 앉아 대출반납과 서가에 책을 꽂는 업무 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꿈나무도서관은 이미 대조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다. 잠깐의 외출이나 일터에서 조금 늦을 때 부모들은 우리 도서관에 아이들을 부탁한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도 갈 곳이 없을 때는 우리 도서관에 와서 떠들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재미난 이야기 삼매경에 빠지기도 한다. 며칠 전에 여름방학 특강이 마무리 되었다. 언제

나 우리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단골로 와 주었고 혹은 방학특강 때문에 우리 도서관에 처음 발을 디딘 친구들도 있었다. 이렇게 꿈나무 도서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변화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면서 변화를 꿈꾸는 곳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 도서관이 변해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처음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해서 만들고 이끌어 온 그 본연의 마음을 잊지 않고 유지 하는 것 또한 현재 도서관 자원활동가(꿈지기)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나의 좁은 소견으로 바라 본 현재의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두서없이 써 봤다. 요즘의 도서관은 우리가 자라나던 책만 보던 도서관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보듬고 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부디 새로 생겨나는 도서관이든 기존의 도서관이든 너무 경쟁적이지 않고, 서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고 협력기관으로 창조성과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 조은영 2013년 꿈지기 대표

대조동 꿈나무도서관 전경 및 활동 모습



## 책으로 마음을 여는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딸~ 너는 지금 행복하니?”

답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딸은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 질문을 문득 나 자신에게 해 보았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세요?”

처음엔 행복하다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불안했다. 아직도 남편과 아이들과 큰소리를 내며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에 마음이 쓰였기에 자신이 없었다. 어쨌든 여러 생각 끝에 답을 찾았다.

“행복하다! 많은 것을 개인에게 요구하는 시대에 맞벌이로 안 나 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동화읽는 어른모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십 년이 넘는 지금도 모임에 나올 수 있어 행복하다. 책을 통해 이야기하는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은 욕심 하나를 가지고 산다.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박순선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어린이도서연구회 활동은 어떤지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시작했지만 가끔 어떤 어머니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관들은 지시하려 한다. ‘우리도 같은 시민일 뿐인데’라는 생각에 속상해 하는 회원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누그러진다. 또한 독서라는 분야는 효과가 바로 보이지 않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은 알고 있다. 평생 독자로 거듭나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당황스러워하는 회원들이 있다. ‘나는 책만 읽고 싶은데 다른 활동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을 들었다. 물론 기본 활동인 책만 읽어도 좋다. 처음엔 회원이 많지 않아 프로그램에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책과 활동이 연계되어야 비로소 어린이의 삶이 보이기에 자원 활동을 함께 하기를 지향하고 있다. 반대로 어떤 신입 회원들은 책 읽어 주기를 빨리 하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 책은 누구나 읽어줄 수 있지만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기에 먼저 좋은 책을 알아가는 과정을 갖고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 왜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누구나 살다보면 손을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제게는 그 중 하나가 ‘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이다. 엄마들이 책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저 역시 그런 마

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마음과는 차원이 다른 어린이의 세계를 모임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아이를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시각으로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아이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책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 생각의 폭이 넓어짐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다. 책을 목적에 맞춰 읽던 제가 즐거움으로 책을 읽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하는 마음 예쁜 회원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어린이 책을 통해 아이의 성장뿐 아니라 내 삶의 성장도 함께 한다는 믿음도 생겼다. 모임과 활동에 믿음이 생기니 함께 하는 회원들이 사랑스럽고 소중하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시나요?

### 책으로 마음을 여는 어린이 도서연구회 은평지회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는 지역단체, 지역기관과 연대하여 책읽어주기 사업 및 책 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마다 신입회원을 모집해 현재 14기 신입회원들이 평생학습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사)어린이도서연구회는 1980년 5월에 창립한 후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읽히자는 목표로 어린이 책·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 시민 단체이다. 전국에 11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은평지회(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는 서울지부에 속해 있다.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childbook63>





▲ 회원들의 기본활동 책모임(책 이야기 나누기)



▲ 회원들의 자원 활동으로 책임어주기 및 책놀이를 진행하고 있다.



▲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교육 및 문화 활동

## ■ 2000년 지역모임 등록

- 6월 30일 (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지역모임 '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 등록.
- 15명 회원 활동 시작.

## ■ 2001년~2013년 활동 진행 상황

- 부서별 책 모임 진행(회원 대상)
- 매년 신입회원 교육 진행
- 회원과 회원자녀를 위한 문화행사 진행 및 캠프 진행
- 슬라이드, 그림자극 제작 및 공연
- 문화행사 진행
  - 은평지회 자체행사 '좋은 책 전시회' 개최
  - 서울지부 문화행사 '어린이 책 한마당' 참여
  - '은평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부스 진행
- 책임어주기 사업
  - 도서관(신사어린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응암정보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등)
  - 아동센터(열린, 광현, 진관, 함지박) 및 불광문고
  - 학교(알로이시오초, 불광초, 신사초, 녹번초, 은평초, 갈현초, 연천중 등)
  - 회원자녀(생각하는 아이들, 청소년모듬, 애들이 놀자 등)
- 도서관 연계사업(청소년 모듬 진행, 역사책 모듬 진행, 독서 모임, 책과 함께하는 옛 놀이 진행 등)
- 교육복지투자사업 유치원(보림, 보라, 즐거운), 학교(갈현초, 불광초)
- 교육복지투자사업 가정방문 멘토링 진행(2009)
- 방학특강 독서관련 프로그램 진행(각 도서관 및 학교, 자치회관 등)
- 부모교육(대중강연) 및 교사를 위한 책임어주기 교육 진행
- 지역연대사업(놀이가 있어 즐거운 마을 진행, 책임어주는 마을만들기 강좌 진행, 지역 주민을 위한 삶을 가꾸는 신나는 책읽기 강좌 진행)
-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 참여(마포서강도서관, 신사어린이도서관 등) 및 도서관정위원회 참여
- 지역 독서모임 지원

##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이 생기다, 초록길 도서관

역촌동 주민센터 옆 골목길을 따라 쭉 들어오면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가 서있다. 느티나무 좀 못 미쳐 작은 사거리엔 동네 할머니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평상이 있다. 얼마 전까지 오래 된 단독주택이 있었고 그 집엔 느티나무만큼이나 큰 단풍나무가 담장 밖까지 그늘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어주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영감님이 집을 팔았다는 소문이 돌리더니 이내 5층짜리 빌라가 들어섰다. 할머니들은 맞은편 작은빌라 옆에 낡은 의자들을 주워와 이리저리 해를 피해 다니며 모여 앉으셨고 동네사람들도 맘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우리 동 주민제안 참여예산 사업으로 골목길 경관 가꾸기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 사업비 일부로 평상과 벤치를 놓아 어르신 쉼터를 만들어드릴 수 있었다.

단풍나무는 사라졌지만 느티나무는 골목길 한가운데 큰 그늘을 만들며 여전히 우뚝 서있고 바로 앞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다. 동네사람들은 이 골목길을 ‘초록길’이라 부르고 도서관이름은 ‘초록길도서관’이다. 참여예산 사업명은 ‘초록길가꾸기’사업이다. 원래부터 길이름이 초록길이었던 것은 아니다. 연서로5길이 어찌다 ‘초록길’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게되었을까?

2011년 9월, 지역의 시민사회 활동가, 교육 문제를 고민하는 학부모,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 몇 명이 모였다. 우리동네에도 걸어서 십분 안에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 하나 만들어보자는

꿈을 현실화시키는 자리였다. 10명 정도가 모여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홍보지를 만들어 벽돌기금을 모으고 후원주점을 열고 책을 모았다. 다른 지역의 작은도서관 사례도 공부하고 천천히 준비하려던 계획은 좋은 입지를 가진 자리가 나오면서 무산되고 모든 것이 과속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주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 도서관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일을 저리 급하게 벌어나는 질타들도 있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 많은 분들이 벽돌기금을 보내주고 정기후원자로 약정을 해주고 후원주점엔 자리가 모자랄 정도였고, 책을 기부하고자 하는 분들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아침에 도서관 앞에 오면 동네사람들이 가져다놓은 책이 쌓여있기도 했다. 아이들이 직접 고사리같은 손으로 꺾꺾대며 한 보따리씩 책을 가져오기도 했다. 공사를 맡아주셨던 목수님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사비 부담을 줄여주었다.

도서관 주변에 큰 나무가 많고 이 골목길을 도서관을 중심으로 푸릇푸릇 생기가 넘치는 골목으로 만들어보자는 소망을 담아 이름을 초록길도서관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2011년 12월22일 도서관이 문을 열었고 이듬해 1월엔 마을주민들과 함께 성대한 개관식을 했다. 은평구 최초로 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민간사립도서관이 생긴 것이다.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이라 평가를 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일지 모르나 지금까지는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운영되어 왔다. 또 아이들과 주민들과 만나고 관계 맺는 과정 하나하나가 감동이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초록길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소통하는 마을공동체’이다.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협동하며 함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도서관을 매개로 책과 재능을 나누고 동네주민들이 소통하는 동네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동네에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후원금과 회비를 내는 회원들이 250여명이고 운영위원 10명, 자원활동가 12명이 활동하고 있고 취미 취향별 여러 개의 회원모임이 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좌, 인문학 강좌, 취미강좌 등을 무수히 개최하였고 아이들을 위한 방학교실, 독서클럽, 토요학교 등을 열고 있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도토리학교는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오전에는 독서토론 수업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야외활동을 하는데 주로 서오릉 인근 주말농장에서 텃밭농사를 짓는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감자를 심고 수확하는 농사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어린이 농부학교라고 할 수도 있다. 때론 생태습지를 찾아 생태교육을 하고 전래놀이 요리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도서관 활동을 하려니 힘이 들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있어서 행복하다.” “초록길이 있어 생활이 달라졌다”라는 칭찬들 때문에 지치지 않고 지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평범한 아줌마에서 도서관활동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지역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가는 동네 엄마들 때문에 뿌듯하기도 하고 공

간이 가지는 힘을 깨닫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성장은 특별히 관장이 나 운영위원들이 잘나서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다. 초록길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공간이 이 동네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몇 몇이 주관적인 열정만으로 시작하더라도 사람들을 모으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또 서울시와 은평구청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 등과 흐름을 같이 한 것과 주민센터와 가까이 있으면서 마을사업을 같이 추진한 것도 큰 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구조  
만드는 것이 과제

그러나 아직 풀어야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다. 후원금과 회비로 매달 임대료와 경비를 충당하지만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고 서울시나 구청의 마을공동체 프로젝트 등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업비가 없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도서관 고유의 자유로운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고 다른 여타의 업무가 오히려 과중되고 상근활동가의 인건비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직 보증금 등의 부채도 해결되지 않았고 후원금을 더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어떻게 하든 재정 면에서 안정적 구조를 만들어놓아야 지속적인 성장 혹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다. 도서관에 늘 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원활동가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이다보면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이 때론 도서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자주 오는 사람들끼리 너무 친하면 어쩌다 한 번 씩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은 오히려 편하게 이용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날마다 만나다



보면 서로 위로하고 가족처럼 지내다가도 서운한 일들을 겪기도 한다.

동네사랑방처럼 편하게 이용하다보니 엄마들 수다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등으로 책 읽으러 왔던 분들이 항의하기도 한다. 사실 도서관의 기능보다는 마을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동네 골목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 소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둘 다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는 운영주체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 공간의 분위기는 그 곳에 오는 이들이 만들어가는 자연스런 그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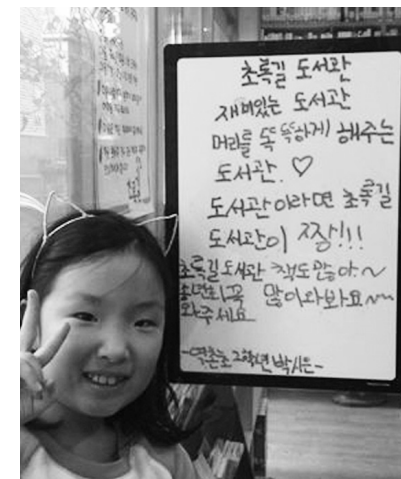
####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5년 후 초록길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10년 뒤에도 계속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도서관 바로 옆에 사는 선우와 건우, 도서관 공사할 때 엄마 뱃속에 있던 건우는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선우는 그림책방의 책들을 거의 다 보았다. 선우친구 수빈이에게도 얼마전에 남동생이 생겼는데 수빈 엄마는 산후조리 끝나자마자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타났다. 도서관 문 열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와서 만화책 읽는 녀석들은 만화책 다 읽으면 동화책 읽는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읽었던 걸 다시 읽는 지 여전히 만화삼매경이다.

앞으로 초록길도서관이 어떻게 성장할지 이 모습을 유지할지 알 순 없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채워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선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옆집엔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엄마와 함

께 골목길을 나서다 평상에 앉아계신 할머니들께 인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박지현 초록길 도서관 관장



▲ 초록길 도서관 전경과 활동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걸다  
청소년도서관 작공

2009년 여름, 꿈나무도서관을 나서는 데 도서관 앞 공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괴성을 지르는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도대체 애들은 뭐야?’하고 지나치기 하루 이틀, 인상이 찌그러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차가 왔다 가고 경찰들이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어? 그래도 이진 아니지’ 경찰들과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난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갈곳이 없니?” 여자아이들이 “네”하고 합창을 한다.

“그럼 도서관으로 와라!”

“그래도 되요?”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연락할게”

그 후 아이들은 언제부터 가도 되냐고 몇 번을 물었다. “그래, 7월2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있어보자” 처음엔 별 생각없이 한 제안이었다. 그냥 도서관에서 쉬라고, 갈 곳이 없으면 와있어도 된다는 생각에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있어 줄 4명의 자원봉사자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4명이 그 시간에 봉사를 하기로 하고 아이들에게 오라고 이야기 했다. 약속한 날,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아이 셋이 들어 왔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앓된 모습을 숨길 수 없었다. 그리고 너무도 이뻐다.

“아니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너희가 전부니?”

“아뇨, 남자 아이들도 올 거예요”

30분 지나자 남자아이 5명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아이를 선두로 어디로 끌려가는 아이들처럼 고개를 숙이고 줄줄이 들어 왔다. 아이들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오라고 한다고 와준 아이들이 기특했다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수받은 빵과 음료를 나누어 먹고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봤다.

“전 양구예요” “전 방구이고요” 한다.

아이들은 선뜻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빵으로 간신히 어색한 분위기를 극복하고 난 용기를 내어 아이들에게 물었다.

“우리 도서관에서 9시까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하고 싶은데 있니?”

“정말 9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있는거예요?” 몇번을 묻더니

“그럼..” 하면서 써내기 시작했다.

밥먹기, 숙박, 영화, 컴퓨터, 아주 서툰 글씨로 똑같이 써냈다.

“밥이 먹고 싶니?” “네”

“배가 고프니?” “네”

“영화를 보고 싶니?” “네”

“무슨영화?” “아무거나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를 찍어보는 것을 제안했다.

“그럼, 우리 맛있는 밥을 먹고 밥집을 찍으러 다니면 어떨까?”

“밥집이요?” “그래, 청소년들이 갈수 있는 맛있는 밥집, 그걸 찍는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일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싫다고 하면 어찌지?’ 하는데 한 아이가 “밥집 찍으러 다니는데 우리한테 돈 받는 거 아니죠?”한다. 나와 눈을 맞추며 묻는다. 2시간만이다. 2시간만에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쳐다본다. “아니지!!”하자 “어, 맘에 드는데...”한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 8명의 아이들이 11명이 되고 “추운데 갈곳이 없어요” 하고 찾아온 자칭 역말 아이들이라는 15명의 아이들. “우리도 재미있는 프로그램 해요” 찾아온 10명의 또 다른 아이들. 이 아이들 때문에 지금의 작공이 생겼다.

####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

꿈나무도서관은 청소년들을 품기에 공간도 협소하였고 자원봉사들도 이용자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때로 다니는 청소년들은 그 자체로도 위협적이었기에 이용자 교육을 진행해 봐도 그림책을 읽어 주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도서관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입장을 제한해야한다는 민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서관을 나가기 시작했다.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서로를 배려하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해야하는 곳이 도서관이지만 각 세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도서관이 각각의 특성을 배려한 프로그램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세대별 도서관이 필요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평생학습관, 카페 마을 등을 떠돌아 다니다 학교밖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지금의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쉽게 만나기 위해 밥집, 가출하고 날밤 샌 아이들을 위해 쉼터 그렇게 고민하다 새로운 세상을 언제나, 다양하게 매체를 통해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도서관이기에 지역주민의 기

증을 받아 도서를 구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활용, 실내를 고쳐서 도서관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처음 시를 읽고 만화도 보고,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에게 필요한 책을 추천받는다. 도서관 자원 활동을 하기 위해 여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다.

갈 곳 없고 놀 것 없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오라고 제안하면서 만나게 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 나와 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투명인간 취급하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도서관 10년 활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만나게 해준 것도 도서관이고 추운데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도 지역의 마을 도서관이다. 그래서 도서관이 동네마다 있어야 한다. 작공은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징검다리 거점공간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려 노력하고 있다. 작공에선 책과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아이들이 모여 새로운 꿈을 꾸는 ‘어찌다 공신’, 패션디자이너와 모델을 꿈꾸는 ‘패션의 완성’, 기타를 배우기시작하면서 꾸린 작공밴드, 동네에 술가들과 마음을 치유하는 ‘1시간 학교’, 학교를 떠났지만 배움을 중단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학습과 문화 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정 마을n도서관 대표



## 협동조합, 삶 속에 푸근히 녹아 있어요

사  
회  
적  
경  
제



협동조합이 튼튼하게 자라서  
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일하고  
싶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영미

## 협동조합, 삶 속에 푸근히 녹아 있어요

“애들아~! 터전 가자~”

6살, 4살 아이들을 깨우며 출근 준비에 바쁜 박하나씨는 갈현동에 위치한 소리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 조합원이다. 오늘은 둘째 아이인 예준이가 콧물이 훌쩍거리려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살림의원을 방문했다.

“예준이! 오랜만에 왔구나” 추혜인 원장이 친 조카 맞이하듯 예준이를 반겨준다. 박하나씨도 오랜만에 무영(추혜인 원장의 별명)을 보니 반갑다. 간단한 처치 후 약을 받고 저녁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은평두레생협 구산점에 들렀다. 아이들도 제각기 자기 먹을 것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어린이집과 병원, 생협

매장이 있어 무척 편하다. 구산역 사거리에 신용협동조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평일에는 갈 수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방학 때 한 번 들러 볼 계획이다”라고 말한다.

마포구에 살다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은평구로 이사온 박하나씨는 공동육아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은평두레생협을 알게 되었다. 친환경 먹거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사오면서 매장도 가까워져 자주 이용하고 있다. 아이가 등원했던 2011년에는 살림의료생협이 살림의원을 낸다는 소식에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생각에 기꺼이 출자금도 냈다. 선배조합원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합원의 출자와 활동이 조합을 끌어간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부모들이 공간을 임대하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자 직거래로 공동구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은평두레생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림의료생협, 조합원의 힘으로 일구어가는 금융기관인 은평신협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바람이 불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은평구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일구어 온 곳들이다. 공동육아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1996년 개원했으며 은평두레생협은 2004년 창립총회를 열고 은평에 뿌리를 내렸다. 살림의료생협은 2010년 창립총회를 열고 2011년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했다. 최근에는 은평신협 등 금융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도 주민 사업에 열심이다. 이외에도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구산동도서관마을협동조합 등 주민들이 직접 일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자.

## 여러 부모가 여러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은평구 첫 협동조합, 소리나는 어린이집

은평 사회적경제 조직의 첫 단추는 1996년 개원하여 17년째 갈현동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협동보육시설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나는 어린이집이다. ‘공동육아’란 부모들이 출자금을 내고 공간을 임대하여 교사를 고용하고 함께 운영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공간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일반 어린이집과는 달리 부모들이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현재 전국에 65개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은평구에는 소리나는 어린이집 한 곳이 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1996년 서울 신촌 우리어린이집에 대기했던 은평구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당시 신촌 우리어린이집에 대기를 했던 은평구 부모들은 적어도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우리어린이집’ 대기자 중에 은평구에 사는 가구는 4가구, 이 4가구는 95년 크리스마스 직후부터 96년 2월까지 2주에 한 번씩 신촌 우리어린이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평구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을 96년 하반기에 설립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자료 준비, 설립 과정에 대한 일정 짜기, 주변의 사람 모으기 등의 활발하게 진행했다. 처음 시작한 세 가구가 준비 과정의 번거로움



과 두려움으로 참여를 포기했다. 그러나 포기하기는 일렀다. 모 대학 민주동문회 회보에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 광고를 실고 몇 개 대학 민주동문회보에 조합원 모집 광고가 실리면서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8가구가 모여 1996년 2월에 공식적으로 ‘은평 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준비위’를 발족시킬 수 있었다. 가까스로 12~13가구가 모였지만 공간이 정해지지 않아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립은 지지부진해있었다. 관심을 보인 가구에게 실체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100곳이 넘는 단독주택을 알아보기

당시 준비위는 20가구 이상 모이면 터전(공동육아에서는 어린이 집을 터전이라고 부른다)을 계약하기로 했던 것을 수정하여 과감하게 모험을 감행했다. 모험이란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1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날릴 수 있음을 감수하고(1996년의 1천만 원은 지금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 일단 터전부터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3개월에 걸쳐 은평구의 100곳이 넘는 단독주택을 알아본 끝에 현재의 갈현동 터전을 찾아냈고 96년 4월, 최대한 잔금 날짜를 미뤄 8월에 내기로 하고 덜컥 계약하고 말았다. 준비위는 터전 계약과 동시에 바로 갈현동/구산동/대조동/역촌동에 배포되는 한겨레 신문에 간지 광고를 낸 후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놀랍게도 갑자기 문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한 조합원의 집에서 열렸던 당시 설명회는 20가구 넘게 참석하여 참석자 일부는 서 있어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인터넷도 없고 오로지 간지 광고를 보고 모인 당시 예비 조합원들의 열성은 현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다. 당시 자택에서 설명회를 열었던 줄

업 조합원 조수영씨(현 신나는 애프터 사서)는 “처음에 5~6가구가 함께 출자금을 내고 터전을 계약한 후 입주 날짜를 최대한 길게 잡았다. 계약은 했지만 조합원을 모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신문 광고를 내고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사무실로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 감격스러웠다”고 회상한다. 준비위는 8월초 준비된 출자금 7천여 만원과 조합원들이 융통한 3천여 만원으로 잔금을 치르고 터전 열쇠를 받았다. 열쇠를 받고 일부 조합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살지 않아 풀이 무성했던 당시의 터전을 보며 유행어이던 ‘귀곡산장’을 떠올리기도 했다. 선배조합원 최순옥씨(현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대표)는 “사람이 몇 달 동안 살고 있지 않아 잡풀이 무성했다. 현관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쓰레기도 많아 거의 폐가처럼 보였다”고 기억한다.

주말마다 시설 보수 작업이 한창이던 시절, 마당 한 가운데 있었던 화단을 분해하고 연못을 메우고 중간 중간 심어져 있던 나무를 뽑았다. 나무를 뽑아내는 데에만 성인 남자 두 사람이 2~3시간이 꼬박 걸렸다. 페인트칠, 잔디 걷어내기 등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터전은 점점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교사와 조합원이 처음 만나 회의하던 날 3만원의 경품을 걸고 터전의 이름이 공모에 붙여졌고 당시 원장이 제안한 ‘소리나는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지지로 은평공동육아



▲ 터전 마당을 메우고 정돈하고 있는 소리나는 어린이집 초창기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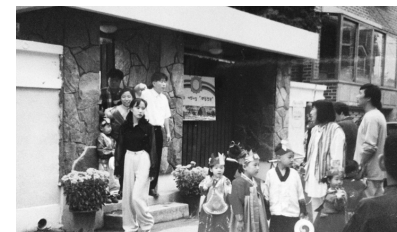


▲ 소리나는 어린이집 부모들은 주말마다 터전에 모여 직접 마당을 만들었다.

협동조합의 이름이 되었다. 원장이 채용되면서 벽지, 온돌, 장판 등 내부 공사와 그네, 자갈, 모래, 쓰레기 치우기(트럭 5대분) 등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때 쓰인 비용이 애초 계획보다 많이 쓰여져 이후 조합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했다.

#### 나들이와 친환경 먹거리로 건강한 아이들

각고의 노력 끝에 1996년 9월 1일,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29가구, 34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다. 9월 1일부터 교사들이 오리엔테이션/실내 가꾸기가 시작되었고 이 일주일간 아이들은 다은이네(최순옥 현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대표)서 지냈다. 당시 학원에서 아이들 글쓰기를 가르쳤던 최순옥 대표는 학원 일정을 조정하여 아이들을 돌보았으며 교사들이 최순옥 대표의 집에서 등원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았다. 마침내 9월 8일부터 아이들은 정식으로 등원했고 조합원들은 이사장의 도포 자락이 인상 깊게 남은 고사로 개원잔치를 진행했다. 장장 9개월간의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설립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전국 65개 조합 중 6번째로 개원했으며 가장 단시간 준비해 개원한 공동육아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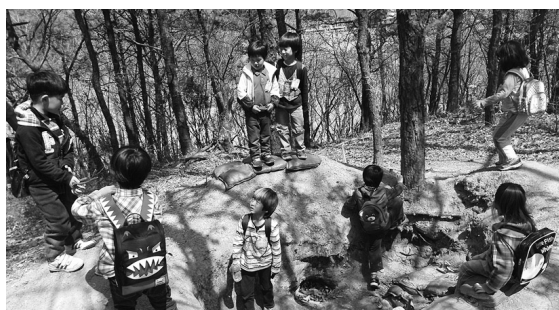


▲ 소리나는 어린이집 개원잔치, 전국 65개 조합 중 6번째로 개원했다.(1996년)

집으로 기록에 남았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대안적 교육 방식을 제시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개원한 후 조합 홍보를 위한 입학설명회를 열기도 하고 터전을 개방하기도 했다. 1998년에는 송추농원에서 아빠캠핑을 진행하거나 초등학교 방학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터전으로 초청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조합원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연대 차원의 활동도 줄어들게 되었다. 이후 어린이집 안에서 조합원끼리 친목을 다지는 형태로 조합을 이어왔다. 2000년대 초반은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사업을 하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행사를 기획하는 등 단체 간의 연대의 기지개를 펴는 시점이었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은평두레생협, 터울림, 생태보전시민모임 등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단체들은 2004년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 은지네)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연대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은 이 과정에서 주체가 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기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등원하는 부모들이 100%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아이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외에 지역 사회 연대 활동에 힘을 쏟을 만한 여력이 많지 않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구성원이 모두 바뀌는 이사회도 지역사업의 연속성을 갖기는 어려웠다. 또 아이를 키우는 3~4년 동안 머무르다가 타 지역으로 떠나는 부모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소리나는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연대 활동이 다소 활발해졌다. 2011년부터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자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상상축제, 골목축제, 각 생협 총회 돌봄, 지역 영유아부모 대상 부모 커뮤니티 사업 등 이전과 비교하여 무척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어린이날 열리는 '상상축제'에 축제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상상축제'와 함께 갈현동 길마공원길에서 열린 '골목축제'에 참여하여 터전을 개방하고 '주민과 함께 벽화그리기 사업'을 진행했다. 가을에는 소리나는 어린이집 교육소위에서 은평구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은지야 마실가자'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2013년 3월에는 살림의료생협과 은평두레생협 총회에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했으며 상상축제, 골목축제는 물론 '은지야 마실가자 2'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활동 덕분에 2013년 10월 열린 입학설명회에 영유아 부모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 소리나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갈현동에 자리한 앵봉산 나들이를 하고 있다.



▲ 와글와글골목상상축제에서 갈현동 주민들과 벽화를 그리는 모습(2012년)



▲ 어린이잔치한마당에 참여한 소리나는 어린이집 부모들과 아이들(2011년)

은평두레생협에서 공급하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100% 이용하는 것이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특징이다. 요사이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일반 어린이집이 늘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100% 유기농으로 먹이는 어린이집은 매우 드물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더라도 전체 먹거리 중 몇 %나 사용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소리나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유기농 식재료를 100% 사용하고 인공 조미료나 인스턴트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먹는 가공식품에도 식품첨가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생협 제품을 이용한다.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재료로 직접 정성 들여 만든 우리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휴지나, 비닐, 비누, 치약까지 생협 제품을 이용하는 곳이 공동육아이다.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 빙과류 등은 먹이지 않는다. 김치는 아이들, 부모들과 함께 담그고 고추장, 된장도 교사, 부모들과 담근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음식을 식단에 반영하여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든다. 은평구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은평두레생협은 소리나는 어린이집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먹거리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 싹을 틔웠다.

## 은평에도 생활협동조합이 필요해요

1990년대 후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 지역생협, 단체생협이 서서히 출범하고 있었다. 당시 은평에는 생활협동조합이 없었다. 소리나는 어린이집 설립 당시 초기에는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홍기원 도봉문화원 사무총장(소리나는 어린이집 초창기 조합원, 은평두레생협 초대 이사장)은 전한다. “개원 당시만 해도 아이들에게 제철에 거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였다. 그러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생활협동조합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받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 공동구매로 시작한 생활재 공급

소리나는 어린이집 조합원들은 당시 신촌 우리 어린이집에 생활재(생협은 상품을 생활재라고 부른다)를 공급하고 있던 새터생협에 연락,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어린이집만 주문하면 주문량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에 부모조합원들도 함께 주문하여 받아 터전에서 생활재를 나누어 각자 집으로 가져가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새터생협이 은평에 먹거리를 공급하면서 소리나는 어린이집 부모조합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조합원이 늘어가면서 ‘공동구매’에서 집집마다 배송하는 ‘개별공급’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 새터생협이 은평 공급을 시작하고 조합원은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해 2003년까지 조합원은 70여 가구로 늘어났다. 2003년, 서대문과 마포, 은평에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하던 새터생협은 경영 악화로 인해 해산이 결정되었다. 은평구 조합원들은 은평구 주민들이 만드는 독자적인 생활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조합원 수도 많지 않고 상근 직원도 없고 재정 기반도 튼실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은평구에 생활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었다. 은평구에서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던 열린사회은평시민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소리나는 어린이집의 회원들과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생협을 만들자는 분위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03년 7월 14일 은평두레생협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유환옥(소리나는어린이집OB대표), 한선모(작은 소리 학교 대표), 최순옥(열린사회은평시민회 사무국장), 정필호(소리나는 장흥 지역 대표), 홍기원(소리나는 방과후 대표), 박관수(상근자), 전미숙(반상근자) 씨가 참여하여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준비위원회는 결성과 함께 한 달에 1회 조합원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배 생산지 견학, 먹거리 강좌 개최, 더불어 식품 생산지 견학, 오창 딸기 체험, 경복궁 역사기행 등을 진행했다. 드디어 2004년 4월 24일 갈현동 새마을금고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홍기원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생협 출범을 반긴 은평구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금새 조합원은 150여 가구로 늘어났다. 당시 이사진으로는 김채경, 김혜남, 박관수, 이덕희, 이은숙, 유환옥, 좌수일, 전양수, 최순옥, 홍기원, 홍숙원씨가 참여했다. 참여했다. 전미숙씨가 초기 간사를 맡았고 새터생협에서 은평구 공급을 담당한 박관수씨가 공급지기를 맡았다.



이어 은평두레생협은 2004년 12월 11일 갈현초등학교 3층 열람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원 150여 가구와 함께 은평두레생협의 역사적인 첫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매장도 없고 사무실도 없었지만 은평에 생협이 있어 행복한 시절이었다.



▲ 은평두레생협 창립총회 전경(2004년)



어렵고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지금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았다. 생활협동조합을 삶의 일부가 아닌 운동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조합원도 많아 조합원으로 가입하고도 생활재는 구매하지 않는 조합원도 있었다. 생활협동조합이 지역에 정착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게다가 새터생협을 이어받아 은평두레생협을 출범시키고 보니 누적적자가 4천여 만원이나 쌓여있었다. 관리 부실과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다시 생협을 만드는 일도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모험이었다. 당시 이사들은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조직 위에서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여 적자를 받아들였다. 어려운 형편대로 유환옥 이사가

운영하던 갈현동에 위치한 출판사 '백의' 사무실 한 칸에 자리를 잡고 주문 전화를 받고 조합원 각 가정에 생활재를 공급했다. 그런데 '백의' 출판사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은평두레생협은 2007년부터 은평시민신문, 은평시민넷과 녹번동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 상태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고 은평두레생협은 기로에 서 있었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다. 당시 은지네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던 은평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체별로 한 명씩 은평두레생협 이사를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단체들이 생협을 지역 연대 차원에서 함께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이사회와 조합원들은 은평에 생협 매장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렸다. 인터넷과 전화 주문을 통한 공급을 통해서만 조합원이 대폭 늘어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협동조합 운동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도 약했다. 당시 이사였던 윤건 이사가 상임 이사를 맡아 매장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조합원 500여 가구가 은평두레생협의 희망이었다.

은평시민신문 2004. 12. 13일자 기사

###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 정식 법인 창립 조합원 151명 참여 ... 발기인 대표 홍기원씨 초대 이사장 선출

우리구에도 드디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생활협동조합이 정식 법인으로 창립됐다. 지난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갈현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은평두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창립총회에는 토요일 오후 시간임에도 조합원 76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우편발

송으로 확인한 결의동의서와 위임을 통해 총 151명의 조합원이 의사를 밝혔다.

제1부 기념식은 최순옥 발기인회 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기인 대표인 홍기원씨는 “도시 생활에서 고향의 정서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푸근하고 사람냄새 풍기는 고향을 은평에서 만들고 싶다. 건강한 먹거리 공동 구입 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조합원들이 수입 농산물과 쌀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른 농사를 짓는 생산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생산지 체험과 만남의 장이 생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조합원의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성남 생협 수도권협회 이사겸 ‘땅을 지키는 모임 생협(관악)’ 이사장은 창립총회 축사를 통해 “물질위주의 성장으로 이전보다 생활이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각종 자연오염으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이 만들어진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합하자.”며 감회를 털어놴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생협 전국연합회 사무총장은 “은평두레가 새터생협일 당시부터 고난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민성환 생태보전 시민모임의 사무국장은 “10명 중 7명의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 9개월된 딸아이라도 아토피

피를 앓아 먹거리를 모두 유기농으로 바꾸었다. 아토피의 주범이 먹거리 오염과 생활환경의 오염이라고 한다. 비록 내 아이와 자신을 위해 유기농 먹거리 구입을 시작했더라도 지역의 다른 현안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여럿이 함께 은평을 좋은 고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2부에서 진행된 임의단체 은평두레 생협 해산총회에서는 1996년 새터생협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지역에서 유기농 먹거리 공급기능을 해 왔고 2003년 11월 조합명을 개명한 임의단체인 은평두레생활협동조합의 지금까지의 조합원의 자산, 부채 및 자본 일체를 양도 하는 해산 결의를 했다.

3부 창립총회에서는 은평두레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정관과 규약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후 초대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초대임원은 그간 발기인회 간사로 활동한 홍기원, 전양수, 최순옥, 좌수일, 박관수, 유환옥 조합원이 선출되었다. 또한 역촌동 김채경, 신사동 이덕희, 응암동 김혜남, 갈현동 홍숙원, 이은숙 조합원이 지역별로 조합원과 긴밀한 관계에서 활동할 대표들로 2차 발기인회에서 이사회후보로 추천되어 모두 정식 이사로 선출했다.

선출된 이사 중 홍기원 조합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감사에는 이노원, 최희정 조합원을 선출했다. 이로써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특별법에 의해 정식 법인으로 창립되었다. 공식일정을 마친 후 뒷풀이에서는 유기농 먹거리로 만든 김밥, 떡, 과자와 유기농 과일, 달걀 등을 나눠 먹으며 조합원들의 담소가 이어졌다.

#### 은평두레생협 창립하기까지

- 1996년 2월 새터생협 시작.
- 2003년 7월 새터생협 해산 결정. 은평에 생협을 만들자는 움직임
- 2003년 7월 14일 은평두레생협 준비위원회 결성. 2주에 1회 회의 진행
- 2003년 10월 배 생산지 '양평 미디안 농산' 견학
- 2003년 11월 '다음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강사와 함께 먹거리 강좌 진행
- 2003년 12월 더불어 식품 생산지 견학
- 2004년 2월 딸기, 토마토 생산지(충북 오창) 견학 및 대보름 행사
- 2004년 3월 경복궁 역사기행
- 2004년 4월 24일 은평두레생협 발기인대회(갈현동 새마을 금고)
- 2004년 12월 11일 은평두레생협 창립총회 개최

돈도 사람도 조직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1억 원이 넘게 드는 매장을 내는 데에는 결단이 필요했다. 은평두레생협 이사회는 두레생협 연합회와 연대하고 조합원들에게 매장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은평두레생협의 매장 설립 소식을 지역에 알려내고 주민들과 조합원의 관심을 끌어내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10만원 출자 증액 운동'을 진행, 2천여 만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조합원 이외에도 두레생협연합회와 인근 마포두레생협, 바른두레생협(안양)에서 수천만 원을 출자했으며 생산지인 맛나식품 등에서 출자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구산역 인근을 중심으로 첫 매장 개점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당시 이사회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해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는 은평뉴타운에 매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은평두레생협을 지켜온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갈현동, 구산동 등지에 매장을 개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오랜 논의 끝에 구산역 인근에 첫 매장을 계약하였다.

드디어 2009년 6월 19일 은평두레생협 구산점이 문을 열었다. 풍물패 터울림이 뿡과리 소리로 시작된 개장 행사는 생협전국연합회 권순실 대표, 마포두레생협 이경란 이사장, 친환경 전국연합 신석호 본부장 등 외부들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은평시민넷,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민주노동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등 지역 인사들도 참가하여 개장을 축하했다. 구산점 개점 이후 은평두레생협 조합원은 꾸준히 늘었으며 2013년 초에는 2천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첫 매장 구산점 인근 조합원이 매장 설립 당시 100여명이었던 반면 2013년에는 1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은평두레생협 이사회는 사무국과 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두번째 매장을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응암역 인근에 두번째 매장으로 물색했다. 2회의 조합원 공청회와 좋은 자리를 알아보기까지 3개월 2013년 5월 드디어 두번째 매장을 개점했다. 응암역점 개점 이후 석 달 동안 은평두레생협 조합원은 600여명이 늘어났고 2013년 말 현재 전체 조합원은 3천명을 넘어섰다. 이후 은평두레생협은 불광역 옛 국립보건의원 자리에 들어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편의점형 미니매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은평두레생협

은평두레생협은 창립 이후 10년 동안 3개의 매장을 개점했으며 조합원은 무려 6배가 늘어났다. 생활재 공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합원과 생산자를 연결하는 활동이 그것이다. 현재 1년에 4회 이상 방문하여 생산지 견학, 체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은평두레생협 생산지 견학을 통해 아이들은 먹거리가 마트에서 ‘뚝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땀흘려 거둔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생협 생활재 가격은 연초에 가격을 정하여 일년 내내 거의 변함없이 조합원에 공급된다. 시중 가격이 폭등할 경우 상대적으로 생협 생활재 가격이 더 저렴해진다.

이때 생산자는 시중에 출하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는 안전한 생활재를 공급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공급하는 먹거리를 책임지고 소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은평두레생협은 생활재위원회, 교육위원회, 홍보위원회, 매장위원회 등 조합원이 참여하는 자치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강의, 친환경 다이어트, 은평협동조합마을학교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천연화장품 만들기, 요리소모임, 조각보 만들기 등 소모임에 참여하는 조합원도 많다.

은평두레생협은 다양한 조합원 활동 외에도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역 연대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북한산 케이블반대은평시민연대, 학교급식위원회,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은평구 주민 축제인 상상축제(봄), 누리축제(가을)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은평구 안의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협동을 실현하고 있다.

은평두레생협은 은평신협, 살림의료생협이 함께 ‘은평협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여 협동조합학교, 영화 상영,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또 서부장애인복지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새로 개점한 응암역점에서 저소득 장애우 가족에게 매주 친환경 과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갈현동 청소년 공간 ‘작공’에 매월 쌀 10kg를 지원하고 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 조직 중 빠질 수 없는 곳은 바로 살림의료생협이다. 은평두레생협이 먹거리를 책임진다면 살림의료생협은 건강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병원 ‘살림의원’을 만든 ‘살림의료생협’이 은평에서 출범하면서 은평시민사회에 새 바람을 몰고 왔다.



▲ 은평두레생협에서 생산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 식품안전강사교육 전경(2013년)

▼ 은평두레생협은 응암역점 인근에 두 번째 매장을 개점했다. 사진은 개점행사 장면.(2013년)



## 주민 모두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살림의료생협의 탄생

의료생협은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원주, 대전, 서울, 안산, 인천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의료생협은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영리 병원에 반대하며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 의료 체계의 확립 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통한 이윤 추구보다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주민과 조합원이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 살림의 첫 단추, 무영과 어라의 만남

은평구에서 출범한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살림의료생협)은 2009년 1월 여성주의 의료생협 준비모임을 시작으로 2012년 2월 11일에 창립되었다. 살림의료생협은 추혜인(별명 무영, 현 살림의원 원장) 원장과 활동가 유여원(별명 어라, 살림의료생협 전 사무국장)의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둘은 대학 선후배로 언니네트워크라는 여성주의문화단체에서 만났다. 의과대학에 다니던 무영은 여성주의 병원 설립에 관심이 있었고 어라는 행복한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다. 둘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의 남미여행에서 서로가 어떤 특

성을 갖고 있으며 함께 꿀 수 있는 꿈은 무엇이며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여행에서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고 한다. 무영과 어라는 2008년 12월에 한국의료생협연대를 방문해 박봉희 사무총장(한국의료사회협연합회 부설 교육센터장)을 만난다. 이때 무영은 의료생협 진료에 적합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제안받는다. 어라는 한국의료생협연대의 추천으로 서울 노원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에 취직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영과 어라는 의료생협 의료진과 사무국의 역할 모델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처음에 여성주의 의료생협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던 무영과 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모임으로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의사나 의대생, 여성주의자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첫 단추 세미나’, ‘바짝 세미나’ 등 공부모임을 진행했다. 1년이 넘게 진행된 공부 모임에서 사무실을 구해 좀 더 안정적인 활동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은평구에는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 온 고 박영숙 선생님이 만든 ‘살림이 재단’이 있어 재정이 어려운 여성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사무실 공간을 임대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은평구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어라는 여성주의 의료생협 준비모임과 한국의료생협 연대 양쪽을 오가며 반상근을 했다.

준비모임은 의료생협을 고민하면서 단체생협과 지역생협 사이에서 고민했다. 지역생협으로 방향을 잡고 은평구에 들어왔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 2010년 3월에 살림이재단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은평구에 시민사회단체가 많고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연대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무실

입주 후 최순옥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대표, 강양숙 현 신나는애프터 총괄부장 등 다양한 은평지역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모두 지역사회에 의료생협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보여주었다. 최순옥 대표는 여성주의 의료생협 준비모임이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준비모임 활동가들도 조금씩 친분을 쌓아갔다.

2010년 한국의료생협연대 구성원들과 일본 미나미 의료생협을 방문한 무영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생협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 자체가 여성주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무영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일본 방문기를 만든 자료에는 미나미 지역에서 마을 노인들을 위해 그룹홈을 건설하는 과정을 담았는데 이 사례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생협이 꼭 필요한 이유를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주의 의료생협 준비모임은 당시 은평구청의 '주치의 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 사업 위탁을 위해 '건강마을 살림'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었고 2011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준비모임은 사업 시작과 함께 3월에 의료생협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 정식 명칭은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정했다. 발기인들의 주요 구성원 30명은 준비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로 여성주의자와 지역활동가가 반반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모두에게 의료생협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발기인들이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된 중요한 교육이었다. '은평구민건강역량강화사업'은 지역 건강 조사사업, 건강 교육 사업,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3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고 이 사업은 지역의 활동가와 준비모임의 여성주의 활동가들이 서로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 중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강실천단' 활동은 건강은 약이나 의사에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

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의료생협다운 모델로 정착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건강실천단 활동 6주 동안 건강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공동체 활동의 주요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의료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살림의료생협이 병원이 개원하기 전에 부족한 사업자금과 활동범위의 제약을 극복하는 사업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 살림의원 개원식(2012년)

가정의학과 '살림의원'  
드디어 개원

2012년 2월 11일에 열린 살림의료생협 창립총회는 조합원들에게 축제로 거듭났다. 전 조합원이 주인이 되어 즐거운 행사가 되도록 했다. 한 명이라도 참여해 조금이라도 역할을 나누도록 했다. 창립 총회 이후 살림의료생협은 다양한 분과의 위원회와 조합원 활동 모임을 만들어 다각적으로 활동했다. 창립총회 후 살림의료생협은 가정의학과를 개원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에게 모



두의 병원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출자금을 모으고 조합원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을 준비하기 위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원예별레(열린회의) 모임을 만들고 조합원들이 병원 인테리어 업체 선정, 비급여 진료수가 산정, 병원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선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원은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초하는 데 출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 중요하다. 살림의료생협은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거치면서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했다. 개원을 위한 출자 캠페인도 이를 위한 노력의 한 방안이었다. 살림의료생협은 개별조합원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10만원에서 3천만 원까지 출자금 증자운동 계획을 실천했다. 창립총회에서 제출된 출자금 조성 계획은 2억 17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출자 캠페인을 통해서 2억 4천만 원 가량의 출자금이 모아졌다. 출자 캠페인에는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2013년 12월 현재 살림의료생협의 총 출자금은 4억 5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살림의료생협이 은평에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 은지네)와의 관계 맺기에서 시작하였다. 은지네는 살림의료생협의 설립을 두팔 벌려 환영했지만 지역 운동의 바쁜 실무 활동 속에서 새로운 단체가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평의 지역 활동가들은 살림의료생협의 이사회, 소모임에 직접 참여하면서 조합원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었다. 살림의료생협은 걷기, 등산, 반찬, 일본어, 방송댄스 등 10여개의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조합원의 욕구를 실현하였다. 소식지가 나오면 소모임에서 함께 읽

고 조합에 피드백을 준다는 소모임 운영 규정을 두어 조합과의 관계를 두터이 하였다. 살림의료생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구성원인 비혼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비혼 여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지역 커뮤니티는 주로 주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비혼 여성들은 나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으나,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활동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그런데 살림의료생협이 생기면서 많은 비혼 여성들이 은평으로 이주(?)했다. 비혼 여성과 기혼 여성은 일상에서 서로에게 공감할 기회가 적지만 살림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살림의원 개원 첫 주 조합원들과 함께



▲ 살림의원 최고령 조합원 가족과 함께



▲ 살림의원 직원들

노후 걱정없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개원한 지 1년이 훌쩍 지난 살림의원은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다. 환자들은 가족 단위로 의원을 방문한다. ‘우리 가족 주치의’인 셈이다. 남성에게는 탈모클리닉이 인기가 있다. 아이들을 찬찬히 잘 본다는 소문에 비교적 거리가 먼 불광동에서도 아이 엄마들이 찾아온다. 조합원들은 독감 주사나 각종 영양제를 맞을 때 진료비의 10% 정도 건강지원비를 받는 것 외에 특별한 혜택은 없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 낮은 진료비로 혜택을 받기 보다는 우리 동네에 ‘지속 가능한 병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생협에서는 산행 모임, 텃밭 가꾸기 모임, 스페인어 배우기 모임, 밑반찬 만들기 모임 등 조합원들이 만든 소모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함께 모여 운동하는 ‘건강실천단’은 벌써 5기가 진행되었으며 이 모임에서 함께 하는 ‘득근 체조’는 각종 행사에서 섭외를 받을 만큼 인기가 많다.

살림의료생협은 사업을 활성화하고 조합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두번째 도전을 감행했다. 55평의 조합원 공간 우리마을건강활력소 ‘다짐’을 만들고 살림비를 신설한 것이다. ‘다짐’은 살림의원 인근에 마련한 조합원을 위한 공간으로서, 운동·교육공간과 조합원 모임방,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림비는 매월 1만원 이상의 조합비를 신규로 납부하거나 매월 증좌하는 출자금의 절반을 조합비로 납부하는 것이다. ‘살림의원’과 ‘다짐’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열정으로 꾸준히 순항 중이다. 2013년 말 현재 살림의료생협 조합원은 1,260여명이다. 치과와 검진센터도 5년 안에 세워보려 한다. 살림의료생협이 협동조합을 통

해서 실현하고 싶은 꿈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민간의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 살림의료생협은 55평의 조합원 공간 우리마을건강활력소 '다짐'을 만들었다.(2013년)



▲ 살림의료생협의 활발한 조합원 활동

## 조합원이 함께 만들고 일구는 은평구 협동조합

은평구에는 위에서 설명한 협동조합 외에도 자생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 2013년 4월에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은 은평구의 단체, 주민들이 출자금을 모아 지역의 공공 건물과 아파트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99명의 조합원이 설립에 참여했으며 임기 2년의 초대 임원진은 고성진 은평녹색당 당원, 민성환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대표, 박지현 초록길도서관 관장, 변은경 중증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들레울 사회복지사, 부미경 은평시민신문 전 발행인, 안효상 성공회대 외래교수, 윤전우 두꺼비하우징 마을만들기 팀장,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대표, 최승국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이상 이사) 김명화 진보신당 은평당협 운영위원, 선영숙 은평두레생협 이사(이상 감사) 등으로 구성됐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민성환 대표가 선출됐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마을엔, 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두레생협, 은학네, 북콘서트 등이 참여한 구산동도서관마을협동조합도 준비 중이다. 아이,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 학습터를 꿈꾸는 구산동도서관마을협동조합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마을학교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은평구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이 존재한다.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의 혁신모델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

직인 사단법인 ‘씨즈’가 있다. ‘씨즈’는 특화사업단의 대표기관으로 은평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기업인 (주)두꺼비하우징은 주거재생 클러스터의 기획과 추진, 공정건축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 개발, 청년주거협동조합 지원, 공동체 주거 포럼, 건축 학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관련 협의제도 있다. 은평구 관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협의체인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관내 복지기관 및 일반 시민이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전,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은평두레생협, 살림의료생협, 은평신협 등 지역 기반으로 오래 동안 활동해 온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 기반 협동조합협의체인 은평협동조합협의회는 협동조합 사업모델개발 및 운영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사)은평상상은 풀뿌리 지역 시민사회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 역량강화, 시민세력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역 활동을 펼치는 마을법인이다. 마을과 청년의 교류, 지역 전략 분야 개발, 사회적경제허브 조성 등을 함께 하고 있다.

## 협동조합간 연대 사업 활발

은평구의 협동조합들은 독자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함께 ‘협동조합협의회’를 만들어 협동조합의 가치를 전하는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가을에는 은평두레생협과 살림의료생협 은평신용협동조합이 함께 협동조합학교를 열었다. 8강으로 진행된 협동조합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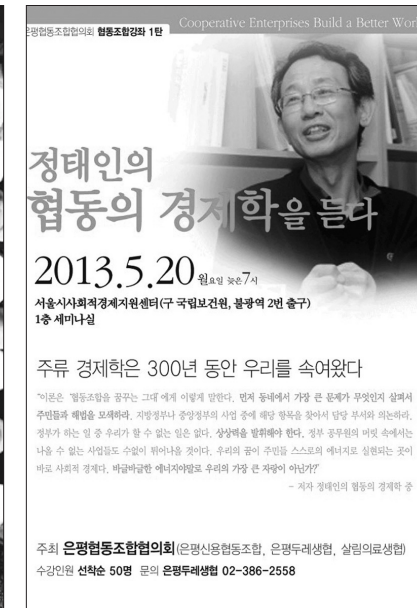


매번 100명에 가까운 은평구 주민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 주기도 했다. 이들 세 협동조합은 협의회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2012년 12월에 '은평협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김상백 은평신협 이사장이 은평협동조합협의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으며 선영숙 은평두레생협 상무이사가 사무국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은평협동조합협의회는 첫 사업으로 2013년 5월, 은평구 주민과 각 협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태인 교수를 초빙하여 '협동의 경제학을 듣는다'를 진행했으며 이어 6월에는 협동조합 관련 영화인 '위캔두잇'을 상영하여 은평구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8월부터 10월까지 두번째 '협동조합마을학교'를 열어 40명이 넘는 주민들이 마을학교를 수강하기도 했다. 11월에 열린 협동조합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나는 협동조합 직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뤄진 마을살이 강의도 직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은평협동조합협의회는 은평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협동조합협의회에는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과 은평공동육아협동조합도 참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보았듯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요구를 경제로 풀어낸 자생적인 주민 조직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이자, 조합의 이용자이자, 책임 있는 경영자이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이 주민들의 자치적인 조직이자 공동의 필요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로 작동하게 해 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은평구의 협동조합들은 은평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욱 더 매진할 것이다.



▲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상영한 영화 '위캔두잇' (2013년)



▲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정태인씨가 강연한 '협동의 경제학'(2013년)



▲ 살림의료생협과 은평두레생협은 조합원간 서비스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2012년)

##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마을을 꿈꾸며

은평이  
아름다운 이유!

은평은 아름다운 동네이다. 우선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북한산을 필두로 하여 이말산, 봉산, 백련산, 비단산 등 이름마저 아름다운 산들이 많다.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름답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연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환경과의 끊임없는 조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활양식의 총화를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한 마을의 문화

##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마을을 꿈꾸며



사람, 새, 꽃, 나무, 우리... 모두 자연입니다!

민성환

가 갖는 특징은 많은 부분, 자연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은평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의 자연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자연처럼 스스로(自) 그러하지(然) 못하다. 은평의 자연환경도 예외일 수 없다. 끝없는 팽창과 성장, 욕망 충족을 본능으로 하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자연환경보전은 사람들의 필사적인 보전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은평도 마찬가지이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은평의 자연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활동에 관한 기록이다. 전적으로 필자의 기억과 많지 않은 기록물에 의거한 서술이라 일부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은평의 환경보전사와 관련해 우리가 기억하고 공유해야 할 주요한 사건과 활동은 큰 무리 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 은평에는 북한산과 불광천이 있다!

은평구는 전체 면적이 약 29.69km<sup>2</sup>이다. 동에서 서쪽으로 5km를 걸어가고 다시 남쪽으로 6km를 가면, 그 면적만큼이 은평구 땅이다. 이렇게 넓지 않은 면적에서 나무와 풀이 차지하는 땅인 녹지공간은 얼마나 될까? 대략 15.86km<sup>2</sup>이다. 전체 면적의 약 절반(53.4%)을 녹지공간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 녹지면적으로는 가장 넓고, 비율로는 강북구(60.8%) 다음으로 높다. 서울시 전체 녹지율이 약 28% 정도 되니까 은평구는 녹지가 굉장히 풍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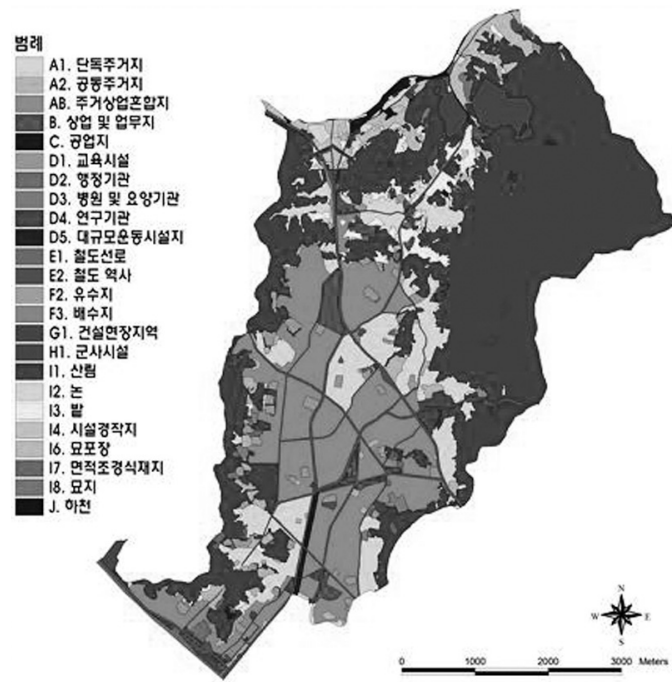
곳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우선 북한산국립공원이 특별하다. 은평구 전체 면적에서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1.8%다. 녹지 면적으로만 보면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자그마치 64.39%로 절대적이다. 실제로 북한산을 제외하면 은평구의 녹지면적 비율은 17.8%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은평구하면 북한산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하지만 은평구에 북한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봉산, 백련산, 이말산, 비단산 등 마을 주변에도 조그마한 산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런 산들이 나머지 녹지공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 산들 사이로 자그마한 계곡과 개울물이 흘렀을 것이고 이런 물들은 작은 하천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작은 하천은 좀 더 큰 하천을 만들고 그 물들은 결국 한강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은평구를 대표적인 하천으로는 불광천과 창릉천이 있다. 예전 기록에 보면 녹번천도 찾아볼 수 있다. 녹번천은 복개된 지 오래되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인데 은평구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진관동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고양시에 속해 있어 은평구의 하천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은평구민들도 창릉천을 은평의 하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은평을 대표하는 하천은 자연스럽게 불광천이 될 수 밖에. 불광천도 상류지역은 오래 전에 복개된 상태여서 물길을 확인하는 게 어렵고 그나마 응암역 부근에서부터 물길을 만날 수 있다.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봉산과 백련산 사이의 분지를 흘러가다 아래쪽에서 홍제천과 만나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불광천은 북한산과 함께 은평구의 자연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은평구는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특징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한산과 산림형 녹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반면, 구민이 거주하는 생활권에는 녹지가 매우 부족하다.[그림 1]. 인구 50만명 이상이 살아가는 자치구에 평지에 조성된 공원이라고는 ‘은평평화의공원’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다. 은평구의 현실이다. 구)국립보건원이 일부라도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하는 이유이다. 주변의 북한산과 연계되어 정원처럼 예쁜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안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은평구민도 더불어 삶이 여유롭고 행복해질 것 같다.



[그림 1] 은평구 비오톱 현황도 (출처: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 비오톱 : 공간적 경계를 가지는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공간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면적 현황(2012년 1월 1일 기준 / 출처 : 2012년 환경백서)

구분	행정구역 면적 (km <sup>2</sup> )	인구 (명)	공원수 (개소)	공원면적 (km <sup>2</sup> )	공원율 (%)	1인당 공원면적(km <sup>2</sup> )
합계	605.21	10,528,774	2,643	170.00	28.09	16.15
계	605.21	10,528,774	2,642	160.87	26.58	15.28
종로구	23.91	177,419	102	10.90	45.59	61.43
중 구	9.96	141,567	68	3.13	31.42	22.11
용산구	21.87	259,288	80	1.35	6.19	5.22
성동구	16.85	308,767	81	2.96	17.54	9.57
광진구	17.06	386,673	55	3.40	19.90	8.78
동대문구	14.20	378,534	105	1.24	8.71	3.27
종랑구	18.50	428,672	95	5.24	28.34	12.23
성북구	24.57	494,422	128	8.17	33.24	16.52
강북구	23.60	348,740	71	14.34	60.77	41.12
도봉구	20.70	367,949	74	10.51	50.75	28.55
노원구	35.44	608,062	146	14.13	39.86	23.23
은평구	29.69	498,350	130	15.86	53.40	31.82
서대문구	17.60	324,529	124	5.58	31.69	17.19
마포구	23.84	398,627	132	5.08	21.23	12.75
양천구	17.40	505,605	116	2.87	16.46	5.67
강서구	41.43	575,846	162	4.00	9.67	6.95
구로구	20.12	458,908	97	3.19	15.84	6.94
금천구	13.00	264,256	51	2.19	16.84	8.29
영등포구	24.57	439,555	122	2.19	8.91	4.98
동작구	16.35	413,658	74	4.57	27.93	11.04
관악구	29.57	546,350	108	10.97	37.11	20.09
서초구	47.00	439,012	130	15.82	33.66	36.04
강남구	39.51	573,003	134	5.67	14.35	9.90
송파구	33.88	690,466	144	4.72	13.93	6.83
강동구	24.59	500,516	113	2.82	11.45	5.62
서울대공원	-	-	1	9.13	-	-

## 생태보전시민모임, 은평에 자리를 틀다!

은평에는 환경관련 단체가 많지 않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자치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풀뿌리 환경NGO가 적은 편이다. 서울의 전반적인 상황이지만 은평은 더욱 그러한 것 같다. 그런 은평에 생태보전시민모임이라는 생태환경NGO가 창립총회를 열고 구파발역 근처에 사무실을 열게 된다. 그때가 1997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이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현재 필자가 일하고 있는 단체이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상 만들기'를 임무로 하는 생태환경전문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도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적 가치를 확산하는 생태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구파발역에서 나와 앵봉산으로 올라가는 언덕배기쯤에 자리한 물푸레골이라는 마을이었다. 물푸레골 옆 골짜기에도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은 방아뚫골이었다. 지금의 탐골생태공원과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자리가 물푸레골, 방아뚫골이었다고 보면 된다. 마을 이름이 정감어리다.

물푸레골은 마을 뒷산에 물푸레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한다. 물푸레나무는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는 키 큰 나무로 어린가지를 꺾어 물에 담그면 물이 파랗게 물든다고 해서 '물을 푸르게 만드는 나무', '물푸레나무'라는 이름을 얻었다. 습한 지역에 잘 자라고 나무가 단단해 방망이라든지 마차 바퀴 등을 만드는 데 요긴하게 쓰였던 나무

이다. 물푸레나무가 많았던 것을 보면 이 계곡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나무가 살기에 좋은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방아뚫골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그때 동네분들 말씀으로는 예전에 방앗간이 있어서 방아뚫골이라고 했다 한다. 골은 골짜기를 나타내는 우리말이다. 이렇게 정겨운 이름을 가진 마을이 10여 년 전만 해도 구파발역 근처에 있었다. 은평뉴타운 개발 전 구파발동, 진관외동, 진관내동으로 구분되었던 행정구역은 지금 진관동으로 통폐합되었고 물푸레골, 방아뚫골도 도시에서 추방당했다.

그때는 박석고개를 경계로 연신내와 구파발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 공간이었다. 같은 은평구인데 연신내를 지나 박석고개를 넘어 구파발로 들어설 때마다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곤 했다. 기후마저도 달라 여름과 겨울이면 박석고개를 경계로 체감기온이 2~3도 차이가 났다. 실제로 봄이면 꽃피는 시기가 거의 1주일 이상 차이가 났었다. 연신내나 역촌동에서 목련꽃이 한창 피었다 시들해질 때가 되어서야 구파발 목련은 꽃피기 시작했다. 지금도 그런 기온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예전보단 덜하다. 기상청이 2007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은평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온도와 습도를 관측한 결과를 보니 연평균 기온이 최대 1.4℃ 오르고 습도는 6% 가까이 떨어졌다고 한다(은평시민신문 2013년 5월 2일).

구파발역 통일로 가로수의 아름다움도 잊을 수 없다. 은행나무였다. 수령이 거의 30년 이상 되었었고 주변 상가와 전봇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서인지 나무 모양도 잘 다듬어진 가로수였다. 가을이 되면 진노랑으로 단풍이 들었는데 해가 저무는 늦은 오후,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가로수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런 모든 모습이 이제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은평뉴타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2년 32대 민선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복원과 함께 강남북균형발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 일환으로 강북에 대단위 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은평구의 구파발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100여만평을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한다. 은평구에 엄청난 환경, 사회변화를 가져올 중차대한 뉴타운 사업이 현대건설 사장을 거친 시장이 들어서면서, 거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급작스럽게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다. 우선 2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었다. 10월부터는 1지구부터 단계별로 토지협약보상이 개시되고 2005년 8월에 1지구 주택건설 공사를 착공한다. 이어 2006년 7월에 2지구, 2007년 8월에 3지구가 공사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지구는 2008년 5월에 준공하게 되고 2지구는 2008년 10월, 3지구는 2010년 3월에 일차로 준공을 마무리하지만 자잘한 실시계획 변경과 마무리 작업은 2013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은평뉴타운 입주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고작 7천여명이 거주하던 곳이 인구 4만이 훨씬 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했다. 이런 경우를 천지개벽이라고 하던가?

생태보전시민모임은 2002년에 물푸레골에서 기자촌으로 이사를 한다. 사무실이 공고롭게도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은평뉴타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태보전시민모임은 은평뉴타운 사업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마을공동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은평뉴타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단체의 존재이유라고 생각하고 은평뉴타운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한다.

## 지역 연대 활동의 필요성과 은평뉴타운 사업 대응

은평에 터전을 잡았지만 은평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이 애초부터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주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이슈보다는 중앙의 이슈와 문제에 더욱 민감하였고 활동을 집중하였다. 그러면서 차츰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부로부터의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지역민의 요구가 조금씩 늘어났던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사무실이 은평에 있다 보니 은평구민이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역의 환경 문제를 고발하거나,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난감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지역상황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서울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한다는 단체가 바로 코앞의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차츰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나중에 보니 다른 시민단체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열린사회은평시민회라는 시민단체가 있다. 분권과 자치, 그리고 시민교육 등을 미션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 즈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나 보다. 어느 날 시민회로부터 전



화가 한 통 걸려왔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간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두 단체 구성원 모두가 모여 밥을 먹게 되었고, 그 자리를 빌려 연대의 필요성을 공유하였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결의를 모았다. 필자 생각으로는 그 자리가 지금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로까지 발전한 지역 시민사회연대사의 첫 페이지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게 시작된 연대는 '녹색알뜰장'이라는 행사로 연결되었고, '어린이잔치한마당'이라는 기획행사로 활동력이 높아졌다. 어린이잔치한마당을 계기로 지역NGO들이 좀 더 모여 '은평마당'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는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라는 힘 있는 연대 모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한편 은평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상되었던 크고 작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1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전면재개발 방식이라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주민들은 재산권과 생존권이라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발빠르게 주민대책위를 구성한다. 지구별로 대책위가 꾸려지고 주민간의 이해가 충돌한 지역에서는 복수의 대책위가 꾸려지기도 했다. 과거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풍경이었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의 대응은 조용한 편이었다. 대응 필요성은 있었지만 워낙 큰 사업이라 개별 단체만의 접근으로는 벽찬 게 현실이었다. 자연스럽게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4년 12월 29일, 당시 민주노동당 은평지역위원회, 은평시민넷, 은평두레생협, 생태보전시민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등이 모여 은평뉴타운 공동 대응을 논의하게 되고 '아름다운은평연대'라는 은평뉴타운 대응을 위한 지역연대모임을

결성하게 된다(2005년 1월 7일).

그때 당시 '아름다운은평연대'는 은평뉴타운이 지역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환경파괴문제, 교통문제, 대기오염문제, 지역공동체 파괴 문제 등이 심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평뉴타운이 생태뉴타운을 지향한다지만 개발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습지와 산림이 훼손되거나 사라질 예정이었다. 산림훼손을 막고 습지를 최대한 보전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계획 안에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교통문제! 뉴타운이 개발되면 거주인구가 수천명에서 4만5천여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인근 고양시 삼송, 지축지구 택지개발까지 고려하면 은평구 통일로의 교통난이 불을 보듯 뻔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였다. 마을공동체 파괴도 못지 않게 큰 문제였다. 구파발역 근처에 위치한 한양주택이라는 오래된 마을공동체가 은평뉴타운 구역에 포함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전면재개발 방식 때문에 기차촌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양호한 주택들을 전부 밀어버리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은평뉴타운이 순환개발이나 보전을 전제한 부분개발이 아니라 전면개발 방식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였다. 전면재개발 방식은 대상지 안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었어서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마을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었다. 개발과정에서 원주민과 지역주민,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 방식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었다. 은평연대는 은평뉴타운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장기 프로젝

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은평연대의 활동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성과를 만들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 보호종인 땃쥐가 서식지 일부를 보존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부족한 습지를 대신할 땃쥐가 대체서식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현재 은평뉴타운에는 땃쥐자리골생태공원과 진관사입구습지 등 땃쥐가 서식지 2곳이 남아 있고, 우물골, 기자촌, 땃쥐자리골 등 3곳에 대체서식지가 조성되어 있다. 최근 진관사입구습지는 땃쥐, 산개구리 등 양서류의 집단산란지로서의 중요성이 확인되어 서울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와 현장보전 성과가 있었다. 은평뉴타운 대상지 중앙에는 이말산이라는 산이 자리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등지고 있는 작은 산이다. 서울둘레길 중의 하나이기도 해서 주말이면 구파발역에서 출발해 이말산을 거쳐 북한산으로 등산하는 등산객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말산은 행정명으로 진관근린공원이라 불렸다. 가끔 이말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정확한 이름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은평연대에서는 은평뉴타운 개발로 사라질 지역역사문화, 생태자원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개발대상지를 답사하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말산에서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 비석문에는 매장한 장소의 이름이 ‘이말산’이라고 또렷하게 기입되어 있었다. 산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이후로 산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끝에 지금은 은평구민 모두 이 산을 ‘이말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말산은 매장문화재의 보고이다. 답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석물과 비석들이 산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재 전문가에 의하면 이말산과 고양시 인근 산림은 과거 조선시대 궁

녀와 내시들의 집단 묘역군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는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말산 가장자리 일부가 은평뉴타운 개발지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앞서 밝힌 대로 매장문화재가 많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문화재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말산과 고양시 일대 산림이 과거 조선시대 매장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은평연대’ 활동은 소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은평뉴타운 개발이 몰고 올 교통문제, 생태계 훼손 문제, 공동체 파괴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역량의 한계로 수년 간 명맥을 유지하다 흐지부지된다. 결국 은평뉴타운 사업은 마무리되고, 구파발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일대는 과거와 전혀 다른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된다. 과거에 이 곳을 터전으로 살았던 원주민의 70% 가까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다른 도시와 공간으로 이전하였다. 은평뉴타운은 말 그대로 공간도, 자연환경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옛 것이 아닌 모두 새것인 ‘뉴(New)’타운이 되었다.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된 은평뉴타운은 이렇듯 옛것을 전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밀어 넣은 폭력적인 개발의 결과물이다. 새로운 주민들이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문화만큼은 파괴의 영역이 아닌, 창조의 영역에서 빛을 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창릉천에서 바라본 땃쥐자리골(은평뉴타운 개발 전)



▲ 창릉천에서 바라본 땃쥐자리골(은평뉴타운 개발 후)

## 은평의 자랑, 북한산에 개발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이미 말했듯이 북한산을 빼고 나면 은평구의 자연은 보잘 것 없다. 북한산은 연간 1,000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찾는, 조선시대 5대 명산 중의 하나이다. 북한산에는 여러 접근로가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은 도봉의 우이지구와 도봉지구, 양주의 송추지구 그리고 은평구 북한산성지구이다. 봄과 가을 주말이면 북한산을 찾는 등산객들로 구파발역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니 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주민들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북한산성지구와 불광역 주변에는 많은 음식점과 아웃도어 매장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산만 그러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명산 특히 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은 산과 자연이 지역 경제의 기본 자원이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동차문화 등이 발달하면서 등산객들로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고가 극심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지자체가 들고 나온 것이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였다. 논리는 이렇다.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케이블카를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쓰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설악산과 지리산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훨씬 강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개발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녹색성장을 내세웠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강과 하천 더 나아가 국립공원까지도 개발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진 정권이었다. 2009년부터 김새가 보이더니 2010년이 되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의 실제적 장애물로 여겨졌던 ‘자연보존지구내 케이블카 설치 규모를 현 2km에서 5km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계기로 침잠했던 각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들불처럼 타오른다. 이런 와중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탐방문화 개선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지역 케이블카 가능지 3개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4.2km의 장거리 노선이 케이블카 최종 후보로 적합하다고 발표한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한다.

북한산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케이블카 문제만은 아니었다. 2010년 들어 ‘은평새길’로 인한 북한산 훼손 문제도 첨예한 지역문제로 대두되었다.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 심각한 교통난은 이미 예견되었던 바다. 고양과 파주에서 우회하지 않고 서울로 진입하는 길은 통일로가 유일하다. 통일로에 인접한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해 상주인구가 6배 이상 늘어나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예측이 진즉 있었다. 더군다나 인접한 고양시 삼송과 지축지구에서도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계획대로라면 개발이 완료된 후 두 지역의 인구는 자그마치 62,500여명에 이르게 된다. 은평뉴타운까지 합치면 약 107,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통일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살게 되는 것이다. 발생할 교통난은 불을 보듯 뻔한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마땅한 방안이 없어 보였다.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은평새길’이었다. 은평뉴타운 개발 당시에는 교통문제가 먼 미래



의 일로만 치부되어 파괴력 있는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 은평뉴타운 입주가 시작되고 예상했던 교통문제가 조금씩 현실화되자 ‘은평새길’이 중요한 지역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문제는 은평새길 노선이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당시 북한산을 관통하는 사패산터널 문제로 우리는 일찍이 막대한 사회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었다. 사패산터널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은 없을 것이라는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약속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 차에 북한산을 관통하는 도로 건설이라니, 생태환경 보전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훼손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산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진보신당 은평당원협의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은평두레생협, 초록길도서관, 풍물패 터울림 등 은평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북한산지킴이은평시민연대’를 결성하게 된다. ‘북한산지킴이은평시민연대’는 북한산케이블카반대와 은평새길 반대를 포함해 북한산의 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련의 개발계획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은평새길과 관련해서는 구청장과 구의회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보내기, 토론회개최, 현장모니터링, 정보공개요청, 은평새길 관련한 서울시 예산 삭감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은평새길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은평뉴타운 폭포동 대책위와의 공동 연대 활동 등을 추진하였다. 은평새길 문제는 ‘서울시가 은평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은평새길은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일단 수면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하지만 삼성과 지축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면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여 현재진행중인 문제임이 분명하다.

케이블카 문제는 비단 북한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설악산, 지리산 등 전국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 케이블카 반대 활동 역시 중앙과 지역에서의 반대 활동이 병행되어 진행되었다. 북한산 정상에서는 케이블카 반대 1,000일 시위가 벌어지고, 서명운동, 캠페인,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이 전국대책위와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결국 북한산 케이블카 문제는 추진이 백지화되었고 설악산과 지리산에서 추진되던 케이블카 역시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지역추진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북한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 역시 언제고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북한산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는 북한산 지키기

북한산 보전활동과 관련해서 개발에 맞서 북한산을 지키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활동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북한산초등학교를 거점으로 진행되었던 다양한 북한산 보전활동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초등학교는 북한산국립공원 경계 안에 위치한 작은 학교다. 한 학년 학급수가 하나이고 전체 학생 수도 150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 남쪽에 남한산초등학교가 있다면 북쪽에는 북한산초등학교가 있다는 우스개 이야기도 있다. 북한산초등학교는 북한산을 뒷마당으로 둔 경관이 아주 빼어난 아름다운 학교이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지역의 북한산 보전활동이 전국 국립공원 보전운동과 맥락이 맞닿아 있

다는 생각을 갖고 1999년부터 북한산국립공원 보전활동을 펼쳐나간다. 마침, 은평지역에 살고 있던 단체 내 활동가가 북한산초등학교 학부모가 되면서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우선, 생태보전시민모임은 북한산 생태해설가 양성과정을 1999년 개설해 운영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15명 안팎의 자원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산 보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한편으로 북한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게 된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국립공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리고 생태감수성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북한산초등학교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도모한다. 마침 교장선생님도 생태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분이라 지역의 생태환경NGO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게 된다.

북한산초등학교는 이런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매년 전학년이 생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지역 NGO 역시 다양하고 질 높은 생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산초등학교는 한때 야영시범학교로까지 발전하였고,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지역사회,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생태보전시민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2013년 들어서 이런 협력관계는 조금 느슨해진 측면이 있으나 북한산초등학교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백분 활용하여 생태교육과 야영학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해마다 가을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숲 속 작은 음악회’도 그런 노력의 결실이다. ‘숲 속 작은 음악회’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북한산초등학교가 7년 넘게 함께 만들어 온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음악회이다.

## 북한산 말고도 봉산, 비단산, 이말산도 지켜야 한다

은평에는 북한산 말고도 봉산, 비단산, 이말산, 백련산 등 작은 산들이 여럿 있다. 비록 은평구 녹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나 비율로 따지면 북한산에 비교도 되지 않지만 가치나 중요성 면에서는 북한산 못지않은 소중한 산들이다.

북한산이 케이블카나 은평새길과 같은 관통도로처럼 굽직한 정책사업 등으로 훼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마을 주변의 작은 산들은 과도한 이용과 잘못된 관리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일찍이 이런 마을 주변 작은 산들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한 생태보전시민모임은 2003년부터 ‘마을 주변 작은 산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였다. 서울의 작은 산들은 무분별한 샛길과 등산로 침식, 불법경작, 무분별한 체육시설 설치, 생태계 특성을 무시한 숲 관리, 도시난개발과 물순환 단절로 인한 건조화 등의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은평의 산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봉산은 은평구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산이다. 능선을 따라 굴곡이 심하지 않은 평탄한 등산로가 나 있어 주말이면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즐긴다. 그리 높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해 다양한 행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데 가끔은 산의 생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행위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산악자전거와 산악마라톤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2006년, 한 번은 봉산에서 산악마라톤 동호회 주최의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었다. 넓지 않은

등산로에서 산책하는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대규모의 마라톤대회는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등산로를 따라 달리기를 하게 되면 걸으면서 등산하는 탐방객과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등산로 침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은평의 몇몇 단체들이 산에서의 마라톤대회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나 산악마라톤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다행히 그날 비가 내려 참가자 수가 예상외로 적었다. 마라톤이 벌어지는 당일, 달리기 코스 곳곳에 피켓을 들고 산에서의 마라톤은 적합한 이용행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산에서 절대 마라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도시의 산이라면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공공의 공간이기에 다른 이용자를 배려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산의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배려를 기본으로 산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말산은 구파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은평뉴타운 개발과정을 기록하는 활동을 하다, 숲 속에 자리한 묘비 글에서 제 이름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말산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평소에 이용객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산에 비해 등산로 훼손 문제는 크지 않았던 산이다. 반면 이용객이 적다 보니 행정 관리의 사각지대였고 감시하는 눈이 적다 보니 불법 경작지, 불법 체육시설 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런 이말산을 보전하자는 움직임이 몇 년 동안 진행되었다. 특히 은평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2006년부터 수차례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불법 경작지로 훼손된 지역을 골라 땅 주인을 확인하고 땅에 나무를 심어도 좋겠냐는 허락을 받는 등 사전 정지작업을 마친 후 매년 4월 5일 전 주말을 선



▲ 이말산(은평구 진관동) 나무심기 행사 후 함께 모여 찰칵! (2006년)

택해 은평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주민들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때 심은 나무들이 이제 제법 어른 나무로 자랐다.

비단산은 은평구 신사동 신사1동주민센터 뒤편에 위치한 작은 산이다. 원래 봉산 자락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도로로 봉산과 단절되고 주변이 아파트와 주택가로 개발되면서 고립된 섬처럼 분리되어 조그마한 산이 되었다. 인근에 신사초등학교가 있고, 새절역이 위치하고 있어 산 맞은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비단산을 통해 통학하고 출퇴근하였다. 규모는 작은 반면 워낙 이런 저런 이용 압력이 높다 보니까 숲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2004년 비단산 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비단산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면 도시 지역 다른 산이 직면한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원래 이곳 산 이름은 비단산이 아니었다. 그냥 행정 용어인 신사근린공원이 전부였다. 비단산이란 이름은 인근 신사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으신 이름이다. 지금은 비록 불



품없는 산이지만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면 비단보다 더 아름다운 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항상 비단산이란 이름으로 부르고 불리웠다. 바람이 통했는지 지금의 비단산은 과거와 다르게 잘 정돈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으로 탈바꿈하였다.

은평구에는 이외에도 앵봉산, 불광산, 갈현산 등 다양한 산들이 존재한다. 규모도 작고 내세울만한 것도 없으며 더군다나 북한산이나 봉산과 같은 큰 산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자투리 산인 관계로 이름마저 없는 산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산들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분별한 이용으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 은평구의 작은산 살리기 운동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이다. 작은산 살리기는 이말산처럼 원래의 산 이름을 찾아 주거나 없다면 비단산처럼 걸 맞는 이름을 지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은평의 모든 산들은 오늘도 우리의 보살핌과 부드러운 손길을 바라며, 이름이 불리길 염원하고 있을 것이다.

## 도시농부들, 경작본능이 꿈틀거리다!

북한산을 비롯한 은평의 작은산, 그리고 녹지는 은평의 외곽에 주로 분포한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다. 은평만이 아니라 서울의 외곽지역은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많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곳으로 도시의 난개발과 연담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박정희 정권 때 도입된 제도이다. 박정희 정권을 평가할 때 환경 분야에서는 적어도 높이 사는 정책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산림녹화

사업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 제도이다. 이유야 어떻든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나마 서울시는 푸른 녹지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은평도 마찬가지이다.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상당부분의 지역이 해제되고 사라졌지만, 여전히 외곽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지역에서의 개발은 여전히 유보되거나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정치적 논리로 많은 면적이 해제되어 주택단지 등으로 개발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의 급속한 축소에 위기의식을 느낀 환경단체들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보전방안 수립을 목표로 2007년 그린벨트 보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생태보전시민모임과 국립공원을지키는 시민의모임 등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은평구의 그린벨트를 깊이 들여다 보는 기회를 얻는다. 그린벨트의 토지 지목을 보면 많은 부분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나, 전답(田畓)도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사행위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경관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런 현장 경험은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서는 도시에서 행해지는 농업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도시의 경작행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 도시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은평지역 도시농업 활동은 이런 생각에서 잉태되었다. 마침, 전 세계적으로 도시농업 광풍이 불고 있었다. 2010년 은평구 역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한다. 2011년 서울시도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

는다. 이런 흐름을 순풍 삼아 은평지역에서 도시농업 이야기가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 발단이 시민사회의 그린벨트 보전운동이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그린벨트 보전의 일환으로 불광2동 주말농장을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은평시민넷, 은평두레생협, 마을n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회원 프로그램 등으로 공동텃밭을 운영하면서 공동경작이 주는 공동체성을 체득하고 있었다. 2010년 이들 단체는 은평지역에서의 도시농업 활성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에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라는 연대 모임을 결성하게 된다.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이미 몇 년의 연대활동을 통해 경험한 뒤였다.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는 ‘제1기 은평도시농부학교’를 시작으로 도시농업 실태조사, 도시농업 대중강연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은평지역에서 도시농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한편 은평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민과 관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은평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은평도시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역 도시농업관련 시민단체, 도시농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전국의 도시농업 관련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은평구의 특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조례안을 만들어 2011년 12월에 의원발의로 제정하게 된다. 곧이어 조례를 근거로 은평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회는 은평구의 도시농업 관련 정책과 계획을 사전 협의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민간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 그 결과로 2013년 현재

제6기 은평도시농부학교를 마무리하여 총 120여명 이상의 도시농부들을 배출하였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은 개발의 위험성에 노출된 그린벨트 중 현재 주말농장이나 전답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 조성을 진행한다. 그 대상지는 불광1동 팀수련원 인근에 자리한 주말농장이었다.

북한산 계곡에서 흘러드는 물로 농사짓기에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산 천혜의 경관을 만끽할 수 있으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산으로 위요되어 있어 마치 시골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도시농업공원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해 서울시나 은평구가 선택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 와중에 새로운 도시농업공원 대상지가 떠오른다. 바로 은평경찰서 뒤편에 위치한 갈현텃밭이었다.

불광2동주민센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갈현근린공원 언저리에 위치한 텃밭이었다. 논과 밭, 과수원 등으로 쓰이는 사유지였다. 이곳 역시 용출수가 있어 농사에 필요한 물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었고, 연신내역에서 걸어 1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나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남산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산에 있는 국궁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전 대상지로 물망에 오른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국궁장 이전 소식을 접한 지역의 시민사회는 국궁장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특히 습지형 농경지의 보전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습지를 보전하는 공원계획 수립을 주장하고 그런 방편으로 도시농업공원으로의 조성을 조심스레 제안한다. 하지만, 그런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국궁장을 추진하는 계획이 계속 추진된다.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당시 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주민투표를 받의하게 되고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지고 서울시장직을 내놓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농업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국공장 건립 계획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결국 서울시는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과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공장 건립을 백지화하고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 공무원은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지역 시민사회에 자문을 구했다. 도시농업공원으로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도시농업공원을 만드는 과정 자체도 시민참여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갈현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가칭)갈현도시농업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단계적으로 매입 중인 대상지의 일부 공간을 묵혀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우선 매입한 대상지를 임시 텃밭으로 조성하여 분양, 운영하면서 앞으로의 텃밭 운영에 대한 관리운영 경험을 축적하기로 한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임시텃밭을 운영하면서 도시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동지축제, 현장 도시농부학교, 김장축제, 추수감사제, 영화상영회 등이 그런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이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은 2014년 준공 예정이며 체험원 안에 들어설 도시농업교육센터는 불광2동 마을의 커뮤니티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갈현도시농업체험원은 은평지역 도시농업활성화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이 자못 기대된다.



▲ 2014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갈현도시농업체험원' 개장 예정 대상지(은평구 불광2동)의 현 모습

이제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전환마을을 꿈꾼다!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연이어 터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다. 그동안 핵발전소와 에너지 문제에 둔감했던 소시민들이 핵발전과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은평 지역사회 안에서도 그 동안 핵문제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2년 어느 날 시민사회와 정당 등 단체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탈핵과 에너지 관련 활동을 조직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진행하기 위해 연대모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그동안의 문제의식이 있었



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쉽게 받아들여졌고, 탈핵에 관심 있는 지역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개인이 참여하는 ‘탈핵을 만드는 은평시민연대’라는 연대모임이 결성된다.

‘탈핵을 만드는 은평시민연대’는 줄여서 ‘핵만은×’라고 줄여 부르고 탈핵을 위한 대중강연회, 캠페인, 탈핵문화제 등의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국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그러던 차에 탈핵운동의 지속성에 대한 고민이 한 회의 석상에서 제기되었다. 사회적 이슈가 민감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모임이 구성되지만 그 이슈가 점차 희미해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활동이 시들해지는 경험을 수차례 경험하였던 바다. 탈핵과 에너지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고민이었다.

이런 저런 논의 끝에 탈핵과 에너지 전환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체 구성이 필요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의 경제적 뒷받침이 가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어떤 형태의 결사체가 적합할까 고민하던 중에 협동조합 방식에 눈이 갔다. 협동조합운동은 그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지만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협동의 원리를 기본으로 조합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체이면서 결사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더군다나 1주 1표가 기본 원리인 자본주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1인 1표라는 사람중심의 민주적 운영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다. ‘핵만은×’를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깊은 논의가 시작되었다. 세부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기본부터 다시 한 번 고민하고 논의했다. 탈핵과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내외 에너지 전환 운동 사례

를 공부하였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협동조합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과 탈핵운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연구한 후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하였다.

2013년 3월 3일, 발기인대회를 열고 한달 간의 준비를 마친 후 마침내 2013년 4월 19일,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의 미션은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 은평마을 만들기’이다. 비전은 ‘옥상마다 햇빛발전소, 집집마다 에너지 절전소’이다. 조합원의 소중한 출자금을 모아 공공건물이나 학교 옥상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조합원 배당과 에너지관련 지역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햇빛발전소 설치뿐만 아니라 가정 에너지 소비 진단, 컨설팅, 에너지인식증진교육활동, 캠페인, 정책 개발, 적정기술 보급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13년에는 에너지 절전소 활동과 관련해서 10명의 에너지 컨설턴트가 은평구와 서대문구의 가정 1,600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에너지 소비 구조를 진단하고 소비절약 컨설팅을 통해 약 5%의 전기소비를 줄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014년 상반기에 은평구 관내에 총 200kW 용량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할 목표를 갖고 있다.



▲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창립총회 후 함께 모여 찰칵(2013년)

##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하는 은평,  
그리고 전환마을

은평은 재정자립도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뒤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가난한 자치구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할 정도로 가난하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다. 절대적, 상대적 기준 어느 것으로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은평은 풍요롭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마을임에는 틀림없다. 자연이 아름답고 그 자연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름답다. 자연을 닮아서일 수 있고, 아름다워지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이런 아름다움이 지속가능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과 도시문명이 지속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가 엄청나서 어떤 이유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냉전시대의 레퍼토리가 아니더라도 인류 문명의 지속을 의심케 하는 요소가 지천에 널려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화여대의 최재천 교수는 인류의 미래가 Few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Few는 Food(식량 문제), Energy(에너지 문제), Water(물 문제)의 머리글자를 모은 합성어이다. 이 세 가지 자원은 지금 현재도 심각하게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자연과 환경의 위기가 국가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공교롭게도 Few는 영어로 ‘부족한’이란 뜻이다. 우리의 도시 삶은 지속가능할까? 보통 지속가능성이란 말은 사회가 지속가능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환경이 지속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느 것 하나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불가능하다.

환경은 사회와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환경상황은 우리 사회와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가? 기후변화위기, 식량위기, 물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사막화 문제 등 다종다양한 지구환경문제들이 일부 환경론자의 담론을 벗어나 일반인의 상식이 된 지 오래다. 환경위기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에 100종의 생물이 사라지고 있단다. 자연 상태의 멸종속도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통계이다. 생명이 살기 힘든 지구로 바뀌고 있다. 사람도 생물이자. 사람의 영속은 다른 생명의 목숨으로 유지 가능할 텐데, 그런 생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면 큰 문제이다. 이런 속도라면 100년 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중 365만 종이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하여 이름을 명명한 생물종이 150여만 종에 지나지 않는데 말이다. 기후변화는 어떤가? 해수면 상승이

라는 현상만 보더라도 심각하다. 몇 개월 전에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는 2100년에 부산 앞바다 해수면이 평균 1m 상승할 것이고, 그로 인해 환경난민이 150만명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는 끊임없이 들 수 있다. 결국 환경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을 내려 보자. 결국 현재와 같은 우리의 삶과 문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장기비상시대에 돌입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장기비상시대의 초입일지도 모르겠다. 언제쯤 그걸 알아챌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다행히 이런 당면한 문제를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에 걸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환마을을 그리고 전환운동이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에게도 전환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환운동이란 말 그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현 상태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환운동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이다. 지구를 구하려면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필요하지만, 지역은 슈퍼맨이 아니어도 바꿀 수 있다. 지역은 우리 각자 각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즉자적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 바로 삶의 현장인 지역이다.

나는 은평구에서 전환마을운동이, 전환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은평구가 전환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은평구민이 전환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환마을운동을 ‘마을 만들기’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그 마을 만들기가 환경위기의식을 전제하는 움직임이었으면 좋겠다. 은평마을이 자연과 더불어 영원히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교  
육

은평 주민들,  
학교 안으로 두박두박



교육이 희망인 세상을 꿈꾼다  
따뜻한 은평의 교육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다

홍기복



## 은평 주민들, 학교안으로 뚜벅뚜벅

은평구는 2013년 4월 현재 유치원 49개원(사립 37개원)에서 4,900명, 초등학교 31개교(사립 5개교)에서 25,400명, 중학교 18개교(사립 7개교)에서 15,400명, 고등학교 18개교(일반고 9개교, 특성화고 7개교, 자사고 2개교)에서 17,300명, 특수학교 1개교에서 27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활동을 하는 곳이 학교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청소년만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이라고 모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지역의 수많은 교육 관련 이야기거리들 중에서 학교 교육과 연관된 다섯 가지 장면만 언급

하고자 한다. 필자의 경험이나 고민이 학교 교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평 지역의 학교 안팎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지역의 시민사회가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들을 해왔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지역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이 조금이라도 더 넓어지길 기대한다. 학교 교육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학교 교육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런 학교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기를 희망한다.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 교육 이야기가 결국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거칠게라도 말하고 싶었다. 학교가 높은 담장을 허물고 마을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진흙 속에서 보석을 찾아내듯, 다섯 가지 장면 속에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함께가자 우리

토끼를 깨워서 함께가는 거북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적

©이철수

장면 하나.  
지역 주민들,  
학교급식을 바꾸다.



▲ 은평구 학교급식조례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 (©은평시민신문)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학교급식이 공공재로서 학교 교육의 일부임을 우리 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학교 급식의 잦은 식중독 사고와 위탁 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불길이 2005년에는 은평 지역에서도 타올랐고, 주민 발의로 학교급식조례안을 청구하는 데 성공했다. 은평구에서 주민발의 조례청구는 지방자치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은평구에서만 1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서울과 전국이 학교급식운동으로 달궈졌고 결국 학교급식법 개정과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개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흐름이 2009년 지방자치 선거를 요동치게 만들었고, 이를 거스르려던 서울시장을 중도 하차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지역적 요구가 모여져 보편적 복지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다. 2010년, 은평구에서도 친환경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2005년 당시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주된 이유는 광역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중 우리 농산물 사용지원을 명시한 규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유럽처럼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을 확대하면서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면 WTO협정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5년 10월 12일 18시 연신내역에서 은평 지역의 15개 단체가 참여



▲ 은평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준비모임 (©은평시민신문)

하여 '은평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발족했다.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우리 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급식활동가와 교사, 학부모 등의 참여 보장, 학교급식 예산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연신내역, 녹번역, 응암역 등 거리에서 급식조례가 왜 필요한지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며 청원서명을 받았다. 발족 후 불과 2개월 만에 조례 제정에 필요한 주민발의 서명 최소 인원인 7,800명을 훨씬 뛰어넘는 9,551명의 서명을 받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마침내 2005년 12월 6일, '은평구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안'을 은평구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발의로 청구한 '은평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각하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각하를 해버린 것이다. 조례제정을 추진했던 지역의 시민 사회에서는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서울의 경우 구로를 비롯하여 5개 구에서 학교급식조례 주민 청구가 있었

으며, 구 의회에서 심의 중이거나 보류 중이었으나 구에서 각하된 경우는 한 곳도 없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구청 앞에서 항의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달 이상 벌이는 등 부당함을 호소했고, 조례안 청구가 각하된 지 83일 만인 2006년 4월 14일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7월에 열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을 기각하고 은평구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 은평구청의 급식조례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심판이 열리기 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은평시민신문)

조례 제정운동본부는 행정심판 기각결정에 굴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 조례제정청구각하처분취소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 판결을 받고 말았다. 2008년, 결국 서울시조례

가 제정되어 은평구의 조례청구각하 사유가 소멸되었지만, 구청장은 2009년 7월까지도 구정 질의 답변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애들 밥 해 먹이느라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시가 하는 걸 보아 가며 해도 늦지 않다”면서 여전히 조례 제정을 미루었다.

2010년 봄에 전국적으로 다시 불기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는 구의회의 방해로 조례 제정이 또다



▲ 친환경 무상급식 은평운동본부 출범식 기자회견과 거리 서명 (©은평시민신문)



시 무산되기도 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은평지역 시민단체들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은평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작업을 전개했다.

결국, 구청장은 구민들의 염원을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막 구청장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0년 5월에,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드디어 은평구에서도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 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무상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은평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13년 12월 현재, 은평구의 학교급식 지원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선도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서울시청 및 서울시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



▲ 은평구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피켓시위

며, 은평구 자체적으로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은평이랑’을 중심으로 영양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한 식재료 품평회나 생산지 실사 등을 통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관내 학교에 공급해 호평을 받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도 급식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 적극 참여하여 은평 관내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산하에 급식실무소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학교급식 지원실무에도 적극 결합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된 급식실무소위원회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힘의 가장 커다란 원동력은 2005년부터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은평구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 장면 둘.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다.



▲ 'A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A 행동의 날'에 동 쌀 권리를 주장하는 요강 상징의식 (©오마이뉴스)

은평구는 공립인 은평고와 진관고가 2011년에 개교할 때까지 공립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기형적인 공교육 체계를 유지하였다. 인문계 7개교와 실업계 7개교 등 총 14개의 고등학교가 모두 사립인 사립학교의 천국이었다. 사립학교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역할을 방기한 측면이 강하다. 은평구의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입시 중심의 학사 운영으로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자랑하며 지역민들의 교육열에 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학재단의 견고한 족벌체제와 불법적인 학사 개입,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회계비리나 인사비리 등으로 사립학교에서는 학내 분규도 끊이지 않았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대성중·고를 운영하는 대성학원, 예일유·초·여중·여고·디자인고를 운영하는 예일학

원, 송실중·고를 운영하는 송실학원, 충암유·초·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등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로 끊임없이 학내분규가 발생했다. 은평지역의 어떤 학교에서는 한 달이 넘는 천막농성도 있었고, 거리 집회에 식판이나 요강이 등장하기도 했고, 어떤 학교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은평을 가리켜 사학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05년, 사립학교의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비리사학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 3개월간이나 원외투쟁을 고집한 끝에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 법안으로 재개정되면서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후에도 사립학교법은 사학비리 창궐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A학원의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사립학교가 갖는 문제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사립학교법의 개정 필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A학원의 문제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1997년경이다. 학교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학교 옆 토지를 이사장 명의로 임차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A스포츠센터를 건립했는데, 이 센터의 회원권을 교사들을 동원해서 학부모들에게 강매하다 문제가 되었다. 1999년에는 학교의 난방시설공사비 3억 5천만 원을 횡령한 사건, 연이어 조카 병역청탁비리 사건까지 터지면서 이사장이 감옥에 가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목사와 신도들 (©오마이뉴스)

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00년부터 8년간 이사장직에서 쫓겨났지만, 가족들이 돌아가며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본인은 명예이사장이나 학원장이라는 사적인 지위를 참칭하며 변함없이 재단과 학교 운영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등 제왕적 지위를 유지하였다. 그는 2008년 다시 이사장직에 복귀하였다.

2011년 서울시교육청의 A학원 특별감사에서 창호교체공사비 횡령, 신규교사 채용서류 불법폐기를 포함한 인사비리 등 무려 34가지나 되는 비리 사실들이 적발되면서 사학비리의 종합세트라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이사장은 다시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현재 이사장직은 그의 딸이 맡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정 조치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A고의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에게도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교육청이 파면을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이들에게 모두 경고 조치만 하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묵살하기도 했다. 특히 A고 교장은 교장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재단의 비호 속에 현재 A고 교감으로 내려앉아 재직 중이다. 교장 임기가 끝나고 평교사로 되돌아가 후학을 양성하는 사례는 가끔 있어도, 교장에서 교감으로 내려앉는 경우는 어디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06년에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까지 A학원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기된 문제는 A학원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 제출요구조차도 전면 거부한 문제, 이사회 회의록의 이사들 가짜서명 문제, 개인 신분인 명예이사장의 법인사무실 상시 사용 문제, 매점 임대료가 0원인 문제,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불법처분 문제, 학교의 업무용 차량을 명예이사장 등 개인이 불법 사용하면서 학교 행정직원을 전담 운전기사로 일하게 하는 문제, 학교 소속의 행정직원이 법인실에서 개인인 명예이사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문제 등이었다. 국정감

사에서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택 당시 교육감은 A학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A학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립학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사립학교법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직무유기에서 기인한다.

사립 재단의 독단적 학교운영과 회계비리, 인사비리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A학원의 경우, 700명이 생활하는 중학교 건물에 건물 밖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 1개가 전부였다. 학생들이 출입해야 할 학교 건물 중앙 현관을 통째로 막아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건물 뒤편에 복도를 뚫어 만든 좁은 출입구를 불편하고 위험하게 이용해야 했다. 건물 여기저기에 금이 가거나 틈이 벌어져 있고, 비가 오면 교실과 복도로 물이 새어 들어와 바닥이 흥건해진다. 지나가던 고등학생의 머리 위로 교실 유리창틀이 통째로 떨어져 30바늘을 꿰매기도 했다. 낙후된 학교시설문제가 최근까지도 공중과 방송에 수도 없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교실도 부족해서 과학실이나 음악실, 미술실, 어학실 등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자율학습실만은 확보하고 있다. 학생회실이나 동아리실도 없다. 학생식당도 강당도 체육관도 없는 것은 물론 교사휴게실도 없다. 교실 후면엔 학급 게시판조차 없다. 학교마다 학생 등록금이 똑같고,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급 수에 따라 똑같이 지원되는데, 왜 A학원은 시설 환경이 유독 열악할까? 교육활동이나 학생 활동 지원에 쓰는 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오히려 덜 쓴다. 개교기념일에 학생들에게 그 흔한 볼펜 한 자루 나눠주지 않는다. 필

자는 A고에 재직하면서 전교조 A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학교와 재단의 투명한 회계운용, 학사 및 인사의 민주적 운영,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었는데, A고의 담임선택제 시행 문제 등으로 학교 측과 2007년 내내 갈등을 빚다가 결국 2008년 2월말 갑자기 같은 재단 내 A중학교 전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보복성 인사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1년이 넘는 소송 끝에 항소심에서 판사의 강제조정예의해, 고등학교에 해당과목 교사의 결원이 발생하면 최우선하여 필자가 고등학교에 복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강제전보를 둘러싼 다툼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유로 학교 측이 해당 교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도 달렸다. 학교로부터는 그 어떤 사과한 마디도 없었다.

A학원의 부당한 교사 탄압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맞서 은평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A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대책위에는 지역의 은평시민넷, 열린사회시민연합은평시민회, 은평두레생협, 인권실천시민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 풍물패터울림,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 민주노동당은평지역위원회, 진보신당은평당원협의회, 모교를사랑하는A동문모임, 전교조서울지부 등이 참여했다. 은평지역에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대거 하나로 뭉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A대책위는 수차례의 대규모 항의 집회, 학교 앞과 인근 지역에서 수도 없이 진행되었던 거리 선전,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아침저녁으로 계속되었던 학교 앞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A대책위가 요구했던 핵심 사항들을 보면, 열악한 화장실 문제, 재단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막아버린 중학교 건물의 중앙현관 문제,

법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옥외비상계단 폐쇄 문제, 학생들의 자치권과 인권 등의 문제, 회계자료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 문제, 재단의 학사개입 중단과 학교운영 정상화 문제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겨우 해결된 것은 화장실 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었다.

2008년 3월 7일, 학교 앞에서는 인근의 교사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대규모 항의집회가 열렸다. 대책위는 'A고 담임선택제는 대국민 사기극, 학교 시설환경부터 개선하라'와 '등록금은 똑같은데 왜? 우리는 창고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나요?'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교사 탄압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과 열악한 시설환경의 개선을 전면적으로 요구하였다. 4월 7일에 응암오거리에서 개최된 1차 A행동의 날 행사에는 A고 재학생 수백 명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이날 선보인 요강 퍼포먼스는 A의 열악한 시설 환경 중에서도 특히 더 열악했던 화장실 문제를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리 문제조차도 편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였다.

2차 A행동의 날인 5월 16일에 다시 응암오거리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날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까지 조정하고, 집회장 주변에 학교 교사들을 대거 배치하는 등 학교 측의 철저한 통제로 학생들의 집회장 접근이 원천 차단되었다. 이날 A고 학부모 20~30여명이 '시민단체 선동 속에 피 멎드는 부모마음' '전교조는 학생선동 중지하라' '집회선동 하지 말고 대학부터 보내 달라' 등의 손 팻말을 들고 길 건너편에서 반대집회를 하기도 했다. 특이했던 것은 모든 학부모들이 손 팻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려 하자 모두 황급히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전해들은 말로는 학교측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학부모회 임원들을 동원하여 일괄 제작한 손 팻말을 들게 했고, 대부분의





▲ 민주적 학교운영과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을 요구한 학교 앞 항의 집회



▲ 응암오거리에서 진행된 A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A 행동의 날 행사 (©인터뉴스 바이러스)



▲ A학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 (©은평시민신문)



학부모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는 반대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대책위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학부모들이 오히려 더 간절하게 바라던 내용들이었다.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해주는 이들에게 오히려 반대시위를 해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지... 자식을 학교에 맡긴 것 자체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학부모는 법으로 보호받는 학교교육의 당연한 주체이며, 현실적으로도 전혀 약자가 아니고 약자일 필요도 없다.

요강 퍼포먼스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A 학원 화장실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서울시교육청은 급히 대책을 마련했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화장실 문제가 급한 대로 일부 해결되면서, A학원의 비민주적 운영을 야기했던 더 본질적인 문제들, 진짜 해결하고 싶었던 구조적 문제들은 모두 덮



▲ A학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A학원을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평시민신문)



▲ 2차 A 행동의 날에 학교 측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A고 학부모들

이고 말았다. 대책위 활동은 현실의 견고한 벽에 부딪혀서 A학원의 겉과 속 어느 것도 별반 바뀌내지 못했다. 그러나 A학원 사태는 은평의 지역사회에 교육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던져 주었다. 누구나 전문가이면서도 누구도 답을 말하기 어려운 교육 문제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장면 셋.  
지역 주민들,  
경쟁 교육에 맞서 싸우다.



▲ 일제고사로 해직되었던 정상용 선생님의 복직을 축하하는 구산초 정문 앞 풍경(2008년)

2008년 10월 14일과 15일에 치러진 일제고사, 전국의 모든 동학년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문제로 동시에 시험을 치렀다. 전국적인 학업성취도평가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학업성취수준 평가라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려면 표집 평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시험에 참여하는 전수 평가를 강

행하고 그 결과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교육 당국이 경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눈앞의 성과에만 연연한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온 나라가 비교육적인 출서기 성적 경쟁에 돌입했고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제고사 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과목을 일부 축소할 채 일제고사를 치르고 있다.

일제고사가 만들어낸 광풍이 학교 현장과 지역을 여지없이 할퀴고 지나갔다. 2008년 10월 일제고사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던 서울의 교사 7명이 2008년 12월 9일 서울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 중에는 은평구의 구산초등학교 정상용 선생님도 있었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2011년 4월 1일 해직 교사들은 학교에 복직했다. 2년이 넘는 그 세월은 경쟁과 차별이 판치는 우리 교육의 불편한 진실들을 속살까지 보여주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정상용 선생님은 일제고사를 앞두고 원하는 학생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평소대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그날 정상용 선생님이 답임을 맡았던 6학년 8반 36명의 아이들 중 20명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수업을 받았으며, 나머지 15명은 일제고사를 보고 한 명은 결석을 했다. 15명의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20명의 아이들은 다른 교실로 옮겨 수업을 진행하였고, 시험을 마친 15명의 아이들은 시험 후 보충수업을 통해 그 날의 수업내용을 마저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게 전부였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사에게 사형과도 같은 파면이라니. 12월 16일 밤 9

시, 파면통지서가 정상용 선생님 집으로 직접 배달되었다. 무방비 상태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다. 해직 소식을 듣고 다음날 아침부터 제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구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었다. 늦은 밤에 집으로 파면 통보를 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정상용 선생님의 출근을 가로막는 구산초 교감 선생님을 학부모 20여명이 10여명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달려와 제지 해주었다.

“제발 선생님 학교에 들여보내주세요. 우리 선생님 잘못된 거 없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던 말이에요. 아이들하고 인사



▲ 구산초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내걸었던 현수막



▲ 정상용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 (©은평시민신문)



▲ 정상용 선생님의 파면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작업



는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용 선생님이 파면을 당하면, 일제고사 안 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아이들도 죄인 인가요? 우리 아이가 며칠째 밥도 잘 못 먹고 인터넷만 하면서 불안해 해요. 아이들이 받을 상처,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1시간여에 걸친 실랑이 끝에 정상용 선생님이 학급 아이들과 마지막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이 되어 주었다. 이날 바로 구산초 학부모들의 탄원서 서명이 시작되었고, 서명운동 엿새 만에 전체 학부모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1,869명의 학부모가 서명에 참여하였다. 다음은 탄원서 중 일부이다.

일제고사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용 선생님께서는 시험거부를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았고,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 뿐인데도 교육청에서는 가장 가혹한 징벌인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중략) 정상용 선생님은 아이들과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함께하는 자상하고 성실한 선생님이므로 동료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현장학습과 학급활동으로 아이들이 1년 내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의 건강한 주민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일제고사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을 때부터 복직이 되는 날까지 잠시도 정상용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교육을 걱정하는 은평시민들’을 결성하고 정상용 선생님의 파면 철회와 일제고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활동, 서명활동, 촛불문화제 등을 꾸준히 펼쳤으며, 서울

시 교육청 앞이나 은평 지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 철야농성, 촛불집회 등에도 늘 함께 했다. 물론, 자발적인 일제고사 반대 1인 시위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또한 일제고사를 볼 때마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이말산과 진관사 등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황당한 여론몰이도 있었다.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는 해직통보 직전인 12월 12일 사설

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파면된 한 교사가 자신의 6학년 자녀에게는 시험을 보게 했으며 ‘파렴



▲ 일요일 아침에 북한산 입구에서 진행된 선전지 배포와 서명 작업 (©은평시민신문)

▲ 일제고사 당일 이말산과 진관사 일대에서 진행한 현장 체험학습 선전지 (©은평시민신문)



치한 짓, ‘이율배반’이라고 몰아붙였다. <오마이뉴스>는 같은 날 오후 기사를 통해 두 신문의 보도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점심식사 자리에서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정상용 선생님 자녀의 신상정보를 제공한 결과라고 보도했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을 뿐인데, 이를 파렴치하다고 몰아 부친 터무니없는 해프닝이었다. 다음은 12월 14일 <오마이뉴스>에 실렸던 정상용 선생님 자녀의 편지글 중 일부이다.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려는데 아빠가 일제고사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시험을 볼지 안 볼지 물었습니다. 나는 우선 우리 선생님이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만약 시험을 안 볼 경우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으며,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안 본다면 부담이 되어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을 보고 중,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볼지 안 볼지 결정하겠다고 생각하고는 이번에는 시험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험을 봤고 몇 달 후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중략>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재미있지 않고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슬프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른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구보다도 구산초 6학년 8반 아이들의 마음고생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제고사를 치른 아이들까지도 잘못된 것 하나 없는데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정상용 선생님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정상용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쫓긴 후 아이들이 교문 앞 1인 시위를 하는 정상용 선생님에게 달려오곤 했는데, 아이들을 말리던 정상용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선생님, 우리더러 나서지 말라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걸 선생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선생님이 해직되어 교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구산초 6학년 8반 학생들이 졸업식을 정상용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학교 측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6학년 8반 졸업식을 학교장 주치가 아니라 해직 상태에 있었던 정상용 선생님 주최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구산초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힘이 컸다. 졸업식날 ‘정상용 선생님과 함께 졸업을 하고 싶어요’라는 노란 리본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교정 곳곳에서 꽃처럼 만발했다.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졸업식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9년 12월 31일 일제고사로 해직된 7명의 해직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7명의 선생님들은 상처투성이인 채로 2011년 4월 1일 모두 복직하였다. 그 이후에 6학년 8반 반창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훗날리는 낙엽처럼 가슴 저리지만 아름다운 위안과 추억으로 기



▲ 정상용 선생님이 해직 당시 담임을 맡았던 6학년 학생들의 졸업식 장면 (©은평시민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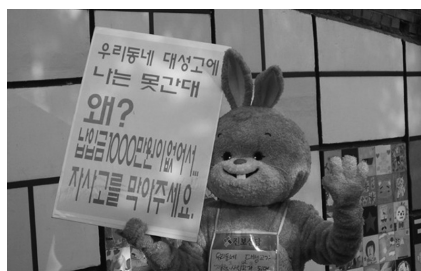


▲ 졸업식날 구산초 교정 곳곳에 달린 노란 리본 (©은평시민신문)

억되길 바란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에 뜻하지 않은 성과를 갖다 주기도 했다. 2008년 한 해 동안 A학원 사태와 일제고사 해직 싸움을 연이어 거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지역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 문제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재인식하게 되었고, 교육 문제가 바로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문제라는 것을 새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은평 지역사회의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지역에서 교육이라는 의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그 고민의 결과를 스스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결실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은평학부모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장면 넷.  
지역 주민들,  
특권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다



▲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는 구산중 앞 거리 선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정책이 있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을 살려줄 수 있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말이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순진한 희망과는 다르게 고교평준화 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특권 교육과 경쟁 교육을 강화했을 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경쟁에서 패배한

낙오자로 만들었다. 경쟁교육 최고의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고교 다양화 정책들 중에서 그 참병을 맡은 것 중의 하나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이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넘겨주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대신에,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사학재단이 자사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입금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이런 방법 대신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반고의 3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손쉬운 보완책을 만들어주었다. 자사고에 학생선발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성적 상위 50%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특권을 챙겨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까지 자사고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다.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사고들은 학부모들의 이런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학교를 입시학원화하였다. 자사고 학생들은 학교생활 속에서 인성 교육이나 문예체 교육 보다 입시교과 중심의 수업을 받으며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교과보충수업을 반강제로 듣기도 하고, 0교시와 심야자율학습 정도는 기본이다. 학부모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몇몇 자사고는 다시 일반고로 전환하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다. 입시철이 되면, 자사고 교사들은 중학교로 학교 생존을 걸고 학생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 자사고 문제가 자사고만의 문제로 끝나지도 않았다. 자사고의 등장으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빼앗겨버린 일반고는 기본적인 학습분위기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일반고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영재고나 과학고, 특성화고 등에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성적 중상위권과 최하위권 학생들

을 받아서 교육활동을 해야 한다. 성적을 가지고 우수한 학생과 불량한 학생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육활동의 상당 부분은 교과 수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수업분위기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 때문에 교사들과 학생들 또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고 학생들은 롤모델로 삼을 만한 친구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워졌다. 사실 숨은 교육과정이라 불리며 학생들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친구들이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교육당국이 모를 리가 없다. 2013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다. 자사고 입학생 자격 조건을 성적 상위 50%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개정해, 성적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성적우수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존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자사고 관계자들과 자사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장까지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자사고의 면접선발권을 오히려 일부 허용해주고 국영수 비중도 늘려주는 등 본래의 자사고 설립 취지나 개선하려던 정책과는 정반대방향으로 더 후퇴하면서, 자사고에 입시명문 특권학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말았다.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는 2011년부터 자사고로 전환했는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근에 경쟁할만한 자사고가 없기 때문에 정원을 웃도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의 설립취지를 살리자면, 당연히 재단의 넉넉한 전입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성고는 재단의 전입금 몇 푼 없이 가난한 동네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의 시설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고, 교사의 수준이 일반고보다 특별히 더 우수하지도 않고, 동문들이 특별히

더 잘나가지도 않고, 재단의 재정적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성고가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대학입시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되돌려주는 것뿐이다. 아이들을 쥐어짜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라도 해서 입시성적이 좋을 수 있다면, 학부모들은 그것을 선택한다는 사실이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벌을 자식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보통 부모들의 욕심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덮어버리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학생들이 다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깨어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력이 되면, 아니 힘에 부칠 때조차도 깨어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들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2009년,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했던 지역사회의 저항도 그러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기 시작한 2009년 6월, 은평에서는 은평시민넷, 열린사회시민연합은평시민회, 은평진보신당, 은평민주노동당 등이 참여하는 ‘대성고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는 은평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곧 이어서 은평두레생협, 은평촛불!, 동화읽는어른모임, 전교조초등서부지회, 전교조사립중서부지회 등이 대책위에 결합했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고, 대성고 앞에서 학생들 하교 시간에 맞춰 항의 집회를 열고 선전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학교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대책위는 은평시민신문,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와 함께 10월 한 달 동안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주민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성고 인근 학교의 학부모를 비롯하여 은평구에 거주



하는 200여명의 학부모가 대상이었다. 설문 결과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 반대가 40%, 찬성이 26.5%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62.5%(복수응답 가능)가 입시교육만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응답했고, 92%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설문을 통해서도, 자사고에 대한 대성고 인근 주민들의 시각이 부정적이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2010년까지도 대성고와 주변의 중학교 등에서 자사고 반대 거리 선전과 서명 활동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지역주민들의 힘만으로 자사고 전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성고 인근 주민들은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자녀들을 대성고에 보내든지, 아니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먼 학교에 등교시키든지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다.



▲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는 대성중고 앞 선전지 배포, 거리 선전



▲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는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과 대성고 앞 항의 집회



가끔은 뜬구름 잡는 엉뚱한 상상을 하곤 한다. 가장 손쉽고 강력한 방법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자사고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겠지

만, 보통 사람들의 힘으로 정책을 바꾸는 일은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 만약에 자사고에 반대하는 대성고 주변의 학부모들이 대대적인 집단행동에 나섰다면 대성고는 자사고 전환을 강행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각성하면서 자기 주변의 문제부터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면, 세상도 차츰 보통 사람들이 살기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율형 사립고란? 정부지원 없이 학생납입금과 재단전입금만으로 자율 운영되는 사립고  
**항의 전화 합시다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한다**  
 대성고등학교 02-3900-500 서울시교육청 02-3909-1144(학교운영지원과)

▲ 대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며 지역에 배포한 선전지

장면 다섯,  
지역 주민들,  
함께 교육을 이야기하다



▲ 은학네가 준비한 첫 번째 학부모 대중강좌

2009년 2월 은학네가 결성되었다. 정식 명칭은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은평학부모네트워크’. 2008년 초의 A학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그리고 그해 10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 일제고사와 구산초 정상용 선생님의 해직 사태는 2008년 한 해 동안 은평의 시민사회를 교육문제로 들끓게 만들었다. 교육문제를 중심으

로 모인 지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끝까지 흩어지지 않았다.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학교 밖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은학네를 만들어 입시경쟁교육에 지친 지역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지역 사회로부터 찾아보자고 의기투합하였다. 처음 은학네 결성에는 은평 시민넷, 열린사회시민연합은평시민회, 은평두레생협, 은평동화읽는어른모임, 민주노동당은평구위원회, 진보신당은평당원협의회, 은평춧불!, 노동자연대다함께서부지구, 전교조 등이 참여했다.

은학네는 지역 학부모 사이의 네트워크, 특히 학교별 학부모 조직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운동을 지향하면서 출발하였다. 지역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학교 교육의 주체라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와 지역의 교육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하여 대중강좌, 교육관련 토론회, 지역 연대사업 등도 은학네 사업의 영역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당장의 안정된 조직체계 구축과 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은학네 결성을 주도한 각 참여 단체의 대표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보낸 제안문에 실렸던 〈은학네의 설립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은평 지역의 우리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임을 다시 확인하며, 학부모의 힘으로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게 존중받으며 해맑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은평 학부모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우리는 교육이 사람마다 품고 있는 가치로운 품성을 적극적으로 발현시켜주는 과정이며, 세상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오히려 대다수의 삶을 짓밟으며 세상을 처참한 전쟁터로 만들어가고 있다. 〈중략〉

우리는 학부모 스스로 개개인의 이기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교육이 어떤 지향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현재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교육 속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운영 전반에 당당하게 참여해나갈 것이다.

은학네가 출범하자마자 진행했던 첫 번째 사업은 2009년 3월 31일에 실시된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을 위한 이말산 체험학습이었다. 이어서 6월에는 내부 강좌가 은평의 시민사회 활동가 20~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4강이 진행되었다. 시민사회가 먼저 학습하고 먼저 준비되어야 일반학부모 대중사업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은학네는 9월에 진행된 학부모 대중 강좌를 통해서 일반 학부모들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학부모

대중 강좌는 2012년 1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면서 은학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2009년의 첫 대중강좌는 ‘공감과 소통으로 자녀와 행복한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총 4강을 진행하였다. 매회 60~70명의 학부모가 참여했다. 기대 이상의 열띤 호응과 참여에 고무된 은학네는 곧 이어서 2011년까지 학부모 강좌를 이어갔다.

【 2009년 은학네 강좌 】		
날짜	강좌내용(대중강좌)	강사
6월8일	한국교육의 대안찾기-북유럽 교육현장 이야기	안승문
6월15일	한국교육에 대한 구조적 진단 및 현안분석	이광석
6월22일	학생 인권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 바라보기	김영삼
6월22일	학교운영시스템의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	홍기복 정상용
9월10일	자녀교육에 대해 성찰하기	고병헌
9월11일	자녀 마음 속 들여다보기	김현수
9월17일	자녀와 공감하는 대화기술	박근덕
9월18일	육망하는 아이들 이성적인 학부모	송재희

2012년에는 은평구청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개선사업에 집중하기로 은학네 사업방향을 조정하면서 학부모 대중강좌는 일시 중지되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재개되었다. 2013년 서울시 부모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은학네의 학부모강좌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홍보가 미비했음에도 매회 참석자 수가 50여 명 정도로 2009년과 거의 비슷했다. 4년 사이에 은평지역 시민사회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에는 ‘도 대체 왜?’라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주민 인터뷰 영상을 찍어 UCC로 제작했다. 이 UCC영상은 은평구청에 출품해서 상을 받기도 했다.

【 2013년 은학네 강좌 】			
주제	시기	내용	강사
교육특강	6월 18일	불광천에서 용날까?	홍세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7월24 ~25일	우리 마을 사람 인터뷰 UCC 제작 - 은평청소년, 마을사람들에게 묻다.	유현정
자녀교육의 불편한 진실	8월 27일	우리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하종강
	8월 30일	우리 아이들의 인문소양교육, 이렇게	진영종
	9월 3일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7가지 약속	김규향
	9월 6일	우리 아이들의 공부상처	김현수



▲ 2013년에 다시 재개한 학부모 대중강좌



▲ 학부모 대중강좌가 모두 끝나고 이어진 뒷풀이 장면(2013년)

은학네는 학부모 대중강좌 이외에도 친환경학교급식사업, 일제고사 폐지, 자사고 저지 등 지역의 각종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응하였다. 2012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사



업도 시작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한다. 법과 제도의 개혁보다, 삶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임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된다.

은학네의 활동 성과로 돋보이는 것 중 하나는 은평구청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일 것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자치단체가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일선 학교에 직접 지원해주는 경비를 뜻한다. 문제는 지자체에 교육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요구에 따라 편의적으로 예산 수십억 원을 단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나, 학력신장 등 경쟁교육에 편승하는 사업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은학네는 진보신당 은평당원협의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은평구청으로부터 입수한 은평구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을 2009년 초 건네받아 분석했는데, 상황의 심각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편성되는 수 십 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활동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은평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자치구 사업에 맞게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은학네의 고민이 민선 5기 은평구청장 체제의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고, 은평구청은 은학네의 다양한 실험적 제안들을 대부분 수용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주민참여위원회의 교육청소년분과가 은학네의 정책제안들이 제도권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시작된 은평구의 교육관련 사업들은 사업의 추진 과정이나 내용 모두 민관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로

다른 지역에 소개되기도 하였고, 중앙 정부에서 수여하는 꽤 좋은(?) 상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은학네의 제안으로 시작한 은평구의 교육관련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마을만들기를 지향으로 지역사회와 학교를 지역의 교육콘텐츠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구청 주도로 연결시켜주는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학교 안의 사회복지사라고 불리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구청의 지원으로 관내 인문계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배치하고 사업도 지원해주는 사업,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해주는 배식도우미 지원사업, 은평구 모든 학교 모든 교실에 대한 대대적인 교실 대청소 및 소독 사업,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해주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이 사업비를 이용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직업체험박람회 사업 등이 있다. 특히 교육콘텐츠 연계 사업이 시작



▲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은평구 청소년진로체험 박람회 포스터



▲ 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장면



▲ 은평구청 광장에서 진행된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 모습



▲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은평구의 학교 관계자들

되고 엄청난 실무를 감당해준 녹번종합사회복지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이 사업이 정착되는데 크게 한 몫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학네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민관 거버넌스 활동 사례를 통해서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혹자는 시민사회가 고생고생해서 만들어내는 사업의 성과가 고스란히 구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곤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볼 여지도 많다. 지역 주민들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고, 시민사회가 노력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아진다면 그 자체가 성과 아닐까 싶다. 다양한 실험과 경험과 실력들이 시민사회에 축적되다보면, 민관 거버넌스의 맞은편 자리에 앉게 되는 날도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 장면 하나 더

은평에는 중등대안학교, 은평씨앗학교도 있어요.

청소년 문화제 기획 ...

지역 기반 공동체 수업 활발

은평씨앗학교는 은평야학에서 출발하여 은평청소년야학을 거쳐 설립된 중등대안학교이다. 2년 4학기제의 중등과정(입학연령 13~15세)이며, 비기숙형



비인가 도시형 대안학교이며, 001년부터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질 찾기' 정책 사업을 통해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국내 19개 도시형 대안학교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다양하게 교류하며 연합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평씨앗학교는 1980년 5월, 녹번동 은평초등학교 교실 한 구석에서 배움을 원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은평야간학교(은평야학)'로 개교하였다. 중등 과정은 덕성여대 '젊은 새 이웃'이라는 동아리가 맡았고 고등 과정은 가리봉동에서 한울야학을 운영하던 교사 일부가 맡았다. 1997년 IMF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은평에 경제적인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0년부터 청소년 야학으로 전환하였다. 2002년 3월에는 은평야학에서 은평씨앗학교로 이름을 바꾸며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 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은평씨앗학교는 벽화그리기, 지역 사회 봉사, 은평구 알뜰장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수업을 진행하며 이상북 청소년 문화제 등의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등 대안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 은평구 시민사회단체 연합회인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의 소속 단체로 지역문화 만들기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동네 주민의  
또 다른 이름,  
노동자

노  
동



노동의 고단함을  
서로 다독이며 나누는 일터와 삶터를 꿈꾼다

강화연

노동

동네 주민의  
또 다른 이름, 노동자

마을마다  
노동자가 있다.

마을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 동네 곳곳마다 자그마한 회사나 가게들이 있고, 그곳에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은평구 주민 대부분은 은평구에 있는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다.

“디리링~~”

아침 시간에 울리는 벨소리, 모르는 번호인 걸 보니 상담전화라



직감하고 급히 전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식당에서 일하다 월급을 안 줘 그만 뒀는데, 어떻게 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며칠 후 사무실로 방문하셨는데 따님과 같이 오셨다. “저는 나이도 먹고 뭘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딸과 얘기하세요.”

2~3명이 일하는 작은 식당인데, 사장이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급여일을 미루다 2개월분 급여를 못받게 됐다. 노동부 진정 절차를 소개하지만, 일단 상담자가 사장과 통화를 해보기로 한다. “저도 같은 동네에서 살고 그 식당을 이용해 본 적도 있는데 월급 떼먹었다고 안 좋은 소문나면 이미지도 그러니 사장님 사정이 안 좋지만 한 달 100여만원 받고 생계를 꾸리는 분 보다는 낫지 않겠냐”며 설득을 한다. 며칠 뒤 내담자에게 확인 해 보니 밀린 월급을 받았다고 하며, 고마움을 전한다. 몇 달 후,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이 근로기준법 대중강좌를 하는데 낮익은 분이 들어오신다. 새로 일하게 된 식당에서 사장님이 돈이 없다고 몇 달째 임금을 안준다고 한다. 어떤 분은 2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에게 퇴사한다고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더니,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으니 더 줄 게 없다고 했다 한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아예 없었던단다. 회사측 말대로 계산해 보니 퇴직금을 제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20년 장기 근속의 혜택이 최저임금이란 말인지.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불가피하거나 중대한 요건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추세라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으려면 법정 다툼까지 가야 할 수도 있다.



▲ 노동인권개선 캠페인 및 무료노동법률 상담. 옆 테이블에서는 혈당 혈압 검사도 한다.

현재 동네모임에 걸려 오는 노동상담은 홍보 현수막이 거리에 걸려 있을 때 유효한 상담이 월 평균 100~150건 정도다. 이중에는 노동부 진정이나 소송까지 가서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측의 보복이 두려워, 절차가 복잡하다 생각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도 꽤 있다.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의 노동상담은 체불임금,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다. 24시간 일하는 곳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을 모두 휴게 시간으로 정해 놓은 근로계약서를 써 놓고도 노동자들은 사업주 눈치 보느라 퇴사 무렵에야 상담하러 오기 일쑤다. 관련 법 적용도 못 받는 근무조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고, 차별 대우와 사장이나 관리자로부터 인격 모독을 당해 속앓이를 하고, 심리 치유가 필요한 지경이 되지만 법으로 보장 받기가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 갑의 세상에서 을이 알아야 하는 근로기준법 대중강좌 (2013년)

## 일방향 혜택을 넘어 일상의 연대와 나눔으로

### #장면 하나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나는 커서 글자가 될 테요.”

“선생님들, 화면에 막대기 하나가 깜박깜박 하죠? 이것을 커서라고 합니다. 커서는 글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는 커서 글자가 될 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쥐처럼 생긴 거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누구 하나 못 듣고 놓칠세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반복하는 목소리가 찌렁찌렁하다. 2012년 5월부터 1년 2회 열었으니, 벌써 4기째 인데, 강사의 모습을 보다 보면 ‘어, 저 양반 지난 2기 강의 때 없었던 기막힌 멘트를 날리는군.’ 감탄이 흘러나온다. 고령의 연령대가 많은 기초반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배우는 분들의 눈높이, 피드백에 맞춰 수업 방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마음을 쓴다.



◀▶ 은평 중고령노동자컴퓨터교실 수업 장면, 기초, 중급 2개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은평중고령노동자 컴퓨터 교실은 한쪽만의 배움이 아닌 10~15명의 보조 강사들끼리도 서로 배우고, 보조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수강생끼리도 서로 배움을 나누는 곳이다. 강사나 보조강사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들, IT 전문가들이다. 은평 지역에 산다는 것과 ‘컴퓨터’라는 공통분모가 이들을 엮어주었다.

잔업과 야근을 제쳐 두고 매주 컴퓨터교실에서 자원 봉사하는 강사단들의 나눔이 있었기에 2년 동안 4기 2개반을 운영할 수 있었으며, 수강하는 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가르쳐주는 이와 배우는 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아는 것을 알려 주고 배우는 공간이 된 이곳에서 수강한 사람들 중에는 보조강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2년 동안 일궈낸 결실 중 하나다.

“부담되니 돈을 건지 마시라.”고 극구 말려도 선생님들 밥 먹으라며 돈을 모아 두 손에 꼭 쥐어주신다. 수강생들의 참가비와 십시일반 모아주신 성금으로 컴퓨터교실은 재정면에서 큰 부담을 덜게 됐다. 2012년 봄부터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주관으로 시작한 은평 중고령노동자 컴퓨터교실을 통해 수강생들과 은평에 사는 컴퓨터로 일하는 직장인들, IT 전문가들 간에 새로운 은평의 인연이 만들어졌다. 매 기수 마다 2~3회 정도 30분씩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아야 할 노동법 수업도 곁들인다. ,

### #장면 둘

“딩딩궁다콩”

“선생님, 덩딩따궁이 아니라니까요. 입장단하면서 몸을 박자에 맞춰 움직이세요.”



▲ 풍물은 서로 마주보며 호흡을 맞춰야 어울림이 된다

함께 마주 보며 장단을 맞추는 풍물모임은 짧은 기간 만났는데도 회원들 사이에 결속력이 높다.

풍물반에서 징을 멋지게 연주해서 ‘징’이라는 애칭을 얻은 언니는 “내 안에 이런 끼가 있는 줄 예전엔 몰랐어.”라고 말했다. 첫 풍물 공연 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징언니, 항상 수줍음이 많아 표현을 잘 못할 것 같던 분이 장단에 맞춰 징채를 멋들어지게 돌리면서 울동을 선보였다.

매 수업마다 가락을 제대로 못 따라와 선생님께 지청구를 듣고 기죽어 있던 회원니가 공연할 때는 빛이 난다. 흥이 몸안에 베어 있나 보다. 풍물가락에 흠뻑 빠져 표정이 싱그럽기까지 하다. 일터에서 쌓인 피곤함이 풍물 가락과 함께 장단을 맞추는 동료들과의 수다로 어느 틈엔가 사그라진다.



▲ 차별없는서울대행진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풍물교실 회원들이 첫 공연한 날(2013년)



▲ 서울시 마을박람회에서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 모임 풍물반의 연합 공연(2013년)



▲ 따사로운 봄볕을 만끽하며 우리 풍물반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 #장면 셋 ○○○○○○○○○○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 손가락, 잔뜩 긴장한 얼굴 표정들...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기타교실’의 풍경이다. 동네모임 사무실 벽에 거칠게 그려 놓은 피아노 건반과 그 위에 기타 코드와 오선음 손 그림이 붙어 있다. 노동자 기타교실 기초 강습반을 위해 보조강사 한 분이 그려



놓은 것이다.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잠들 때 너무 춥더라~ 나는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노래를 기타로 배우며 강사는 무더위와 칼바람 추위 속에서 천막 노숙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느낌을 노래 가사에 담았다는 얘기를 해 준다. 기타반 회원들은 서로 호흡을 맞추며 좀 더 같고 닮아 공연할 날을 고대하며 연습하고 있다.



▲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기타 기초 강습반

모여야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다.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은 일하느라 동네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동자들에게 동네에서 재미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다. 노동상담, 노동자 대중 강좌, 노동자 생활문화 소모임 활동, 건강 교실 참여 노동자들에게 은평두레생협,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은평시민단체 활동 등 은평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좋은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일터나 사회에서 느낀 이야기를 나눌 곳이 있으면, 그곳이 교육 현장이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터전이지 않겠는가?

“살림의원 달력이 나왔는데 필요하신 선생님들 가져가세요.”

“어디에 있는 병원이에요? 진료 과목은 무엇인데요? 누가 만들었어요?”의문과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이것저것 물어 본다.

“살림의원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병원들과는 달라요. 본인이나 가족이 혹시 병원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 은평초등학교에서 가을굿 하는데 놀러 오세요.”

터울림 가을굿에서 옹기종기 모여 처음 보는 다른 주민들과도 어울려 파전에 막걸리를 사이에 두고 인사를 한다. 또 공동 텃밭을 일구며, 다른 텃밭지기들이 싸온 음식을 안주 삼아 막걸리 사발을 주거나 받거나...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급속히 변하는 신문명을 따라잡을 기회가 없었던 중고령 노동자들,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듣는 컴퓨터를 두렵게만 여겼던 분들, 가족을 위해 평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계를 꾸리는 데 여념이 없어 문화생활을 꿈꾸기 어려웠던 분들에게 복지 차원의 지원을 넘어 연대운동의 기틀로서 노동자 공동체를 이루어내려는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런 활동 속에서 한 골목에 살면서도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기도 하고, 서로 사이가 돈독해져 모임을 꾸려가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일하는 업종이 같은 경우, 일터의 얘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상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노동문제를 상담하러 온 사람들에게 먼저 나서서 노동자가 모이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인연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은평노동인권센터(준)는 2012년과 2013년에 은평누리축제 광장에 부스를 차리고, 노동인권 상식에 관한 퀴즈를 풀고,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2년 최저임금이 시급 얼마일까요?’라는 질문에 ‘만원 아니에요?’ 라는 답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놀랐다. 축제 참여를 통해 은평에서 노동인권 단체가 있다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축제 진행에 함께 했던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게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게 아니며, ‘노동, 노동권’은 어디서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민권’임을 느끼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



▲ 은평누리축제 광장 프로그램 '건강한 노동을 위한 릴레이 게임'(2013년)

뭘 하려고  
지역에서  
노동을 말할까?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에서 실시한 2차례의 ‘노동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은평은 영세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당장 모임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모임, 업종과 동네별 노동자 모임을 비롯해서 관심사가 비슷한 노동자들끼리의 모임도 만들고 지원



▲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은평 노동실태보고회 및 노동의제 제안 토론회(2012년)



▲ 은평노동인권센터(준) 발기인대회(2013년)



▲ 은평노동인권센터(준) 발기인대회까지 지원과 준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하는 역할이 절실하다.

은평지역 노동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면서 지역 사회에 노동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개선 활동을 펼치는 것, 특히 노동자 권리에 대해 알리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과 생활에서 노동인권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 노동친화적 은평을 만드는 것,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들의 생활문화연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준)은평노동인권센터, 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모임이 하고자 하는 일이다. 일하는 곳에서의 권리 찾기, 인권함양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만나고 관계 맺기를 통해 일터를 벗어난 삶터에서 더불어 사는 연대를 실현하는 일, 그러한 노력들을 모아 노동복지실

현하는 한편, 돈과 경쟁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지역 활동과 연계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은평에서 노동자 지원 사업의 성과를 담아 지역 사회로 확장하여 지역 노동자들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은평노동인권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정에서 노동관련 교육이 전무한 사회다. 노동자로 살아가지만 정작 당사자는 권리를 알 수 있는 기회마저 없는 현실, 낮은 소득과 장시간 노동, 여유 없는 일상생활은 내가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내가 사는 사회와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세상의 일원으로 나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에 새털만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싹트게 하는 것, 노동자 생활문화 연대 운동을 하는 이유다.

##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은평의 단체와 기관들

꿈나무도서관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학부모네트워크
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마을N도서관	장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살림의료생협	은평시민신문
생태보전시민모임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초록길도서관
공동육아협동조합 소리나는어린이집	마을무지개
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평생학습관
어린이도서연구회은평지회	은평주거복지센터
열린사회은평시민회	두꺼비 하우스
은광지역아동센터	씨즈
은평두레생협	은평교육복지센터
은평시민넷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풍물패 터울림	전교조초등서부지회
한국여성의전화	꿈꾸는다락방
아름다운가게연신내점	월드비전꿈빛마을
은평씨앗학교	이상한나라의헌책방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으랏차차! 은평**

퍼낸이 | 전양수

퍼낸곳 | (사)은평상상

퍼낸날 | 2014년 2월

글쓴이 | 강화연 김영미 민성환 부미경 이미경 최순옥 홍기복 홍성민

기획·진행 | 김영미, 조옥분

디자인 | 권순미디자인

카페 | <http://cafe.daum.net/epsangsang>

